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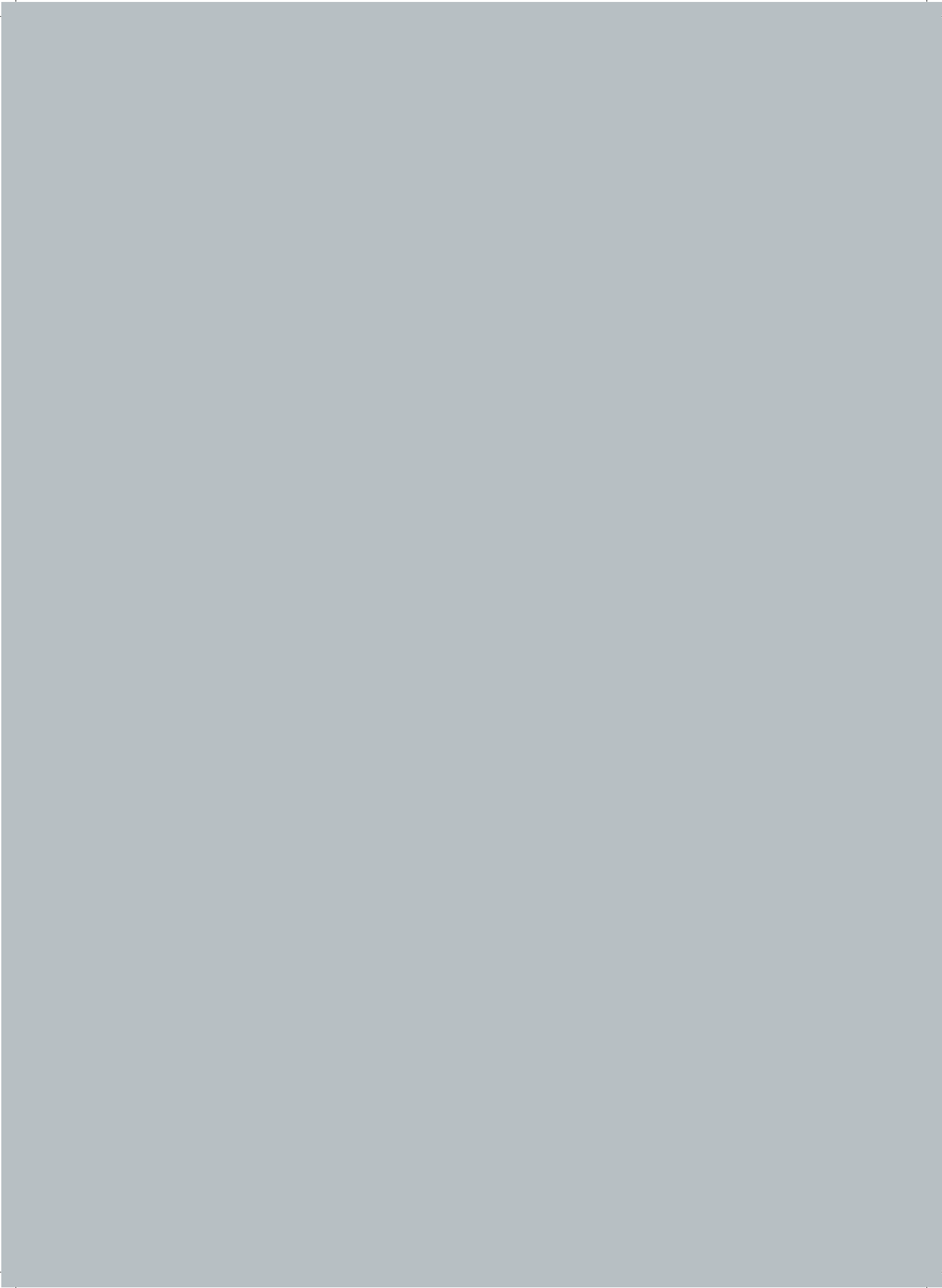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서울

평생

교육

진흥원



목차 Contents



01

2020년 코로나시대 서평원의 여정

1-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소개	08
1-2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브랜드 철학 '살길앞(Life Long Learn)'	10
1-3 2020년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12
1-4 포스트코로나시대와 평생교육	14



02

서울 평생교육의 내일을 위한 노력

2-1 서울 평생학습 기반 마련	[칼럼] 시민 평생교육의 내일을 고민하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연구 서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 평생학습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수집 서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22 24 28 34 38
2-2 서울 평생학습 문화 확산	[칼럼] 낯선 듯, 그러나 어쩌면 당신의 생활에 스며있는 일상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인문학 포럼 개최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뉴미디어 채널 운영 개선	44 48 53 58 62

서울 평생학습, 일년을 담다



03

시민의 배움을 위한 만남

3-1 서울자유시민대학	[특별기획] 안녕하세요, 제1호 시민석사 '최영아'입니다	70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72
	권역별 학습장	76
	대학연계 시민대학	80
	민간연계 시민대학(인문단체·대사관·기업연계)	84
	명예시민학위제	90
	서울자유시민대학 활성화 사업	94
	디지털 시민교육	98
	온라인 시민대학	101
	유튜브 시민대학	104
	동남권 캠퍼스	106
	[탐방]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소개	108
3-2 모두의학교	[탐방] 모모/두두/나나와 함께하는 모두의학교 탐방기	118
	시민참여형 학습공간	122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	124
	모두의학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138
	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132
3-3 동네배움터	[스토리] 위드(with) 코로나, 동네배움터의 새로운 도약	136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140
3-4 청년인생설계학교	[인터뷰] 나는 우리만큼 깊어진다	146
	청년인생설계학교 <베이직 코스>	150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젝트 코스>	154
	청년인생설계학교 <워크앤라이프 코스>	157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160
	정책 활성화 홍보 캠페인	164
	청년 친화적 평생학습 기반 마련	169
3-5 문해교육센터	[칼럼] 늦게 배웠다고 천천히 배워야 할 이유는 없다	176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178
함께하는 사람들		182

발간사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작게는 마스크가 필수품이 되었고, 일하는 방식, 주변 사람과 만나 대화하는 것, 여가와 취미활동이 한순간에 온라인·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EBS를 통해 집에서 수업 듣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강의를 진행하십니다. 도리어 학생들은 통학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비대면 강의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던 온라인 교육체계가 순식간에 우리 곁에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맞아 서울 평생교육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 개편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들의 학습 기회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시민대학은 온라인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인문가치를 누리실 수 있도록, ‘유튜브 시민대학’과 ‘온라인 시민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연말에 개관한 동남권캠퍼스에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제작해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기업, 대사관과 연계한 시민대학 프로그램도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이어 나갔습니다.

모두의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유명인의 서재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랜선 서재들이’, 각자의 사연을 담은 ‘온라인 육아 나눔장터’와 같이 비대면 상황에 맞춘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였습니다.

동네배움터는 코로나 속에서도 17개 자치구에서 182개 배움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어느 교수님은 동네배움터가 코로나 상황에 맞는 평생교육이라고 칭찬하시더군요. 지역사회에서 소수의 인원이 모여 학습할 수 있었기에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동네배움터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 담당자분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좌를 운

영한 덕분에 그간 학습 참여가 어려웠던 청년, 직장인, 중년남성들이 참여가 늘어난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문해 학습자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도 운영했습니다. 집에서 학습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문해교육 꾸러미를 제작해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문해교육 시화 작품도 오프라인 전시회 대신 온라인 갤러리로 게시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해교육의 필요성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인 ‘삶깹깹(Life Long Learn)’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긴 삶 속에서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며 서로 나누고 성장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신 많은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위안과 안정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해 온라인에 서 드린 평생교육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타인을 만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을 통해 시민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하는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서울

평생

교육

진흥원

Annual Report

01 — 삶

2020년 코로나시대 서평원의 여정

1.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소개
2. 브랜드 철학 '삶깊앓(Life Long Learn)'
3. 2020년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4. 포스트코로나시대와 평생교육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소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고,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설립근거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3장 제17조(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사업

-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
-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학습 상담
- 학습동아리 육성·활동지원
- 취약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
-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
-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VISION

함께 배우고 더불어 여는 미래 평생학습도시 서울

MISSION

삶길앗(Life Long Learn)
평생학습으로 서울시민을 행복하게

전략

서울 평생학습 기반 조성

서울시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새롭고 두터운 학습기회 제공

전략과제

- 정책과제 연구 개발
- 평생학습 문화 확산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관계자 전문성 강화

- 서울자유시민대학
- 모두의학교
- 동네배움터

- 문해교육센터
- 청년인생설계학교
- 도시인문학 지원사업

연혁

2013.10.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 계획 수립

2014.04.

평생교육진흥원 개원(서울연구원 부설)

2015.03.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독립 재단법인 설립 / 제1대 김영철 원장 취임

2015.04.

마포구 도화동(공덕)으로 이전

2015.11.

평생학습 전문 웹진 <다들> 창간

2017.10.

'모두의학교' 개관

2018.01.

서울자유시민대학 위탁운영

2018.08.

청년인생설계학교 시범운영

2019.07.

제2대 김주명 원장 취임

2019.11.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지정

2020.01.

서울자유시민대학 고유사업 전환

2021.04.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 정식 개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브랜드 철학

값 얹 닭 뚝 많 팔 넓 들 품 뭉
빚 덩 늑 줌 텃 낚 곶 섶 뭉 뱀
몹 끔 험 삼 김 앓 업 줌 섷 늑

틀린 글자는 몇 개 일까요?
찾으셨나요? 몇 개를 찾으셨나요?

사실 ‘틀린’ 글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것을 접하면 지레 선입견을 갖고 합니다.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편견은 낯선 것들과 마주할 때 일어나곤 합니다.

마치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란 단어처럼 말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바랍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우리가 더 많은 이해(knowledge)를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understanding)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말이죠.

서평원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인 ‘삶깊앓’에는 더 나은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고 긴’ 일생동안 늘
가까이에서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는’ 과정에 함께하고자 하는 서평원의 소망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평생교육의 역할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평생교육은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학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느슨한 유대(Weak tie)를 통한 휴식과 위로의 역할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학습 과정도 제공자 중심의 일방향적 강의에서 학습자 중심의 소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속에서 서평원은 ‘삶깊앓(Life Long Learn)’이라는 새로운 브랜드 철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삶

성장의 시작은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평생교육은 이러한 의문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깊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와 같은 의문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지속가능한 해답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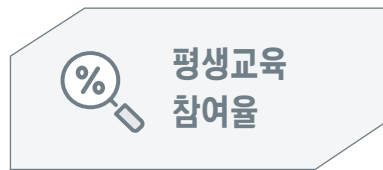
앓

평생교육은 ‘나만의 성장’이 아닌 ‘우리의 성장’까지 견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서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란 고민에 평생교육은 서로의 지혜와 지식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매개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낮설게만 느껴졌던 것들과 가까워지는 기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서울시 평생교육 현황



전국
41.7 %



서울
50.0 %

수요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성인
86.9%



어린이 **4.4%**



청소년 **2.1%**



노인 **1.3%**



통합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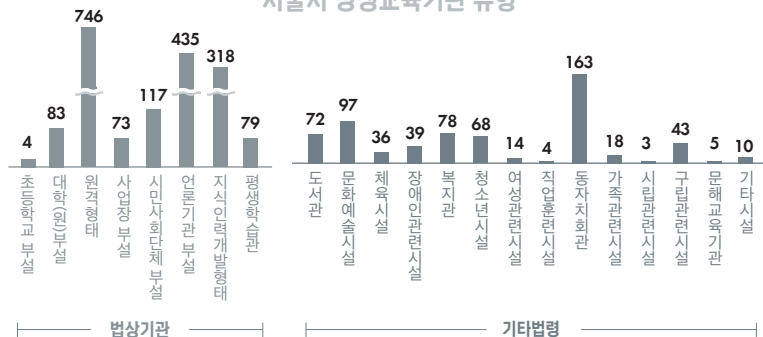


평생교육 참여자 수
21,713,028 명



평생교육기관
2,510 개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유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118,386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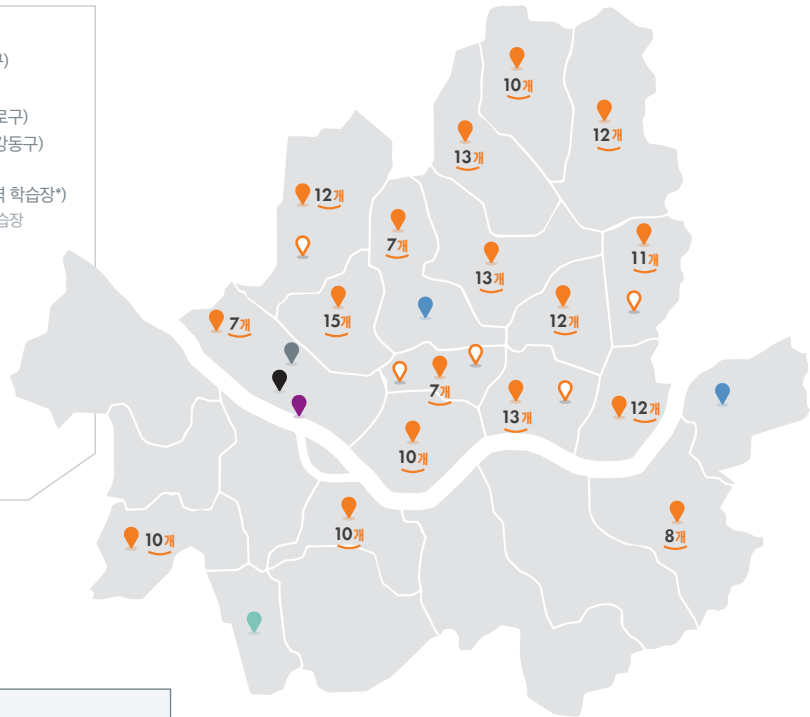
주제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 제	학력보완	성인문해	직업능력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비 율	13.8%	0.5%	49.7%	22.0%	13.8%	0.2%

※ 출처 2020 평생교육통계 자료집(2020.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2020.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마포구)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캠퍼스(종로구)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캠퍼스(강동구)
-  서울자유시민대학 캠퍼스(5개 권역 학습장*)
* 시민청, 서소문, 은평, 독성, 중랑 학습장
-  모두의학교(금천구)
-  청년인생설계학교
-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  동네배움터 (17개 자치구, 182개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 제공 현황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수	395개	62개	1,144개	28개
참여자 수	41,138명	920명	13,182명	14,150명

2020학년도 서울시민대학 명예시민학사/석사 배출 현황



명예시민학사
294명



명예시민석사
58명

(2018~누적)

96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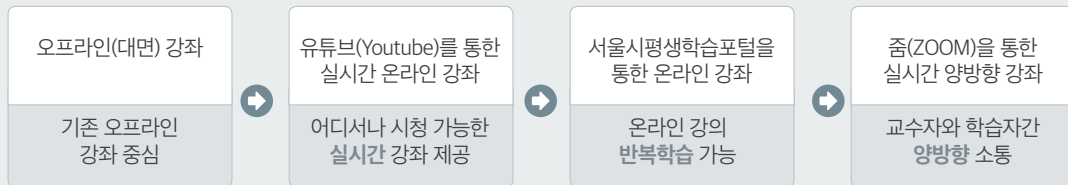


포스트코로나시대와 평생교육

코로나19 환경을 평생학습 확산의 기회로



•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시민대학으로 가능성 확장



• 시민들이 직접 온라인 콘텐츠를 촬영·제작·편집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 이슈를 다루고 시민들에게 성찰의 기회 제공

- [재난이 세상을 멈춰 세울 때]를 주제로 인문학 좌담 형식의 강의 제공
-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이해하고, 과거를 성찰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인문학적 성찰 향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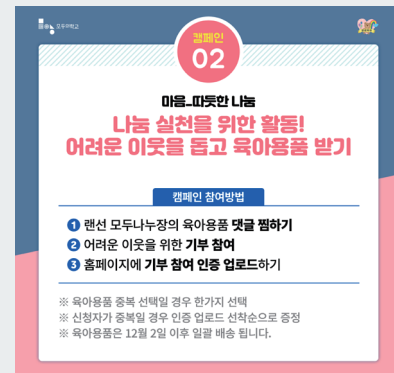


커뮤니티 기반 사회혁신 · 문화활동을 랜선으로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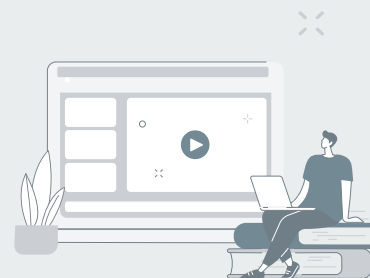
• 책방에 가지 못한다면, 책방을 내방으로- '랜선 서재들이'

- 코로나로 '모두의책방'이 문을 닫았지만, '집들이'처럼 유명인의 서재와 읽은 책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라인에서도 책 읽는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육아, 육아용품을 공유·기부하는 '랜선 모두나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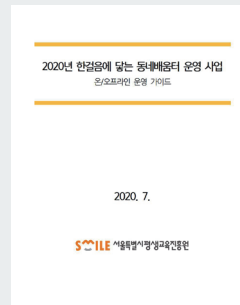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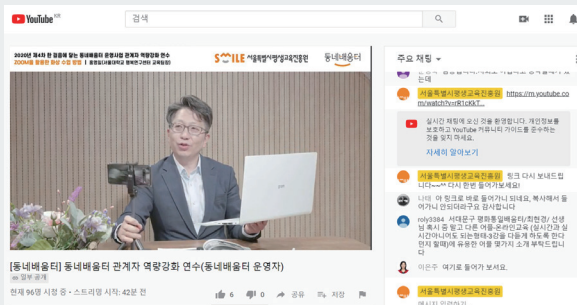
- 아이가 커서 쓰지 않는 육아 용품을 나누는 '모두나누장'을 온라인으로 운영해, 랜선에서도 함께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시민분들과 육아용품을 공유했습니다.



시민들의 지속가능한 학습활동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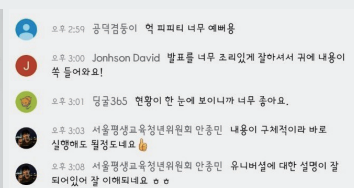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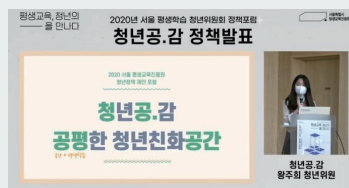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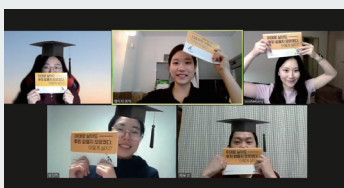
- 17개 자치구 182개 동네배움터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 비대면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위한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개최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단계별 오프라인 학습장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련 기준 및 대응방법, 서식 등의 운영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코로나 속에서도 지역주민 간 배움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 자치구별 온라인 학습·실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운영방법·사례 등 정보 제공
 - 비대면 사회공헌 '이웃의날' 캠페인운영 (서울시자원봉사센터-진흥원-동네배움터 협업)
 - * 응원 문구와 방역키트를 이웃에게 전달하여, 지역주민간의 새로운 비대면 소통 기회 마련



온라인으로 청년들 삶에 더 가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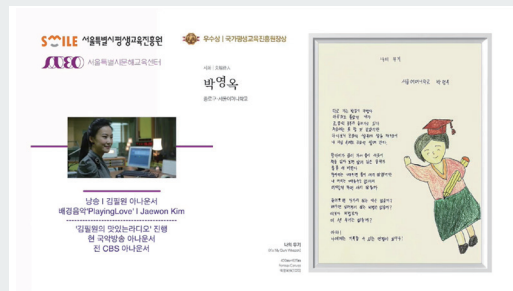
- 진로탐색 프로그램 : 워크북을 통한 스스로의 고민 시간과 줌(ZOOM)을 통한 또래의 온라인 고민 상담
- 신체 활력 프로그램 : 평소 운동 자세를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보내면 카카오톡으로 1:1 맞춤 운동 처방
- 인문 강연 프로그램 : 베스트셀러 작가와 직접 견해를 나누는 유튜브 생중계
-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정책 포럼 :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참여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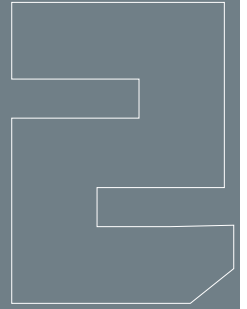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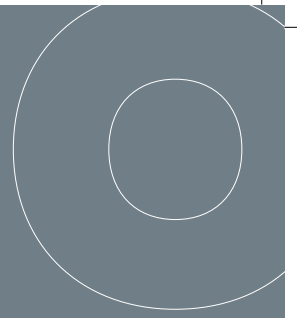
문해 학습자의 배움이 중단되지 않도록



- **디지털 문해교육 강화** : 문해학습자가 비대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기초부터 키오스크 사용 법까지 생활권 인근에서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 **문해학습 꾸러미 배포** :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밖으로 나오지 못한 학습자가 스스로 한글공부와 만들기 활동을 하는 자기주도 학습키트를 제작해 배포
- **문해교육 관계자 연수 비대면 운영** : 교원연수를 최초로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운영하고, 초등문해교육 교수법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기관별 자율연수를 지원
- **문해교육 시화전 온라인 개최** : 시화작품 이미지와 낭송 미디어를 결합하여 유튜브에 공개, 더 많은 시민이 생동감 있게 작품을 감상하고 문해교육의 의미를 되새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Annual Report

02

김
리

서울 평생교육의 내일을 위한 노력

2-1. 서울 평생학습 기반 마련

2-2. 서울 평생학습 문화 확산

삼 김 앞

서울 평생교육의
내일을 위한 노력

2-1

서울 평생학습 기반 마련

[칼럼] 시민 평생교육의 내일을 고민하는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연구

서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 평생학습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수집

서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칼럼

시민 평생교육의 내일을 고민하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민병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홍보팀장

평생교육은 그 내용과 범위를 다른 분야와 경계 짓기가 매우 어렵다. 평생교육법에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평생교육을 정의하고 있지만, 평생교육의 범위는 그 이상이라는 주장이 많다. 평생교육을 전 생애에 걸친 교육활동 전체로 본다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므로 학교 교육과 평생교육의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조직적인 무형식의 학습 또한 평생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에서 QR코드로 체크인하는 것이 도입되었을 때, QR체크인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 모든 사회적 활동에서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교육활동, 즉 평생교육을 제하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시 내 평생교육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다른 영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시민들이 배움을 향유하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드려야 할지 항상 고민을 거듭한다. 고민을 통해 정한 1순위가 가난과 전쟁으로 배움의 때를 놓친 분들에 한정된 ‘문해교육’일 수도 있고, 배움이 개개인의 즐거움에 멈추지 않고 지역과 공동체를 바꾸는 힘이 되기 위한 ‘시민교육’일 수도 있다. ‘모두의학교’처럼 시민 스스로 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하고 자기주도성을 강화할 수도 있고, ‘시민대학’처럼 대학 수준의 인문학 강좌를 누구나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시민의 복지를 높이는 공공정책의 한 영역인 평생교육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먼 미래를 예



상하고, 부족한 주변부를 찾으며, 변화를 준비해 가는 작업은 누가 해야 한다.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다. 서울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진흥원의 사업 영역 중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연구·개발이다. 평생교육 정책 연구 및 개발은 시민의 배움을 보다 풍족하게 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만드는 작업이다.

정책 개발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서울시 평생교육의 현재를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로, 진흥원은 설립 이후 평생교육 공급·수요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시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현황과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수요 측면에서는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참여와 요구에 대해 격년마다 번갈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는 새로운 평생교육 사업 운영이나 시설을 구축하는데 활용한다.

지난 5년간 진흥원은 더 좋은 평생교육 인프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정책적 고민에서 나온 작품들이 모두의학교, 시민대학(본부, 동남권 캠퍼스), 동네배움터다. 모두의학교는 폐교된 중학교 건물을 시설의 이용자가 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리모델링 하였다. 시민대학은 그동안 서울에서 운영해 온 사업을 이관받으면서, 독일과 일본의 우수 사례를 탐구하여 7개 학과체계와 시민학위제 등의 학사제도를 새로이 구성하였다. 집 근처에서 슬리퍼 차림으로 학습할 곳에 닿을 수 있도록 구축한 것이 ‘동네배움터’였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에만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 한계가 있고, 학습에서 소외된 직장인이나 N잡러, 인디워커들이 많은 도심이나 강남권에 그들에 맞춘 새로운 평생교육 인프라로 거듭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평생학습관, 도서관, 복지관, 50플러스센터, 여성 시설 등은 일반 학교 외 성인들이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들을 결합해 복합적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인프라 또한 먼 미래에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시민들이 삶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만드는 공간을 보다 더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과 기초 지자체 등 다른 분야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차별화 전략, 틈새를 찾는 노력이다. 모두의 학교는 시민이 배움의 설계자이자 주체가 되어, 자신이 필요한 학습을 다른 시민과 나누는 모델을 만들었다. 시민에게 지난 삶을 반추하고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것은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문해학습자에게는 글을 쓰고 셈할 수 있는 기초문해 외에도, 생활에 필수적인 디지털, 교통, 금융 등 다양한 생활문해 교육 콘텐츠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장애를 가진 시민들도 평생학습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제조업의 자동화·비숙련화는 시민들의 직업능력을 계발하고 전직을 지원할 필요를 높였다. 공공영역에서 시민들의 평생직업교육을 돕기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늘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또한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평생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은 아니지만, 평생교육의 내일을 만드는 과정이기에 이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어느 광고 문구처럼 우리의 일을 소개하며 글을 줄인다. ‘저희는 항상 시민의 배움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내일을 드리고자 고민합니다’ **END**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연구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 단위에서 서울시 내 유일무이한 평생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의 싱크탱크로서, 국내·외의 동향자료를 수집하고 정책 사업에 대한 기초연구를 추진하는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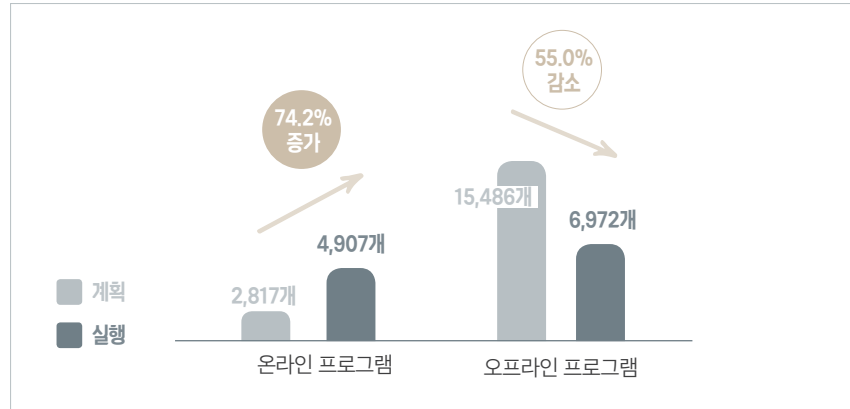
2020년에는 정책 동향 파악 및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정책사업기획단을 운영하고,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동향 리포트를 제작했습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포럼도 개최해, 평생교육 관계자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고자 했습니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관내 평생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선 7기 공약인 서울시 인생학교에 대한 운영모델 개발과 시범운영 연구도 수행했습니다. 문해교육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문해학습자들이 서울시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자 서울형 생활문해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민 전체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싱크탱크로서, 국내·외 동향자료 수집 및 정책 기초연구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정책 수립을 지원

- 사업내용**
- ①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 조사목적 : 서울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 구축해, 평생교육 서비스 공급 지형의 체계적 분석 및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 지원
 - 조사기간 : 2020년 6월~12월
 - 대상기관

기타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문화예술체육시설, 복지관, 여성관련시설, 가족관련시설, 청소년시설, 동자치회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등
평생교육법 상 평생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교육청/자치구 평생학습관

- 조사영역 : 기관 현황, 운영 프로그램, 학습자 수 등
- 조사결과 : 관내 688개 평생교육기관 대상 조사 완료
코로나 이후, 온라인 프로그램은 75%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55% 감소



② 서울시 인생학교에 대한 운영모델 개발과 시범운영 연구

- 연구목적 : 전환기 시민의 삶과 인생 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 정책 개발
- 연구기간 : 2020년 6~12월 / 연구책임 : 이상섭 교수(동덕여대)
- 연구내용 : 인생학교 유사사례 분석, 운영모델 개발, 시민대상 시범 운영

③ 서울형 생활문해 콘텐츠 개발 및 연수 운영

- 사업목적 : 서울생활에 요구되는 지식을 교육대상에 맞게 생활문해 콘텐츠로 제작
- 사업기간 : 2020년 7~11월
- 사업내용 : 서울형 문해교육 영상 콘텐츠 및 워크북 3종 개발(대중교통, 문화생활, 환경보호), 문해교육 관계자 대상 콘텐츠 활용 연수 1회 운영

④ 2020년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포럼 개최

- 주제 : 서울 평생교육 정책포럼@질문 있어요
- 일시 : 2020.10.21.(수) 15~17시 / 방식 : 진흥원 유튜브 중계

구분	내용	맡은 이
오프닝 스피치	Untact 시대, 의미에 Contact하는 평생교육패러다임의 전환	유영만 교수 (한양대)
이슈 제안	위드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대안 찾기	강대중 교수 (서울대)
솔루션 패널 발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관점의 평생교육 활성화 콘텐츠	김홍탁 CPO (쏘셜공작소)
지정토론	위드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와 기관·단체간의 협력	이재주 팀장 (마포평생학습관)
랜선패널	김경미 평생교육사(구로구), 신연주 강사(마포평생학습관), 원지윤 겸임교수(명지전문대), 이선희 위원(서울 평생교육 청년위원회), 이종미 강사(마음라이프 연구소), 이주열 초빙교수(뉴욕주립대 한국캠퍼스)	

⑤ 2020년 진흥원 정책사업기획단 운영

- 주제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 평생교육

연번	성명	주요경력	주제
1	김정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 전문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관계자 필요역량 변화와 전문성 강화 방안
2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유연화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방안
3	윤창국	숙명여대 교수	지역사회 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4	이지혜	한림대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해교육 지원방안 (서울시-자치구를 중심으로)
5	정민승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서울시 평생교육 발전방향
6	정병노	휴넷 개발팀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체계적 평생학습 기회 제공

사업성과

- ✓ 2020년 진흥원 정책사업기획단 운영
- ✓ 2020년 서울 평생교육 정책포럼 개최
- ✓ 2020년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실시(688개 기관 대상 조사)
- ✓ 서울시 인생학교 운영모델 개발 및 시범운영 연구 1식
- ✓ 서울형 생활문해 콘텐츠 3종 개발(대중교통, 문화생활, 환경보호)

차별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시에 필요한 정책 연구개발

코로나로 인한 변화와 혼란을 되돌아보고 미래에 필요한 새로운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하는 정책사업기획단을 운영하고,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변화에 대한 조사 실시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격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후 관내 기관들의 프로그램 운영형태나 온라인 프로그램 개설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기초 연구 실시

서울시민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생활문화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시민의 삶과 인생 재설계를 돕기 위한 인생학교 운영방안 연구 등을 실시했습니다.

실무자 소회

[정책홍보팀 민병철]

미증유의 코로나 상황을 맞아 평생교육과 진흥원 식구들도 많은 혼란과 번뇌를 겪었을 것입니다. 서울 평생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입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삶과 인생 재설계를 위한 평생교육적 대안을 고민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인생 고민은 무엇이고, 새롭게 꿈꾸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저 스스로 내 인생을 반추할 기회가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심 욕심이 난 연구였습니다. 실제 운영으로 연결된다면, 보다 많은 시민에게 일종의 ‘갭이어’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교육센터가 지정되면서, 서울의 문해학습자 분들을 위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문해 학습자가 참고할 지하철 안내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듣고, 서울형 생활문해 콘텐츠 제작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콘텐츠가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자신 있게 가실 곳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돕게 된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서울 평생교육의 대안을 찾고자, 정책사업기획단과 정책 포럼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평생교육도 강화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시민들을 위해 직업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져 가는 세대 간, 남녀 간의 갈등도 평생교육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에 한 발짝씩 다가갈 여지를 만들 수 있어서, 담당자로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지역 평생교육 관계자 및 서울시 유관기관들과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사업의 협력적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는 다양한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긴밀한 연계·협력 체제 구축과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단체 대상 기관별 요구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사업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울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과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기관운영 전략,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개요

서울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 **사업대상** 서울시-진흥원-자치구 관계자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 **사업기간** 2020년 4월~12월
- **사업목적**
 - 서울지역 평생교육 관계자 간 평생교육 정책·사업 관련 정보 공유
 - 다양한 영역·분야별 평생교육 이슈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평생교육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서울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 **사업대상** 서울시 소재 자치구 및 비영리 평생교육기관·단체
- **사업기간** 2020년 4월~12월
- **사업목적**
 - 지역의 실태 진단 및 성과 분석, 개선사항 도출 및 발전 방향 제시를 통한 평생교육 활성화
 - 지역 현황에 기초한 과제 발굴 및 사업 개발 유도로 지역 및 기관의 균형적·지속적 발전 도모



추진경과

서울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①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개최(총 2회)

- 2020년 서울시·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및 자치구 주요 사업 공유 및 협력사항 논의
-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구분	일시	주요 내용
1	06.17.(수) 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관련 대응현황 및 향후 계획 공유 - 2020년 하반기 주요 사업 추진 계획 공유 및 협력사항 논의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운영사업 의견 수렴
	06.19.(금) 10:00~12:00	
	06.24.(수) 15:00~17:00	
	06.25.(목) 15:00~17:00	
2	11.25.(수) 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서울시·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및 자치구별 추진 사업 공유 - 서울시·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자치구 협조사항 안내 및 의견 수렴

② 영역별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총 4회)

가.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크 협의회(2회)

- 지역 평생학습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추진 방향 및 성과관리지표 개선 방향 논의, 포스트 코로나 관련 온라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방안 논의

나.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협의회(1회)

- 중간지원조직 간-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역량 강화 교육 및 협력 방향 모색(비대면 시대 시민의 온라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 공유 및 관련 이슈 논의)

다.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1회)

- 민·관·학계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제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장애인 평생교육 대응방향 논의

구분	일시/기간	주요 내용 및 안건
지역 평생학습 협력 체계 구축 네트워크	06.10.(수) 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평생학습 사업(동네배움터 운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추진방향 - 2020년 동네배움터 사업 평가 및 2021년 사업 방향 - 포스트 코로나 관련 동네배움터 온라인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방안 논의
	11.16.(월) 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평생학습 사업(동네배움터) 성과관리지표(정량·정성평가) 개선 논의 - 지역 평생학습 사업 온라인 콘텐츠 평가방안 논의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08.20.(목) 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대면 시대 시민의 온라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홍보 전략 공유 및 관련 이슈 논의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11.27.(금) ~ 12.4.(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현황 공유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과제 논의 - 포스트코로나 시대 장애인 평생교육 대응방향 논의

서울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 통합컨설팅 : 지역·기관의 평생교육 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 추후컨설팅 : 2019년 평생교육 컨설팅을 통한 변화/추진과제 점검을 위한 컨설팅

구분	대상	컨설팅 주제
통합 컨설팅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운영전략 수립
	신내종합사회복지관	평생교육 사업의 브랜드화 전략 수립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발달장애인 중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 전략 구축
	중구청	협치 기반의 학습정보 플랫폼 운영을 위한 중구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방안
	중랑구청	평생학습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자원 네트워크 재구조화
추후 컨설팅	강남구청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재설계
	관악구청	관악구 평생학습도시 재도약을 위한 방향 설정
	노원평생학습관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교육청 소속 평생학습관으로서 역할 재정립
	송파구청	열린 배움을 지원하는 송파 평생학습 플랫폼 구축 (2단계)
	서대문구청	지역단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

사업성과

✓ 서울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1.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 총 2회 개최, 65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권역별 소규모(오프라인) 및 비대면(온라인) 협의회 운영

2. 영역별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 : 총 4회 개최, 49명

- 지역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네트워크 협의회 : 2회, 22명
-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 1회, 20명
-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 1회, 7명

✓ 서울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1.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관 특성 및 컨설팅 주제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5개 기관 지원

-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스템 재구조화,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기관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통해 평생교육 사업의 브랜드화 전략 수립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신내종합사회복지관)
-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진단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해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전략 기반 마련(신당종합사회복지관)
- 공공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지향점 재설정 및 평생학습 전담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 및 성과관리 방안 마련(중구청)
- 지역 학습자원 분석, 추진 전략 수립, 유관기관 요구조사 및 특성화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관 중심의 중랑구 평생학습 체계 구축(중랑구청)

2. 추후컨설팅을 통한 변화 확인 및 새로운 과제 점검

- 2019년 컨설팅 지원 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로서 1:1 방문 컨설팅을 통해 컨설팅 결과 활용도 점검 및 새로운 이슈에 대한 기관별 심도 있는 컨설팅 기회 제공
-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기반 마련(강남구청)
- 2020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발전계획 추진과제별 성과목표와 연도별 평가지표 수립(관악구청)
- 평생학습 제공을 위한 학습관 리모델링 계획 수립(노원평생학습관)
- 송파구 전체를 확장하는 교육모델 '송파쌤' 개발 진행 및 담당 조직 (평생교육팀→스마트평생교육팀) 확장(송파구청)
- 시민대학 프로그램 추진 점검을 통한 서대문구 시민교육 추진 기반 마련(서대문구청)



차별성

서울지역 평생교육 관계자 간 정기적 협의회

소규모 오프라인 및 비대면(온라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도 네트워크를 유지하였으며, 다양한 영역별 네트워크 협의회를 나누어 운영하여 영역 맞춤형 사업 방향 및 과제 논의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단체 사업 역량 강화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대상을 기존 자치구 및 비영리 평생교육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단체로 확대하여 사업 역량 강화 기회 제공

평생교육 기관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질적 관리 강화

현장 요구에 따른 선정기관 워크숍, 현장 모니터링, 추후컨설팅, 만족도 조사 실시

실무자 소회

[사업팀 이선영]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사항이 기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되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속적인 컨설팅 요구에 맞추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단체 대상의 컨설팅 ‘2유형’을 처음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의 평생학습 추진 기반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올해 <서울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과 <서울시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에서는 코로나 대응,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 사업 브랜드화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지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분들과 고민을 나누고 더불어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을 보며 본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컨설팅 사업이 알차고 의미 있었습니다. 각 컨설턴트들의 조언이 매우 유익하였고, 특히 이번 컨설팅에 선정된 다른 기관의 실무자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중랑구 자치구 담당자]

추후컨설팅을 지원해 주셔서 학습관 운영 방향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 변화에 따른 현재 사업의 홍보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셔서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원평생학습관 담당자]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의 결과가 실제 사업, 정책에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적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 지난 2019년 컨설팅 결과로 도출된 내용이 얼마나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는 컨설팅이었습니다. 추후컨설팅을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송파구청 자치구 담당자]

서울 평생학습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수집

서울 평생학습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수집 사업은 서울의 다양한 평생교육 현장 기록에 대한 확산 필요에 따라,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기록·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보전하여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거대도시 서울의 성장과 발전에 역사적 가치와 기여도가 있는 평생교육 기록물을 발굴·수집하기 위해 관내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성화 기록물 공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지식 및 정보의 공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민학습 온라인 아카이브를 기획, 전시하여 공유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민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서울시민의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평생학습에 대한 연구·기록·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축적·보전, 서울기록원의 온라인 전시를 통해 평생교육 기록 시민 공유

- 사업내용**
- ① **서울 평생학습 기록물 발굴·수집**
 - 서울 평생학습 기록물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협의회 운영
 - 평생학습 특성화 기록물 공모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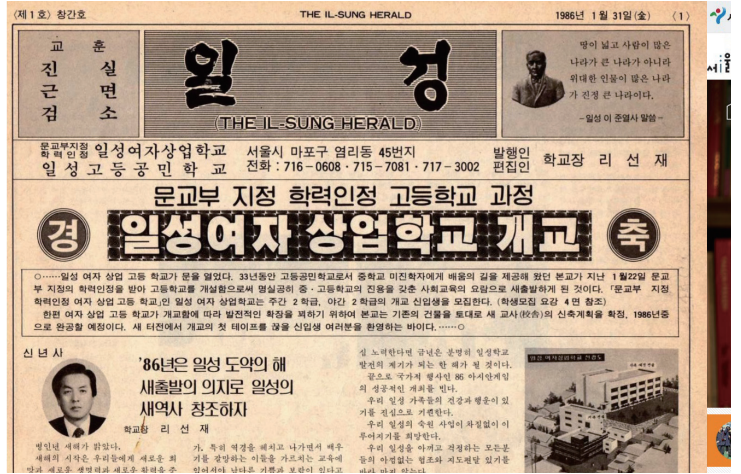
연번	기관명	주제
1	미루	일상 속 평생학습, 티끌모아 기록전
2	색동어머니회	인성교육을 위한 이야기 전달 교육 방법

- ② **서울시민 평생학습 기획 아카이브 전시**
 - 서울기록원을 통한 온라인 평생학습 기획 아카이브 전시

구분	1차 전시	2차 전시
전시명	삶	앓
전시주제	화·노·애·락	나, 이웃, 사회 그리고 세계
링크	https://archives.seoul.go.kr/contents/smilearchive1	https://archives.seoul.go.kr/contents/smilearchive2
전시기간	2020.09.~계속	2020.10.~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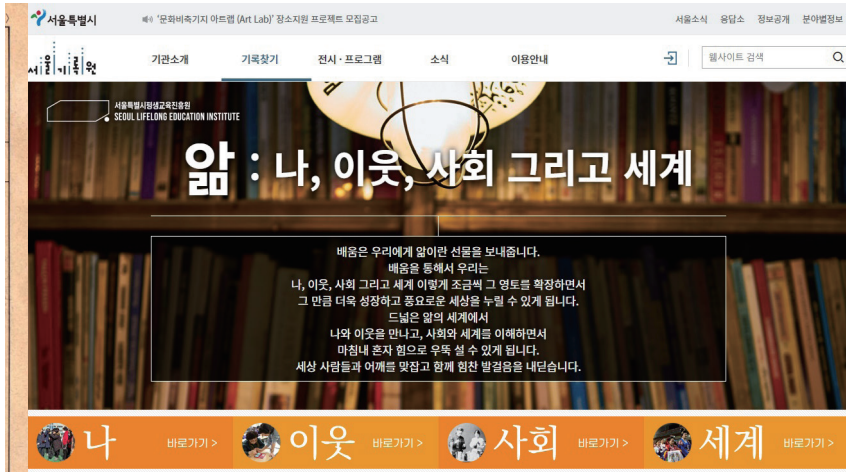
➔ 평생학습 온라인 전시



실무자 소회 [정책홍보팀 민병철]

기
리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잇을 것인지” : 아카이빙이라는 단어가 어렵고 막막해 시작하지 못했던 관내 평생교육기관이 진흥원의 아카이빙 지원 사업을 통해 선별, 기록 등 기관별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기록을 남겨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평생학습 아카이빙이 과거의 기록들을 보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재 생산하고 있는 기록을 선별하여 미래로 전승하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알고 그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업재능 경제교실

Y의날 여성과 교육

수집연도	2018년	수집연도	2018년
제공처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제공처	한국YWCA
자료출처	행사사진	자료출처	행사사진
자료연도	2010년	자료연도	미상



역동제조 실습

마포평생학습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집연도	2016년	수집연도	2017년
제공처	서울YMCA	제공처	마포평생학습관(공모)
자료출처	행사사진	자료출처	행사사진

➡ 2차 전시 '읽'

참여자의 한마디

아카이브 기록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평생교육 활동을 엮어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평생교육사로서 이런 아카이브를 담당하는 일을 계속 진행해보고 싶다.

[사단법인 미루 평생교육사 이정임]

이번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색동어머니회가 즐겁고 행복한 평생교육을 진행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의 활동을 더 발전시키고 체계를 잡아가는 특별한 계기로 삼고 싶다.

[색동어머니회 연구원 이연순]

서울 평생교육 관계자 전문성 강화

광역 단위 평생교육진흥원으로써,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4호에 근거해 관내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2015년 진흥원 설립 이후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대상자별 연수, 계속성 있는 교육 운영 요구에 따라 평생교육 관계자의 직급과 경력에 따른 맞춤형 평생교육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평생교육 현장에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평생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요구가 많아, 이를 중심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다시 기획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 서울시 관내 평생교육 관계자(평생교육사, 공무원, 활동가 등)
●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 사업목적	서울지역 평생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전문역량 강화시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 도모



사업내용 및 성과

- ❶ 포스트 코로나 시대, 평생교육 현장의 관계자가 온라인 비대면 기반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역량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ZOOM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 사용법, 디지털 상에서의 소통, e-learning, 디지털 퍼실리테이션 등에 대해 2020년 연수에서 다루었습니다. 연수 기획과 운영은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협업해 추진하였습니다.
- ❷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장애인과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장애인 복지 현장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습니다.
- ❸ 연말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비대면 온라인 평생교육 사례와 노하우들이 축적되었습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협력해, 전국의 비대면 온라인 평생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내 평생교육 관계자들이 향후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❹ 총 8회차로 운영된 ‘2020년 서울시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였고, 진흥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하였습니다.

연번	일자	주제	참여자 (동시접속자)
1	08.26.(수)	좀 앞에 고군분투하는 그대를 위하여	143
2	09.14.(월)	협업하는 ‘일잘러’의 완벽한 소통법	57
3	09.21.(월)	디지털 미디어 소통 역량	42
4	09.28.(월)	이러닝이 실패하는 이유	50
5	10.13.(화)	바로 써먹는 디지털 퍼실리테이션 스킬 1 디지털 환경, 문제는 연출	81
6	10.15.(목)	바로 써먹는 디지털 퍼실리테이션 스킬 2 직접 해보는 온라인 회의	81
7	10.19.(월)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다	52
8	11.19.(목)	언택트 시대, 학습권 사수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	296
계			802

차별성

실시간 온라인 연수를 안정적으로 운영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연수 동영상 제작·송출함으로써, 현장 관계자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현장감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외부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질 높은 연수 운영

한국평생교육사협회와 비대면 온라인 평생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해 운영하였습니다.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와 평생교육 관계자 대상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였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연계하여, 전국의 비대면 온라인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실무자 소회

[정책홍보팀 민병철]



코로나로 모든 게 멈췄습니다. 매년 일회성 연수를 진행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연수를 진행해 보자 다짐해 왔습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 해가 2020년이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평생교육사협회와 연이 닿아, 연차와 경험이 쌓인 평생교육사 분들을 위해 어떤 새로운 연수주제가 필요할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모든 오프라인 활동이 멈춰버렸습니다.

온라인 환경은 모두가 익숙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평생교육 현장에서는 다들 시설 방역에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에 대해 연수를 진행하자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다시 평생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연수방법부터 내용까지 다시 기획해야 했지만, 모두가 그 수고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마지막 연수에서 전국의 온라인 평생교육 노하우를 나눌 수 있어서 무엇보다 뜻깊었습니다. 온라인이 미지의 남의 공간이 아닌, 평생학습 가족들의 활동처로 만드는데 작은 기여를 했다는데 뿌듯함을 느낍니다.

Free WiFi 2020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연수

중요한 것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대를 위해

2020. 8. 26. 수 오후 2:00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LIVE**
에피소드 문제를 해결하세요!
<https://youtu.be/jCOiibGEfNw>



삼 김 앞

서울 평생교육의
내일을 위한 노력

2-2

서울 평생학습 문화 확산

[칼럼] 낯선 듯, 그러나 어쩌면 당신의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일상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인문학 포럼 개최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뉴미디어 채널 운영 개선

칼럼

낯선 듯, 그러나 어찌면 당신의 생활에 스며들어 있는 일상

신영웅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상임전문위원



얼마 전 정책홍보팀 신입 직원으로부터 평생교육 문화 확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의 칼럼 요청이 왔다. 평소 패기 넘치는 그는 평생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통감한다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저변 확대를 위해 보다 젊은 연령대의 시민들에게도 우리의 메시지가 닿았으면 했다.

그때는 그저 좋은 취지다 싶어서 일단 덮어두고 응했다. 그리고 며칠 뒤 본격적으로 원고를 쓰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모두 가져다가 글을 써 내려갔다. 그러나 완성된 원고를 다시 읽는데 개운치 않은 뒷맛을 느꼈다. 최근 평생교육의 트렌드를 반영해 ‘맞는 말’과 ‘좋은 말’을 잘 버무린 글이 완성됐는데, 왜 글에서는 아무 맛도 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은 해당 기획의 취지를 보는 순간 이내 해결됐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번 주제는 ‘평생교육 문화 확산의 중요성’이었다. 그렇다면 평생교육 전문기관인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이하 서평원)에서 이러한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생교육 문화가 시민들에게 보다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동시에 우리의 활동에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졌으면 하는 의도일 것이다. 여기서 나는 유레카를 외쳤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영역에서 평생교육 관련 일을 하는 실무자들의 공통된 고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역시 작년에 서평원의 리브랜딩을 진행하며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를 알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어 다양한 기획을 추진했었다. 그러면서 늘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사람들한테 평생교육이 아직 낯선 것 같아”였다.

그렇다면 이 말은 과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정답부터 공개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문장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내용이다. 우선 ‘맞는 절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이와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다.

작년 리브랜딩을 진행하면서 제휴를 위해 다양한 스타트업과 미팅을 진행했는데, 한 독서 모임 스타트업과의 미팅을 하는 도중에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 업체 관계자분과 지속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데 담당자분이 내게 질문을 던졌다.

“영웅님, 오늘 미팅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영웅님께서 어떻게 저희와 협업할 것을 생각하셨나요?”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변했다.

“평생교육 서비스를 민간에서 운영하시잖아요. 민간과 공공의 협업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그러자 담당자의 반응이 흥미로웠다. 자신들의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평생교육’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리란 생각을 전혀 못한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은 더 많은 외부인(?)을 만나면서 확신으로 변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민들이 평생교육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 서평원에서 하는 일들이 낯설거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느껴질 수밖에. 앞서 말한 ‘맞는 절반’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틀린 절반은 과연 무엇일까?

일단 내 주변을 한 번 둘러봤다. 전 직장 동료인 개발자 A는 퇴근하고 발레를 배우러 다닌다. 어릴 때 배우고 싶었는데 직장인이 되어서야 그 꿈을 이룬다고 좋아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기획자 B는 요즘 코딩을 배운다고 했다. 취미라기보다는 밥벌이를 위한 공부라며 자식을 낳으면 코딩부터 가르칠 거라 한다. 지인인 치과의사 C는 여가 시간에 혼자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이를 나누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독서 모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주니어 마케터 D는 회사에 사수가 없어서 일을 잘하기 위해 마케팅 클래스를 수강한다고 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E는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저자들의 북토크를 열심히 따라 다닌다고 했다. 책에서 느낀 감동의 여운을 느끼고, 궁금했던 지점을 알고 싶어서라고 했다. 취준생인 F는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유튜브에서 세바시와 같은 무료 콘텐츠를 통해서 지친 자신을 달래고 내일을 위한 동기부여로 활용한다고 했다.

이는 당신의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즘 우리의 모습이다. 어떤 이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또 어떤 이는 생존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각자의 이유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들이 평생교육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 이미 우리의 일상에는 평생교육이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어떠한가? 이래도 평생교육이 시민들에게 낯선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까? ‘틀린 절반’은 요즘 무수히 생겨나고 있는 평생교육 관련 스타트업이 증명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생존을 위해,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나눈다. 그것이 ‘학습’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뿐이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지금 평생교육 문화 확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각자의 필요성에 따라 이미 평생학습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입으로 “여러분~ 평생교육 문화의 확산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업무는 따로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시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보다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평생교육’에 대한 색안경을 벗기는 일부터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어쩌면 오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개념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한 개념 간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일 말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평생교육이란 단어를 떠올렸을 때 ‘왠지 나랑 상관없는 것’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민을 이어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오라고 손짓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도 있다. 시민들을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 말이다. 우리의 시혜적 태도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는 평생교육의 기본 철학과도 거리가 있다. 평생교육은 학습 자체도 중요하지만, 배움을 주고받는 주체 역시 유동적이며, 어제의 학습자가 오늘의 강습자가 될 수도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서로 배움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는 데 밑거름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ND**



평

이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서울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목적의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소재를 발굴하고 여러 채널을 활용해 서평원의 평생학습 정책·사업을 알리며 시민들과 소통합니다.

2020년에는 기관 리브랜딩에 따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전용 서체, 캐릭터 등 다양한 재료를 구축하고 새로운 채널을 발굴해 평생학습의 저변을 확대하는 소통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일반 시민
 -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 사업목적 서울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대중화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1 기관 브랜드 개편
 - 2 전용 서체 1종 개발 및 배포
 - 3 캠페인 영상광고 1종 제작
 - 4 평생교육 캐릭터 개발
 - 5 챗봇 앱 제휴 서비스 제공
 - 6 언론 보도
 - 7 캠페인 연계 사회공헌 활동

- 사업성과**
- ✓ 기관 브랜드 개편
 - 추진배경 : 평생교육 역할 확장 및 인식 개선, 기관·사업 인지도 제고
 - 추진방향 :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 다양한 연령대로의 이용자층 확대
 - 추진과제
 - 전문적이고 매력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재료 구축
 - 이용자층 확대 위한 협업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BI



메인타입



서브 타입: 세로형



서브 타입: 가로형

✓ 프로그램별 BI (일체형)



✓ 브랜드 핵심 가치 : 삶깊앓 (라이프롱런, Life Long Learn)

삶 (Life)	성장을 의미 “나는 누구일까?”	평생교육을 통해 우리는 각자 삶의 가치를 찾아나간다.
깊 (Long)	지속을 의미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나?”	평생교육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물음표를 던지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앓 (Learn)	상생을 의미 “우리는 서로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평생교육은 서로의 지혜와 지식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매개가 된다.

✓ 전용서체 1종 개발 및 배포

- 서평원 꺾꺾체(SLEI Gothic) : 한글 2,780자, 영문 52자, 기호/숫자 222자

서평원 꺾꺾체

SLEI Gothic TTF / SLEI Gothic OTF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파타하

ABCDEFGHIJKLMNOPQRSTUVWXYZ

!@#\$%^&*() 1234567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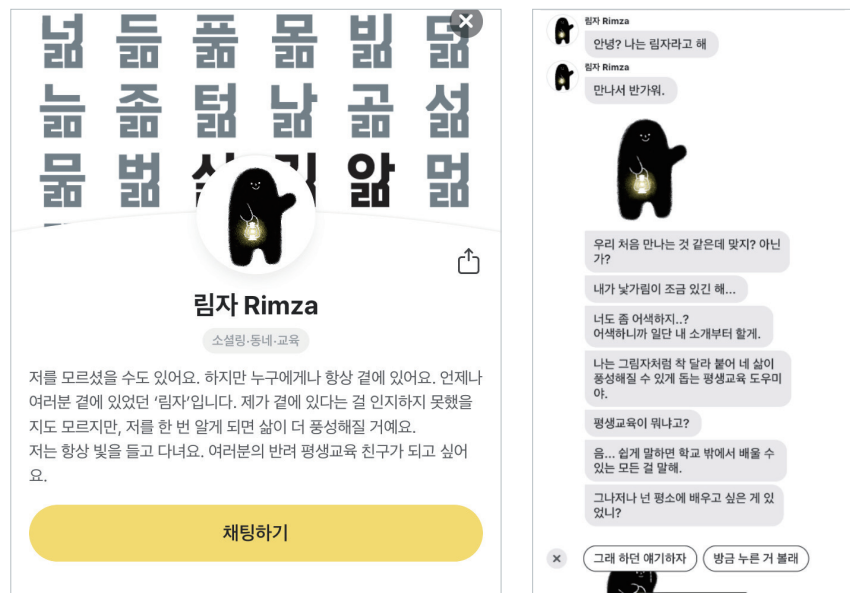
✓ 평생교육 안내자, '림자(RIMZA)' 캐릭터 개발

- 슬로건: 당신 곁에 늘, 림자(Always by your side, RIMZA)



✓ 챗봇 앱 <헬로우봇> 제휴 서비스 제공

- 시나리오 2종 : '동네배움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천, 습관 챌린지



- 러닝전도사 안정은 출연, 도전정신과 역동적 이미지 부각시키며 ‘평생교육=낯설게만 느껴졌던 것들과 가까워지는 기회’ 브랜드 메시지 전달
- 2020 한국광고대상 온라인마케팅부문 최우수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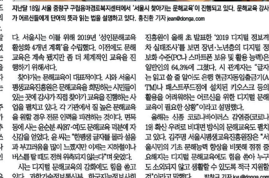


- 보도자료 배포 12회, 기획자료 3건, 516회 보도
- 지면광고 2회, 온라인 광고 2회

- 평생교육 메시지 및 이웃 돌봄 취지를 담은 ‘이웃키트’ 200개 제작
- 임직원들이 이웃키트를 활용해 주위 이웃과 나눔 및 소통활동 전개



키오스크?... 어르신 '디지털 문맹' 돕는다



차별성

낮설게만 느껴졌던 것들과 가까워지는 기회

2020년 서평원의 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낮설다'입니다. 평생교육은 기술, 직무교육을 넘어 약한 유대(weak tie)를 통한 휴식과 위로의 역할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소비되고 있지만, 평생교육의 영역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서평원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은 평생교육의 더 큰 가치를 담았습니다. 특히, 공공의 평생교육도 참 매력적이고 필요한 것임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젊은 크리에이터 그룹과의 콜라보레이션

2020년 서평원의 다양한 캠페인 활동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합니다. 전용 서체는 한글 디자인 및 폰트 기술 전문스타트업 '이도타입', 평생교육 캐릭터 림자는 인디워커 그룹 '오노(Ohno)'와의 작업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MZ세대에게 친숙한 챗봇 앱 헬로우봇을 운영하는 '띵스플로우'와 협업해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었고, 새로운 웹진은 소셜살롱 '문토'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서평원의 커뮤니케이션 재료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그룹과 소통하고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무자 소회

[정책홍보팀 성혜란]

기관의 성장과 평생교육의 수요 확대 등 대내외 변화에 대응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소재를 발굴하며 보람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재료 구축에 집중한 2020년의 성과는 앞으로 펼쳐갈 리브랜딩의 첫 단추입니다. 내부에서는 새로 정립한 가치를 더욱 내재화하고, 외부에서는 많은 시민이 의미 있는 브랜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자칫하면 딱딱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브랜딩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낼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지도록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멋진 결과물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도타입 이도희 대표]

인문학 포럼 개최

시민이 인문학에 더욱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며 인문학 소양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인문학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서울연구원과 함께 추진하는 <서울 도시인문학 대중화 사업> 중 하나로 강연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해 특집 '삶깊앓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 시민
 - 사업기간 2020년 9월 ~ 11월
 - 사업목적 인문학의 가치 재조명 및 시민의 인문학 소양을 고취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사업내용 ✓ 삶깊앓 강연회

✓ 주제 : '당신의 형용사는 무엇입니까?'

- 자신만의 형용사를 찾는 과정에 대한 강연자의 생각과 경험, 아이디어를 통해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연

✓ 회차별 강연 개요

회차	1차	2차	3차
녹화일시	09.24.(목) 19:00	10.29.(목) 19:00	11.16.(월) 19:00
녹화장소	KT체임버홀	문화비축기지	CBS스튜디오
강연 홍보 포스터			
진행방식	비대면 방식 : 줌(Zoom) 화상회의 및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		

✓ 회차별 주요 내용

1회

강연자	직책	주제
이나리	헤이조이스 대표	불안과 열등감을 이기고 계속 성장하려면
안정은	러닝전도사	'내가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지영	공간 크리에이터	우리집에서 내 인생까지, 신박한 정리 정돈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돈은 적게 벌어도 행복하고 의미있는 일을 선택한 이유
유병욱	TBWA CD, '평소의 발견' 저자	내 인생의 '벽'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2회

강연자	직책	주제
임현근	힐링페이퍼 해외사업총괄 디렉터	주도적으로 선택하면 10년이 달라집니다
최유나	이혼전문 변호사 인스타툰 '메리지 레드' 작가	이혼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소통의 기술
정재찬	시인, 한양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나이가 들면 사랑 대신 이것을 해야 합니다
정다운	MBC '구해줘! 홈즈' 방송작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최우선으로 따져야 할 것
폴 김	가수	그때 난 무슨 생각이었을까?

3회

강연자	직책	주제
나태주	트로트가수, 태권도선수	작은 성공에 기뻐하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유튜브 '아는 변호사' 크리에이터	나를 세우는 과정이 인생이다
백영선	인디펜던트 워커 플라잉웨일 대표	매일 다른 회사로 출근합니다
서메리	<회사 체질이 아니라는요> 저자, 작가, 번역가, 유튜브, 일러스트레이터	6개의 우물을 파다 보니 나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경화	디에디트 에디터	특별하지 않아도 특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1회 | 삶: 성장



안정은



유병욱



이나리



이일



이지영

2회 | 삶: 지속



임현근



정다운



정재찬



최유나



폴킴

3회 | 삶: 상생



나태주



록담



서메리



이지훈



하경화

사업성과

✓ 강연별 2종류 영상 제작(본 강연 영상, 요약 영상)

✓ 다양한 채널 통해 영상 배포

- 동영상 채널 :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 SNS :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BAND, 인스타그램

- 모바일 : 세바시 홈페이지, 팟캐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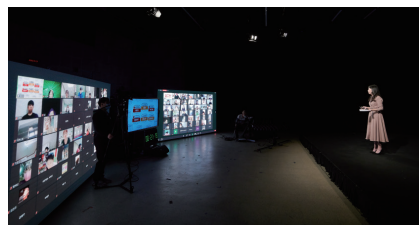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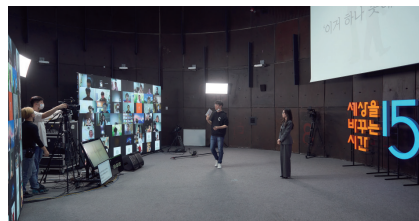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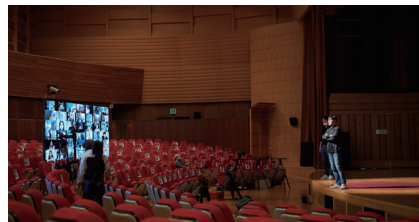
✓ 영상 총 조회수

	조회수 (전 채널)	도달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참여 (좋아요, 댓글, 공유하기)
1회	2,142,028	1,889,977	36,836
2회	3,944,026	2,680,805	75,127
3회	1,249,406	1,477,422	20,940

차별성

나만의 형용사를 찾는 과정에서 느끼는 인문학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로 한 사람을 잘 표현해주는 대유법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자신을 표현해주는 형용사 속에는 각자만의 인문학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문학은 대개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만의 형용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인문학을 즐기는 시간을 만들고자 삶깊앎 강연회를 기획했습니다.



연사를 직접 섭외하는 것부터 타인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하는 과정은 참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온라인 강연회로 열렸음에도 많은 사람이 랜선으로 연결돼 감동과 울림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전한 15가지 이야기는 여전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랑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일(정재찬 교수)’ 영상은 어느덧 유튜브 누적 조회수 100만뷰를 훌쩍 넘겼고, ‘이혼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소통의 기술’(최유나 이혼전문변호사, 94만뷰), ‘우리집에서 내 인생까지, 신박한 정리 정돈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이지영 공간 크리에이터, 52만뷰)도 세바시 인기 동영상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21년의 인문학 대중화 사업은 동네서점 공간을 통해 새롭게 펼쳐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인문학을 일상에서 더욱 편하고 즐겁게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 대신 이것을
해야 합니다 | 정재찬 '우리...

조회수 151만회 • 5개월 전



이혼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할
소통의 기술 | 최유나 이혼 ...

조회수 94만회 • 5개월 전

참여자의 한마디

서평원과 함께했던 '삶깊삶'은 나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깊'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한 번 살펴 주변의 소중함 또한 '삶'게 된 잊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러닝전도사 안정은]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서울 평생학습의 여러 모습들을 온·오프라인 매거진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에게 전달합니다. 수년간 서울 평생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은 서평원의 웹진 <다들>에서 더 나아가 우리 일상 곳곳에 스며든 평생교육을 담은 <라이프롱런>으로 새단장했습니다. 이외에 각종 기관 홍보물로 시민들에게 서평원의 평생학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일반 시민 및 전국 평생학습 관계자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서울 평생학습의 전문 정보 및 이슈 발굴·확산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

사업내용

- ①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 ② 커뮤니케이션 전략 자문회의 운영
- ③ 기관 홍보물 제작
- ④ 연차보고서 1종 발간

→ 2019 연차보고서



숫자로 보는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3,004 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114,348 명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참여율 50%

형식교육 1.8%

비형식교육 49.1%

평생교육 참여자 수

11,980,646 명

명예시민학위과정
제1회 명예시민학사

381 명

시민 학습 참여 역량강화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연구회 19개 발간, 149명 참여

시민대학 78명, 시민대학 24명
85% 지원

동네배움터 주민 주도의
학습 실천프로그램 257개 운영

청년인성생계학교 청년커뮤니티
15개 구성 및 지원

평생학습 기회 제공

	서울자유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동네배움터	청년성계학교
프로그램수	588 명	103 개	1,254 개	25 개
참여자수	23,890 명	2,419 명	13,307 명	1,573 개

차별성

<라이프롱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

올해 리브랜딩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웹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다들>은 업계에서 손꼽히는 퀄리티를 자랑하는 평생교육 전문 웹진입니다. 하지만, 평생교육이 아직 낮은 시민들에게 다가가려면 무언가 '비틀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라이프롱런>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서평원의 이야기보다도 사람들의 일상에서 묻어나는 평생학습의 모습과 그 가치를 발굴하는 콘텐츠로 채웠습니다. 콘텐츠 접근성을 한층 높인 새로운 형태의 뉴스레터도 발행했습니다.

<굿잡키트>, 삶의 여행자를 위한 안내서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죠. 저마다의 인생 여행을 응원하는 서평원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선물인 직장인 편 <굿잡키트>는 한 마디로 '성장하고 싶은 직장인'을 위한 도구입니다. 인사이트를 수집·기록하는 '기록 도구', 체계적이고 능률 있게 일하도록 돕는 '정리 도구', 적절한 순간 휴식을 즐길 줄 알고 자신을 잘 돌보도록 하는 '마음 도구'를 모았습니다.

실무자 사회

[정책홍보팀 성혜란]



새롭게 거듭나는 서평원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2020년입니다. 서평원의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면서 우리가 가진 좋은 프로그램을 담아낼 새 BI, 웹진, 홍보물들을 하나씩 세상에 내놓는 과정은 숨가쁘게 흘러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신나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아쉬운 것들도 눈에 밟힙니다. 2020년의 <라이프롱런>이 새로운 시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존 <다들>과의 간극이 컸던 만큼 앞으로는 더 폭넓게 다루려고 합니다. 평생교육의 인식개선과 확장성을 아우르는 매거진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시험대에 오를 때의 긴장감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 현업 실무자·전문가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 전략 자문위원 회의에서 나오는 촌철살인의 멘트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학교 밖의 교육에 관심 많은 시민으로서, 서평원의 일과 철학에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공공 기관의 브랜딩'이라는 흔치 않은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도 영광입니다. 방송, 교육, 뉴미디어,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점을 엿볼 수 있어서, 직업인으로서의 시야도 넓어지는 기회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 자문위원 전소영 마케터]

➔ <라이프롱런> 뉴스레터



➔ 웹진 <다들>



➔ 커뮤니케이션 전략 자문회의



뉴미디어 채널 운영 개선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서울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목적의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합니다.

하반기에 리브랜딩을 추진함에 따라 서평원의 브랜드 철학을 담은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신규 개설한 인스타그램 등 뉴미디어 채널과 연계해 리브랜딩 메시지를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소재를 적극적으로 전파했습니다.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생들이 기획하는 온라인 광고 캠페인도 운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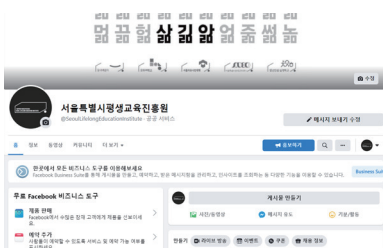
사업개요

- 사업대상 일반 시민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서울 평생학습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 및 대중화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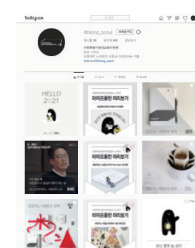
사업내용

- 1 브랜드 소개 페이지 구축
- 2 SNS를 통한 평생학습 정보 전파
- 3 네이버 광고 집행
- 4 언론사 온라인 배너 광고 집행
- 5 연세대 산학협력 통한 온라인 광고 캠페인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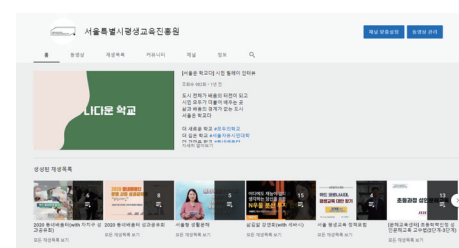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사업성과

✓ 브랜드 철학 및 평생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페이지 구축

- URL : smile.seoul.kr/magazine

- 페이지 구성

위치	삶 (/life)	깊 (/long)	앞 (/learn)
주제	[성장] 평생교육을 통해 우리는 각자 삶의 가치를 찾아나간다	[지속] 평생교육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물음표를 던지고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생] 평생교육은 서로의 지식과 지혜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매개가 된다
구성	진흥원 브랜드 철학 BI, 서체, 캐릭터 등 소개	매거진 <라이프롱런> 콘텐츠	진흥원 프로그램 연계 평생교육 콘텐츠(영상자료)
화면			

✓ SNS를 통한 평생학습 정보 전파

- 운영 채널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 온라인 광고 캠페인 운영, 시민 참여 이벤트 진행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네이버 광고 집행 : 브랜드 광고, 검색 광고

✓ 언론사 온라인 배너 광고 집행

- 서울시 언론협력사업 연계 뉴시스 배너광고 (2020.11.~12.)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2020년 2학기 <디지털마케팅> 연계 캠페인 운영

- 대학원생이 직접 광고를 기획하고 '어도비 프로그래머틱' 솔루션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모색 및 참신한 메시지 발굴

- 이미지배너광고 2종, 영상광고 2종 제작

➔ 네이버 브랜드 광고



→ 이미지배너 / 영상광고



차별성

수용자 중심의 참여 콘텐츠 전환

서울 평생학습 정보와 서평원 사업성과 등 공급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수용자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와 산학협력으로 서평원의 광고 타깃인 2030세대들이 광고 콘텐츠를 직접 제작함으로써, 수용자의 공감 효과를 높이는 메시지를 새롭게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브랜드 검색광고와 키워드 광고를 통해 메시지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실무자 소회

[정책홍보팀 성혜란]

서평원의 새로운 서체, 캐릭터, 굿잡키트 등을 보며 ‘예쁘다’ ‘기획 맛집이다’ ‘나도 갖고 싶다’는 등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평생교육 기관이 말하는 ‘배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는 직업교육 외 취미, 라이프스타일, 자존감 등 확장된 의미의 평생교육을 담은 답변을 얻으면서 우리의 취지가 전달된 것 같아 많이 뿌듯했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서평원을 힘나게 했던 시민들의 댓글을 공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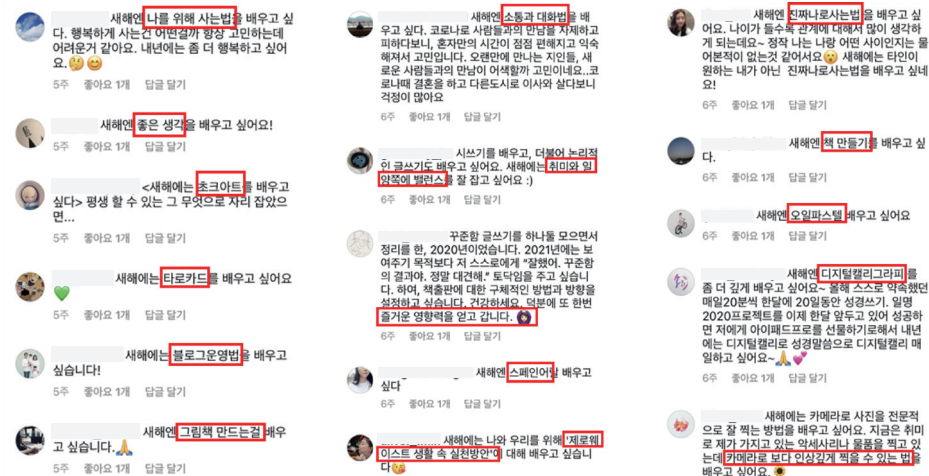
서체, 캐릭터, 굿즈 등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평원을 홍보하는 사례 (이벤트 후기, 블로그 포스트 등)



새해 이벤트 댓글 : 평생교육 기관이 말하는 '배움'에 대한 질문에 직업교육 외 취미, 라이프스타일, 자존감 등 확장된 의미의 평생교육을 담은 답변 얻을 수 있었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서울
평생

교육
진흥원

아
리

03

아 람

시민의 배움을 위한 만남

3-1. 서울자유시민대학

3-2. 모두의학교

3-3. 동네배움터

3-4. 청년인생설계학교

3-5. 문해교육센터

삼 김 압

서울 평생교육의
내일을 위한 노력

3-1

서울자유시민대학



[특별기획] 안녕하세요, 제1호 시민석사 최영아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권역별 학습장

대학연계 시민대학

민간연계 시민대학

명예시민학위제

서울자유시민대학 활성화 사업

디지털 시민교육

온라인 시민대학

유튜브 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탐방]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소개

특별기획

안녕하세요, 제1호 시민석사 최영아입니다.

최영아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석사



서울자유시민대학과의 첫 인연은 2016년 하반기에 시작되었다. 아마도 공부하려고 태어난 듯한(^)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된 이 배움터는 이후 지금까지 나의 일상 한 칸에 자리하여 앞으로 계속해서 내 삶의 소중한 지식 창고가 될 것 같다.

대학에서 경영학과 수학을 전공하면서도 내내 관심있었던 나의 인문학에 대한 호기심은 책을 찾아 읽거나 때론 청강을 시도하게도 했다. 졸업 후 사회생활에 밀려 나를 돌아볼 시간조차 뻘뻘 해지면서 맞이하게 된 오늘의 디지털 문명은 이전에 갖고 있던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한을 가속적으로 단축시킨다. 이러던 차에 시작한 서울자유시민대학은 나로 하여금 인문학 뿐 아니라 전 방위적인 영역으로의 관심과 공부를 유발시켰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와 정보통신 및 지구환경에 대한 지식 정보들을 전문가들의 식견과 함께 폭넓게 공부할 수 있어서 유익했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로 향하는 언덕길을 오르던 어느 날, 파릇한 풀꽃 나이 때의 좌충우돌하던 대학시절이 교차되면서 중년에 치솟은 이 향학열에 나 스스로도 놀라웠다. 인생이 일과 뜻과 사람으로만 점철되는게 아닌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당위에 고개 끄덕여지던 차에 만나게 된 서울자유시민대학!

인문학, 시민학, 문화예술학, 생활환경학, 서울학, 사회경제학, 미래학 등을 통해 매 학기 각각의 주제로 만나본 인류지성사에 빛나는 정신들. 젊어 생기 투명했던 때 읽고 배운 지식들도 있었건만 그 동서고금의 보석같은 선진들의 방대한 지식 및 지혜들을 일과 병행하며 다시 읽어내고 소화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공부에 집중해서 강의시간 몰입하고자 했던 노력만큼은 내게 다시 삶의 지혜로 돌아오게 해주었다.

단편으로 알고 있던 지식의 구슬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하나의 목걸이가 되어가는 과정은 내겐 실로 내적 성장의 과정이다. 이 공부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늘 고민해온, 흔들리는 갈대로서의 나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했다. 또한,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을 이웃의 삶도 생각해볼 수 있게 했으며, 그리하여 인간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진리 추구의 정신을 가져볼 수 있게 했다.

인문학은 사람이 살아가는 결을 느끼는 것이라 한다. 그동안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 오래전 성현들의 생각들을 공부하면서, 때와 장소를 초월해 사람 사이 절실한 사고(정신)의 만남도 역시나 '영혼의 진동' 같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 것을 깨닫는다. 진동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그냥 두면 언젠가는 소멸된다. 자신을 가꾸고 다스려야 함은 에너지를 계속 생산하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 공부해가는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 한 뼘 정도는 더 자랐을 나의 정신적 키만큼이나 선한 눈빛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운영을 위해 애써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린다. 그리고 1기 시민석사학위 논문 지도에 애써주신 여러 교수님들, 국장님, 그리고 논문 준비로 수고 많으셨던 여러 학우 선생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즐겨 공여 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또한 감사를 드린다.

이번 석사학위논문은 각자의 쉽지않은 환경에서 함께 달려온 많은 선생님들과의 공부의 결실이기에 더욱 값지다. 이로써 생의 소중한 때에 알게 된 지식과 앞으로 알게 될 지식을 살아있게 할 내부의 불씨를 지펴 올리게 되었다. 내가 그간 배우며 익힌 여러 지성(知聖)들과의 만남은, 일년을 훨씬 넘게 팬데믹이 앗아간 계절의 낭만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나에게겐 정녕, 땀속 깊이 사무치는 낭만이다. **END**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본부, 시민연구회)

본부캠퍼스에서는 서울시민의 시민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인문, 예술,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7개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과정은 시대적 주요 트렌드를 반영한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서울시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시민연구회는 서울시민 혹은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자들이 모임을 결성하여 자발적으로 심화학습, 사회참여활동 또는 시민연구활동 등 공동의 학습과제를 추진·달성하는 모임입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일반 시민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학습공동체를 지원

사업내용

- ① 시민의 요구와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한 '7개 학과과정' 운영
 - 인문학·시민학·서울학·사회경제학·문화예술학·생활환경학·미래학 7개 학과과정 운영
 - 현장답사 및 실습과정, 토론 등 다양한 교육방법의 강의운영으로 학습효과 극대화
 - 국방부 통일교육원, 용산문화원 등 전문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 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다양한 방법의 비대면 교육과정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오프라인 강자 유동적 변경운영
 - 유튜브, 줌(Zoo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 비대면 매체 특성을 반영한 강좌운영
- ③ 유희 시간대 본부 학습공간 대관을 통한 평생학습 참여 촉진
 - 교육목적의 행사 및 기관, 단체 공간 대관
- ④ 시민들의 자발적인 심화학습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시민연구회'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자를 포함한 총 18개 시민연구회 모집 및 운영
 - 연구회별 시민연구회 활동비, 학습지도 강사비, 활동공간(동아리실) 지원
 - 오리엔테이션, 활성화 워크숍, 활동공유회 등을 통한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형성

사업성과

- ✓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교육방법 구축
- ✓ 학과별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정규강좌 61개 운영, 참여 학습자 2,394명
- ✓ 참여 학습자 만족도 84%(만족, 매우만족)
- ✓ 통일교육원과 용산문화원과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특화콘텐츠 개발·운영
- ✓ 평화·통일 교육협력을 위한 MOU 체결('20.12.2)을 통해 지속적 협력연계 방안 모색
- ✓ 본부 학습공간 지원 : 28개 기관 및 단체, 707명 이용
- ✓ 총 18개 시민연구회 모집 및 운영, 연구회 회원 164명 참여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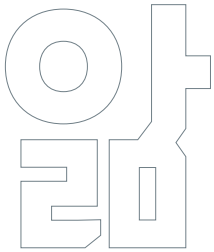
명예시민학위로 연계할 수 있는 차별화된 7개 학과과정

- 서울자유시민대학만의 고유한 7개 학과과정을 운영하여 명예시민학사, 명예시민석사학위 제로 연계, 관심분야에 대해 연속성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계속 학습경로 설정
- With 코로나 시대에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 운영을 통해 안전한 강의환경을 제공하고, 공간적 제약 없이 원하는 사람이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학습·네트워킹 할 수 있는 랜선 시민연구회 형식으로 기존의 오프라인 시민연구회와 함께 서울시민의 지속적 평생학습을 지원

실무자 소회

[시민대학운영팀 김보영, 전세환, 김수민]



익숙한 것과 이별, 새로운 도전과의 만남이 있었던 2020년

코로나19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의 위기 속에 시민대학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대면 강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기약 없이 문을 닫고 강의운영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고, 줌(Zoom)으로 강의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비대면 강의를 운영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에 적용할 적합한 온라인 플랫폼을 찾았고 운영 매뉴얼 제작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규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가 이러한 변화를 잘 따라올까 염려도 되었지만 걱정과 달리 새로운 학습환경에 잘 적응하여 배움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이 기억에 남고 보람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학습자, 서울자유시민대학, 그리고 직원들이 함께 성장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연구회 운영

올해 초 코로나의 발생과 전세계적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은 가속화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통한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연구회 역시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기존의 오프라인 형태의 평생학습과 시민연구회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학습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콕생활로 지쳐가는 학습자들에게 함께 공부하는 작은 기쁨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는데, 배움에 진지하고 열정적인 학습자들의 모습에 도리어 담당자인 제가 감동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상하반기에 걸친 안정된 운영과, 우수 연구회에 대한 지속적 활동 지원을 통해 시민연구회가 개인의 역량강화와 성장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코로나블루로 모두들 불안하고 외출도 못 하는 시기에 좋은 강의로 새로운 지식과 흥미와 경험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울과 지방도시의 관계 산줄기, 강줄기를 따라서' 수강생]

모든 것이 막혀있는 답답함과 우울한 마음을 시민대학과 공부를 하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베토벤의 내면 : 베토벤 쉽게 이해하기 프로젝트' 수강생]

혼란스러운 세상에 기본과 중심을 잡아줄 다양한 철학 강의가 생겨서 기쁩니다. 인문학 강의도 더 늘어나길 희망합니다.

['쓰기의 감각 : 마음을 다독이다' 수강생]

잘 알지 못했던 이집트 문명에 대해 재미있게 수강했습니다.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신화도, 상형문자도 다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대이집트 황금문명의 뿌리를 찾아서' 수강생]

그동안 책을 읽고 공부하며 기획해 본 아이템과 프로그램을 시민연구회 운영 기간동안 실제 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점검하고 수정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특히 주별로 진행되는 미션 활동이, 연구회 후반으로 갈수록 활발해지고, 회원들의 글솜씨가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매우 뿌듯했습니다.

[시민연구회 참여자]

권역별 학습장

서울시민이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고의 인문교양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배움의 과정을 지원하는 권역별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청, 서소문, 은평, 독섬, 중랑학습장 총 5개의 학습장을 운영했습니다. 각 학습장 인근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인 학습을 통해 인문학적 교양과 통찰력을 키우고, 내가 하고 싶은 진짜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갖도록 도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일반 시민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서울시민이 방문하기 편한 곳에서 고품격 인문학을 학습할 수 있는 권역별 학습장을 운영하여, 폭넓고 균형 있는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시민력과 평생학습문화를 확대하고자 함

사업내용

① 시민청

- 다양한 비대면 강좌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평생학습 기회 보장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을 준수하는 안전한 대면 학습환경 조성

② 서소문학습장

- 시민대학의 전문성과 박물관의 전시와 연계된 강의 기획을 통한 기관 협업
-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전시실 관람객과 미사참례자 대상 인문학 학습기회 확대

③ 은평학습장

-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대에 맞는 소통형 온라인 강좌 개발
-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수요 충족과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한 대면 강의 진행

④ 독섬학습장

- 코로나 블루 극복 특별기획 : 코로나가 일으킨 클래식 음악계, 힐링 여행지 등
- 다양한 비대면 수업 방식을 활용한 7개 학과별 강의 운영으로 학습 선택 폭 확대

⑤ 중량학습장

- 시민의 요구와 필요성을 반영하고, 내적 견고함을 함양하는 인문학 강좌 운영
- 세심한 온라인 강의 운영으로 교수와 학습자 간 매주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마련

⑥ 실시간 온라인 특강 라이브ON

-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 환경 기초 토대 마련
- 다양한 강의유형 시범운영 : 일반적 강의유형, 실시간 소통유형, 온·오프 혼합유형



사업성과

- ✓ 균형 있는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돕는 권역별 학습장 운영
- ✓ 고품격 인문학 강좌 150개 운영, 참여 학습자 7,149명
- ✓ 참여 학습자 만족도 91%
- ✓ 코로나19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대면·비대면 교육체계 구축
- ✓ 온라인을 이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촉진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

차별성

가까운 곳에서 품격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권역별 학습장은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고품격 인문학 강좌를 시민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학습장에서 인문학과 배움에 매력을 느끼고,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은 분들은 본부 캠퍼스에서 심화과정이나 명예시민학과와 석사와 정까지 연계하여 학습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 학기 분야별 최고의 교수님을 모시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경험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에 눈을 뜨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평소처럼 강의를 진행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지속적인 학습이 단절되지 않도록 유튜브, 줌,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편해하시던 분들이 이제 온라인 활용을 잘 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대학도 운영체계의 다각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실무자 소회

[시민대학사업팀 정영선, 이혜미, 정재은 / 시민대학운영팀 김수민]



일상의 소중함을 느꼈던 시간

저희가 얼마나 시민분들의 복적거림과 온기를 사랑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기획한 프로그램의 일정을 계속 미루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분들의 참여와 관심 덕분에 잘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정하게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났고, 오프라인 강의 운영 시 방역과 QR체크인을 불편해 하시면서도 열심히 참석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줌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는 병원에서 링거 맞으며 공부하시던 분, 강아지, 자녀, 배우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계시던 분들이 특히 기억 납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즐겁게 방문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서울자유시민대학이 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비대면 학습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랑학습장의 경우 위치적 한계로 인해 꾸준한 참석을 어려워하시던 분들의 수요율이 비대면 강좌 운영을 통해 증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 동북권 시민 외에도 다양한 자치구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 플랫폼 확대

2019년 개관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새롭게 진행한 시민대학 강의는 박물관 전시와 연계된 문화예술학 강의를 기획하여 학습자에게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고 더불어 관람객에게 시민대학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인문학적 접근의 미술사 강의, 인문학과 지리 여행을 접목한 강의, 경제학 강의 등 수강한 강의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 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블루로 우울한 시기에 더욱 위로가 되었고 비대면 Zoom강의라서 미술 작품 등을 크게 볼 수는 없어도 강의를 듣는 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교수님의 열정과 강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매니저님께도, 그리고 함께 공부했던 수강 동료 선생님들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화가가 쓴 역사의 자화상'그림으로 보는 세계사' 수강생]

서소문에서 시민대학을 처음 접한 사람으로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에 놀랐습니다. 강의 내용이 알차고 시청각 수업을 하기 좋은 시설 환경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유일한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파리미술관에서 배우는 흥미진진한 역사이야기' 수강생]

유튜브와 TV 방송, 페이스북에서 접하게 되어 익히 알고 있었던 교수님의 수업이 운영된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량학습장! 그렇게나 먼 곳에 갈 수 있으려나? 했는데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마지막 두 타임은 대면 수업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인문학으로 보는 도시 서울』 강좌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올바른 나라 만들기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문학으로 보는 도시 서울' 수강생]

올해는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모두 경험할 수 있었네요. 선생님께서 학습자와 소통 원활히 해주시고, 학습매니저님도 강의 보충 자료를 채팅창으로 그때그때 공유해주셔서 고맙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역할을 다 해주셔서 편안히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은평학습장의 철저한 방역 관리 또한 믿음이 갑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방문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거대한 땅, 유구한 역사: 중국역사의 물길을 따라서' 수강생]

대학연계 시민대학

대학연계 시민대학은 시민들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수준 높은 인문특화 강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여러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뛰어난 교수진과 특화된 교육 시설 등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어려운 주제의 기초부터 알아갈 수 있는 입문 강좌에서부터, 보다 깊이 살펴보는 심화 강좌까지 대학의 특화 영역을 살린 다채로운 강좌들을 각 대학의 캠퍼스에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특화강좌를 통해 참여 대학을 널리 알리고, 대학이 시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근거리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30개 참여대학과 서울자유시민대학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며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민 누구나
- **사업기간** 2020년 3월~12월*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대학연계 시민대학 강의는 하반기만 운영
- **사업목적**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인문강좌를 운영하여 서울시민의 근거리 평생학습 기회 증대

사업내용

- ① **대학별 대학연계 시민대학 강좌 운영(30개교)**
 - 과학기술, 여성, 인권 등 대학별 특화영역에 따른 강좌와 및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한 인문특화과정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대학의 대표 강좌를 선정하여 온라인 강좌를 운영
- ② **시민의 원활한 대학연계 시민대학 참여를 위한 운영 토대 및 체계 구축**
 - 대학의 저명한 교수진, 강의장 등 질적·물적 인프라를 서울시민에게 무상 개방
 - 현장 교육운영 전문 지원인력인 학습매니저를 파견하여 학습 관리의 밀도 향상
 - 사업담당자/대학관계자/학습매니저의 운영 영역 분화에 따른 협업 체계 추진
 - 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연계대학-시민대학간 추가 사전협의 실시
- ③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개편을 위한 개별간담회 개최 및 시범운영 실시**
 - 대학별 강의개편 및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대학별 개별 간담회 개최
 - 대학의 유연한 사업운영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2개 시범운영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대학별 특화과정

 건국대 - 통일인문학	 경희대학교 경희대 - 후마니타스칼리지 인문학
 고려대학교 고려대 - 한국문화 인문학	 광운대학교 광운대 - 과학기술 인문학
 국민대 - 성찰과 삶의 인문학	 덕성여자대학교 덕성여대 - 지역문화 인문학
 동국대학교 동국대 - 불교 인문학	 동덕여대 - 예술과 문화 인문학
 명지대학교 명지대 - 치유 인문학	 삼육대학교 삼육대 에코 인문학
 서강대학교 서강대 - 종교 인문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 - 과학 인문학
 서울대 - 인문학 일반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 - 서울과 도시 인문학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대 - 사랑 인문학	 성공회대학교 성공회대 - 인권과 인문학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 - 동양사상 인문학	 세종대학교 세종대 - 창조와 혁신 인문학
 숙명여자대학교 숙명여대 - 인문고전과 인문학	 숭실대학교 숭실대 - 철학사상과 인문학
 연세대학교 연세대 - 한국사회 인문학	 이화여대 - 여성 인문학
 중앙대학교 중앙대 - 유럽사상 인문학	 종신대학교 종신대 - 청소년과 학부모 인문학
 한국상상대학교 한국성서대 - 인성 인문학	 한국외대 - 세계시민과 인문학
 한성대학교 한성대 - 리더십 인문학	 한양대 - 건축과 인문학
 한경대학교 홍익대 - 예술과 인문학	 KC대학교 KC대 - 나눔 인문학

사업성과

- ✓ 연계 대학 30개교와 대학연계 시민대학 협력 운영
- ✓ 대학별 특화된 50개의 교육과정 운영, 1,784명의 시민 참여
- ✓ 각 대학의 대표강좌를 선정하여 26개 온라인 강의 (사전제작·ZOOM 실시간 강의) 운영
- ✓ 신규 2개 대학 업무협약 체결('20.2) 및 시범운영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 ✓ 2021년 대학연계 시민대학 운영 개편을 위한 각 대학별 개별간담회 25회 개최
- ✓ 참여 학습자 종합 만족도 : 90.7%



차별성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대학별 특화강좌

대학의 저명한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우수한 특화강좌들을 대학 강의실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부담 없는 입문강좌부터, 길게는 2년 동안 이어지는 심화강좌까지, 학습자들은 다양한 강좌를 수강함으로써 종적·횡적으로 자신의 학습 경로를 설계하고 학습을 이어갑니다. 더불어 과학기술, 종교, 인권 등 각 대학의 강점을 살린 특화강좌들은 시민의 평생교육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학습자로서 다시 걷는 대학 캠퍼스

먼 옛날 졸업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대학 진학이 힘들었거나... 시민에게 대학의 문턱은 때로는 높기도 합니다. 이에 대학이 시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대학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 대학은 그저 지역의 풍경이 아닌, 실제 방문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통해 시민들은 방문객이 아닌 학습자로서 대학 캠퍼스를 거닐며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가는 기여 문화 확산

대학의 평생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문화가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와 학습자들에 맞는 다양한 교육모델을 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인프라가 아쉬운 지역의 대학에서는 접근성이 높은 인문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거주 지구가 많은 지역의 대학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춘 지역밀착형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소회

[시민대학운영팀 정찬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학습시대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2020년 한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연계 시민대학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년처럼 많은 학습자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직접 강의를 듣지는 못했지만,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교수진과 교육내용 그리고 캠퍼스 풍경을 담은 대표 강의를 선정하여 온라인으로 대학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습자들이 물리적인 거리, 시간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선뜻 참여하지 못했던 대학도, 온라인 학습을 통해 쉽게 참여함으로써 그 대학의 특화영역과 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대학연계 시민대학을 위해 연계대학과 시민대학이 함께 노력

2020년은 새롭게 2개 대학이 대학연계 시민대학 강의를 운영함으로써, 기존에 목표했던 30개 연계대학을 달성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적인 성과와 더불어 내실을 다지고자, 2020년에는 대학별 개별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각 연계대학과 시민대학이 가진 고민거리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공유해 보는 자리를 열었습니다. 또한 2개 대학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향후의 대학연계 시민대학의 모습을 미리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민들의 학습 욕구에 더욱 부응할 수 있도록, 뛰어난 강의와 다양한 운영방식을 갖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참여자지의 한마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양호하며, 금번에 수강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본인이 수강한 여러 과목 중에서 가장 공감이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은 강의였습니다. 앵콜 강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연계강의 수강생]

음악감상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고 실제 문화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에 대한 정보까지 알려주셔서 너무나 유익하고 고맙습니다

[광운대학교 연계강의 수강생]

트렌드와 이슈에 대한 책을 다뤄주셔서 관련주제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 향후 독서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효과까지! 고맙습니다

[KC대학교 연계강의 수강생]

코로나시대에 심신이 지치고 우울할 수도 있었는데 이 강좌 덕분에 활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향후에도 자연체험형 프로그램 기획이 많았으면 합니다.

[삼육대학교 연계강의 수강생]

체험과 실습 위주의 수업으로 심리적 문제를 다루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지대학교 연계강의 수강생]

민간연계 시민대학 (인문단체·대사관·기업연계)

시민대학 학습장 확대와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 민간기관·인문단체·대사관·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인문단체연계 시민대학은 서울 곳곳에 있는 작은 민간기관(단체)의 고유의 가치·전문성을 살린 인문학 중심의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하여 발굴하고 운영·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문단체 연계 시민대학을 통하여 서울시민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서울시와 외교부가 협력하여 서울시민의 외교역량 강화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 전문가의 역사·문화·예술·경제·외교현황 등에 대한 강의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평소에 쉽게 방문하기 어려운 주한 대사관 방문 및 주한 대사와의 만남을 통하여 한 국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연계 시민대학은 시간제약 등으로 평생학습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소재 기업과 연계하여 일과 중 인문학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저하된 직장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융합형 인재로의 성장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인문학 강좌 등을 개설 및 운영하였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민 및 서울시 소재 기업 임직원·소상공인
-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 **사업목적** 서울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인문단체·대사관·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학습장 운영
 - 인문단체연계 시민대학 : 공모사업을 통해 우수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문단체·민간기관을 발굴·지원하여 인문학습 특화 프로그램 발굴
 -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 서울시와 외교부가 연계하여 글로벌 시민의 주요 역할인 국민외교에 대한 역량강화 및 글로벌 시민성 향상
 - 기업연계 시민대학 : 직장인의 평생학습 기회 확보와 인문융합형 인재로의 성장 지원 및 서울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 ① **인문단체연계 시민대학 운영**
 - 각 기관(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특성·전문성을 가지고 서울시민의 인문적 성찰을 도와 삶을 향상시키며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문학 중심의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하여 발굴 및 운영 지원
 - 2020년 공모주제 : #존재, #지속가능, #미래

②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운영

-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외교부의 역사·문화·예술·경제·외교정책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방문하여 주한 대사와의 만남 진행
- 2020년 진행국가: 스위스, 러시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슬기로운 글로벌생활

③ 기업연계 시민대학 운영

- 온라인 퇴근길 시민대학 운영 : 코로나 시대에 공간적 제약 없는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서울시평생학습포털 내 온라인학습)를 활용하여 인문학 강좌 등을 개설 및 운영

사업성과

✓ 인문단체연계 시민대학

- 공모를 통하여 민간연계 시민대학 운영사업 총 22개 기관(단체) 선정
(A유형: 15개, B유형: 7개)

A유형 (일반유형)	광진주민연대 금천구립금나래도서관 맑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모두를위한 환경교육연구소 모두를위한극장공정영화협동조합 서울 ywca 서울청년대학주식회사 송석복지재단	송석복지재단 치유협동조합마음애타 한국역사문화교육원 한국현대미술아카데미 (사)강북마을 (사)노란들판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한국여학사협회
	B유형 (다년도 유형)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역사디자인연구소 지속가능청년협동조합바람 (사)고전문학연구회

※ 1개 기관(광진주민연대) 중도 포기

- 서울시민의 인문적 감성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37개의 강좌 운영, 총 1,221명의 시민 참여
- 선정 단체(기관) 실무자 워크숍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 <스위스·러시아·이집트·말레이시아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운영, 총 158명 시민참여
- 대사관 투어 영상 제작을 통하여,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에 참여하지 못한 모든 서울 시민들에게 온라인 대사관 투어 기회 제공
- 상황별 글로벌 에티켓에 대한 <슬기로운 글로벌생활(여행편, 일상편)> 온라인 강의 제작, 289회 조회수 기록 (2020.12.기준)

✓ 기업연계 시민대학 사업

- 10개 기관 발굴

참여기관	(신규) 명인상사, DB FIS
	(기존) 덕양무역, 풀무원, 하나투어, DB Inc
협력기관	G밸리(금천구청), DMC첨단산업센터, 영등포구상공회, 서대문구상공회

- 코로나시대에 공간적 제약 없는 학습기회 제공으로 기업의 학습문화 조성 및 평생학습 실현
온라인 콘텐츠 활용 학습활동 지원을 통하여 직장인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
참여기관 담당자 간담회(ZOOM 화상회의)를 통해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20~40대 참여율 증가 및 신규 참여자 다수 유입
참여율 68.8% 달성 (2019년 서울자유시민대학 사업 결과 보고 기준 18%)
신규참여율 40.8% 달성



차별성

공모 유형을 다양화하여 각 기관(단체) 특성에 맞게 사업 지원

일반 공모유형인 A유형을 비롯하여 우수한 교육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예산 집행 및 정산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단체)에 한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A유형(행정지원유형), 민간연계 시민대학 운영사업 우수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2년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B유형(다년도유형)으로 공모 유형을 다양화함으로써, 각 기관(단체)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주한 대사관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심층적 이해 및 글로벌 시민력 향상

각 분야별 전문가의 역사·문화·정치·경제·외교 등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론을 학습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평소 접근이 어려운 주한 대사관에 방문하여 주한 대사와의 만남을 통하여 시민들의 외교역량 및 글로벌 시민의식을 함양 하였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퇴근길 시민대학’ 개설·운영

대면 강의를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인문학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는 직장인 대상 시민대학 콘텐츠라는 것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기업 또는 공공기관·단체와 협력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각 기업과 협의해 학습 시간을 직무교육 이수시간 인정 및 인사규정(승진 등)에 연계하여 학습자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낸 인문단체연계 시민대학!

각 기관(단체)의 전문성을 살린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서울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올해는 민간연계 시민대학 운영사업 우수 단체를 대상으로 2년간 사업 운영이 가능한 다년도 사업 유형을 추가하여 인문단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지속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방역지침 준수, 강의실 내 거리두기, 비대면 전환 등 많은 것을 고려해야 했지만, 각 기관(단체)의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수강인원을 축소하거나 ZOOM/Youtube/네이버밴드라이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팬데믹 시대에도 많은 서울시민들과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글로벌 시민, 서울시민!

올해는 스위스, 러시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4개 국가의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을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사관에 방문하지 못한 스위스, 러시아편은 대사관 투어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대학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습니다. 학습자 분들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지 못하여 아쉽기는 하였지만,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에 신청하지 못하였던 일반 서울시민들도 평소 방문이 어려운 대사관을 온라인으로나마 방문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외교부 공공외교 대사님의 <슬기로운 글로벌생활> 특강 제작을 통하여 각 상황별 글로벌 에티켓을 배움으로서, 서울시민의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언택트시대에 직장인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

업무로 지친 직장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평생학습 참여가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7개 분야의 시민대학 강좌를 직장인 분들에게 제공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민대학 프로그램이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언택트 시대에 더욱더 발전된 기업연계 시민대학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여기관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기업연계 시민대학은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및 기관이라면 참여 가능하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2030 직장인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심화학습 개선을 통해 학습효과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해결해나가려는 의지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강의하는 법, 강의 운영하는 법 등을 배웠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많은 분들이 배움의 열정을 불태우며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거나 강의내용을 듣고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이끄셨던 학습자들의 소감을 들으면 준비한 강의가 의미 있고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하였습니다.

[민간연계 시민대학 선정단체 실무자]

이집트 대사관연계 시민대학은 이집트 문명·경제·외교정책에 대한 강의뿐만 아니라 기초언어(상형문자) 교육까지 마련해주어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상형문자가 어떻게 생겨난 언어인지를 배운 후 직접 상형문자를 이용해 글자를 써보니 참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말레이시아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4회차 대사관 방문에서는 말레이시아 전통 간식과 차를 마시며 ‘입맛’을 통해, 5회차 바틱 염색체험은 ‘손맛’을 통해 말레이시아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라는 국가에 호의적인 관심을 갖게된 계기를 만들 어준 이 프로그램에 감사드립니다.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참여자]

스토리 있는 따뜻한 강의였습니다. 또한, 평소 관심은 많았어도 직장에 다니다보니 시간 부족 등으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이런 강의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만족합니다. 2회차 특강으로는 기초지식의 습득에 도움이 되었는데, 향후에는 보다 심화된 내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정 구성을 요청 드립니다.

[기업연계 시민대학 참여자]

명예시민학위제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누적, 명예학위 취득 기준 충족 시 서울시장 명의의 시민학사, 시민석사, 시민박사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학습을 촉진하며, 학위수여식 개최를 통해 시민대학 학습자로서의 소속감을 고취시켜 지속적인 학습 참여를 독려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민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명예시민학위제 (시민 학·석·박사) 도입을 통해 학습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동기부여 및 학습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사업내용

① 명예시민학사 배출

- 서울자유시민대학 정규강좌 및 특강 수강 후 100시간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민 학사 취득 신청자 모집
- 시민대학 학습사례 공모를 통한 우수 학습자 선발 및 시상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학위수여식 행사 취소 후 학위취득자의 자택으로 학위증 및 학습 우수상 발송

② 시민석사 과정 수강생 선발

- 명예시민학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시민석사과정 참여자 모집
- 시민석사 취득기준 및 세부 교과목, 운영 규정 안내를 위한 온라인 실시간 소통형 오리엔테이션 개최
- 과정 참여자 소속감 및 동료 학습자와의 연대감 고취를 위한 학번 및 학생증 발급

시민석사 학위 취득 기준 (200시간)



③ 시민석사 공통과정 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교육철학 및 사유체계를 담은 필수 공통과정 교과목 운영을 통해 시민석사 인재상에 부합하는 시민 양성

시민석사 인재상

-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학습 주체적 시민
- 지역을 비롯한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시민으로서의 전문가**
- 미래적 관점을 바탕으로 **인권, 평화, 생명, 포용적 소양**을 갖춘 세계시민
- 철학적, 역사적, 윤리적, 생태적, 미래적, 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시민

- 온라인 강좌 제공을 통해 반복학습 기회 제공
- zoom 실시간 토론형 강화를 통한 학습 참여자 만족도 향상

④ 시민석사 전공세미나 운영

- 시민석사과정 참여자의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 결과물 산출 지원
- 전공세미나 연구 계획서에 따른 주제 분류 및 교수진-학습자 간담회 개최를 통한 그룹별 지도교수 매칭 후 온·오프라인 지도 활동을 통한 연구 성과 향상
- 연구 결과물 작성을 위한 방법론 특강 개최
- 중간평가회 참여 및 참관을 통한 과정 관리 및 학습동기 고취
- 졸업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시민석사학위 취득 여부 심사



사업성과

- ✓ 제2회 명예시민학사 292명 배출 (누적 673명)
- ✓ 제2기 시민석사과정 95명 승인 (누적 243명)
- ✓ 시민이 연구하는 전공세미나 과정 신설 (74명 참여)

차별성

지자체 최초 명예시민학위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속적인 배움에 대한 동기 부여

시민석사과정 참여자의 관심 주제에 대한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 결과물 산출 지원

시민석사과정 운영을 통해 참여하는 시민 양성을 위한 박사과정 기틀 마련

실무자 사회

[시민대학사업팀 정재은, 김지희]



명예시민학사를 넘어 시민석사에 도전하는 시민!

올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학사모를 직접 쓰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많은 명예 시민학사 취득자가 시민석사과정에 도전하였습니다. 시민석사 공통과정 수강을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열정적으로 비대면 학습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한 전공세미나 과정을 통해 관심 주제에 대해 글쓰기, 강의(안),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결과물 도출을 지원하여 2021년 1월 최종 졸업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과정으로 한 단계씩 도전하는 학습자가 시민대학에서 지속적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과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지식 수혜자에서 지식 생산자로, 연구하는 시민!

전공세미나는 시민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통과해야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참여자가 희망하는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서전, 수필부터 광화문 광장의 구조 변화까지 각양각색의 주제로 연구 결과물을 산출하였습니다.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일부 학습자는 자필로 작성한 결과물을 제출해 학습에 대한 열정에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시민대학의 지식 수혜자에서 지식 생산자로 성장하는 시민에게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모색할 예정입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시민석사 공통과정 수강을 통해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식 강의를 통해 삶에 대한 경험담도 나누고, 다양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시민석사 공통과정) 윤리와 논쟁 과정 참여자]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석사과정에 참여하면서 세상에 대한 인식의 폭이 깊어지고 넓혀진 계기가 되었고, 공동선 추구에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시민석사 공통과정) 세계시민 과정 참여자]

처음 시민대학 시민청, 본부, 대학연계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부터 얼마나 즐겁고 감사하고 좋았던지, 귀한 모습과 마음들이 그림고 생각이 납니다. 그 당시 받았던 감동과 열정, 기쁨들이 오늘 이 전공세미나에서 연구 결과물을 완성한 것이 얼마나 좋고 감사한줄 모르겠습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임에도 학문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학습자들과 호학에 접할 수 있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시민석사 전공세미나 참여자)]



서울자유시민대학 활성화 사업

평생교육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습매니저를 선발하고, 본부를 포함한 대학, 민간연계, 대사관연계, 권역별 학습장에 학습매니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강의 활성화에 따라 강의 운영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위해 비대면 강의 실무교육을 포함한 역량강화교육을 기획, 제공하여 체계적인 비대면 강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습니다.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 등을 활용하여 서울자유시민대학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신규 학습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체계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민 및 학습매니저
- **사업기간** 2020년 3월~12월(학습장별 상이)
- **사업목적**
 - 교육 운영의 품질관리, 학습자 만족도 제고
 - 평생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 양성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시민대학 인지도 향상, 참여율 제고

사업내용

❶ 학습매니저 운영

- 평생교육 분야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평생교육사, 실무자 및 교육 전공자 선발
- 본부, 대학연계, 민간연계, 대사관연계 및 권역별 학습장에 학습매니저 배치·운영
- 교육 운영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전교육, 역량강화교육 및 운영결과회의 진행
- 학습매니저 업무 경감 및 원활한 강의 운영 지원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❷ 서울자유시민대학 통합홍보 진행

- BI, 슬로건 등을 활용한 대중교통·인쇄매체·온라인 홍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강화
- 본부 외벽 사인홍보물 설치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방문객 편의 제공
-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양방향 소통 채널 운영
- MOU 체결을 통한 시민대학 인지도 향상

사업성과

✓ 학습매니저 운영

- 평생교육 분야 일자리 창출 : 학습매니저 50명 선발(34명 활동, 16명 활동중단)
- 서울자유시민대학 강좌 운영 지원 : 59개소, 395개 강좌 운영 지원
- 품질관리 시스템 운영 : 사전교육(2회), 역량강화교육(2회), 운영결과회의(1회) 진행

✓ 통합홍보 진행

- 언론보도(124건), 대중교통(버스 출입문 18명, 지하철 출구조명 11개역) 등 홍보 진행
- SNS(instagram, facebook, 카카오톡)을 통한 카드뉴스 등 지속적인 콘텐츠 배포 및 양방향 소통, 시민참여형 이벤트 개최
-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 주요 입구 외벽에 시각화된 디자인의 사인홍보물 설치
-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의 증진을 위하여 통일부 통일교육원과 MOU체결

➔ 학습매니저 교육(온, 오프라인)



차별성

비대면 강의 운영 전문가 양성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화에 따라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강의 운영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비대면 강의 실무교육을 포함한 역량강화교육을 기획, 제공하여 학습매니저의 활동영역을 넓혔습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서울자유시민대학은 많은 서울 시민분들과 함께 평생학습을 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SNS 채널운영을 통하여 학습자분들과 양방향 소통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 학습자 대상이 아닌 대시민 대상 홍보를 위하여 지하철 및 버스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시민대학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무자 소회

[시민대학운영팀 조수진, 전세환, 이윤재]

학습매니저 운영

올 한 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 비대면 강의를 오가며 어느 때보다 강의 운영이 시시각각 변했던 해였습니다. 특히, ZOOM을 활용한 정규강좌의 비대면 강의 운영은 학습매니저를 포함해 담당자, 교·강사, 학습자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고, 이를 통해 모두가 함께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자들과 함께하는 서울자유시민대학!

지속적인 SNS콘텐츠 배포와 시민참여형 이벤트 등을 진행하며 학습자분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늦은 시간 강의를 듣고 어두운 언덕을 내려가는 학습자분들을 보며, 더 안전하고 즐겁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시민대학 본부 외벽에 사인홍보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학습자분들이 시민대학에 방문하지 못하여 직접 보지 못한 게 아쉽지만, 내년에 더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을 때 학습자분들의 시민대학 등·하교 길을 밝게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학습매니저 활동 후기

공부방에서 재능기부형식의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시민대학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강의를 벤치마킹하여 무사히 올해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매니저 업무를 통해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어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처음 ZOOM으로 강의를 운영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는 걱정이 많아 그만둘까도 고민했지만 배워보자는 자세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은 ZOOM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렘, 떨림, 두려움으로 시작했던 학습매니저 활동이 올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느낍니다.

전업주부로 생활하다 새내기 학습매니저로 시민대학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비대면 강의를 오가며 정신없이 업무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업무를 하니 힘들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학습매니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어 경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시민교육

은평학습장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시민교육은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툴러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전자출입을 위한 QR코드 사용법, 온라인 쇼핑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교육과 화상 통화 사용법, SNS 활용법 등 디지털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서울시민
- 사업기간 2020년 6월~11월
- 사업목적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실습 교육으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사업내용

① 학습자 수준 및 관심분야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 운영

- 디지털 소외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장노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도모
- 카카오톡, 키오스크, 모바일 뱅킹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 제공
- 학습자 수준별 디지털 도구, 서비스, 미디어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운영방식	구분	교육내용
비대면	레벨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이파이와 데이터 구분, 인터넷 사이트 가입과 신청 • 전자출입명부를 위한 QR코드 사용법 • 줌 등을 활용한 단체 화상 통화 사용법 및 실습 등
대 면	레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를 위한 QR코드 사용법 • 문자 보내고 받고, 전달하는 법, 유튜브 검색과 시청 등 • 줌 등을 활용한 단체 화상 통화 사용법 및 실습 등
	레벨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로만 사용하나요? 카카오톡의 모든 것 • 길찾기와 온라인 쇼핑, 키오스크 사용하기 • 내 손안에 디지털금융
	레벨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이버 오피스, 구글 폼 활용 등 • 인스타그램, 망고보드, 유튜브 등 사용법 •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만들기

② 분야별 전문 강사의 맞춤형 교육 제공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금융감독원,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디지털 금융, 동영상 제작, 미디어 활용 등 수준별 알찬 강의 제공



사업성과

- ✓ 디지털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실습형 교육으로 디지털 활용역량 증진
- ✓ 수준별 맞춤형 대면 및 비대면 실습형 교육 44개, 참여 학습자 630명
- ✓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교육운영의 효율성 증대

차별성

충분한 실습 시간을 제공하여 개인별 학습효과 증진

기초수준인 레벨1의 비대면 교육은 영상자료를 게시하여 반복학습 지원



실무자 사회

[시민대학사업팀 김민경]

비대면 사회를 준비하는 장노년층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대면강의 운영 기간에 60대 이상의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장노년층의 디지털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 교육의 참여가 어려웠던 분들이 디지털 시민교육 수강을 계기로 시민대학 비대면 교육에도 참여하실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사회, 디지털 기반의 업무역량 강화의 필요

동영상 활용, 화상 업무회의, SNS 이용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업무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휴대폰을 쓰면서도 항상 답답했는데 눈이 좀 떠지는 느낌입니다.

[‘완전 초보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 A’ 수강생]

디지털 문화에 한발 한발 나아가는 기분이 들며 디지털 문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앱 활용법’ 수강생]

다른 사람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네요.

[‘완전초보자를 위한 디지털 교육 B’ 수강생]

디지털 금융 학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내 손안에 디지털 금융’ 수강생]

비대면으로도 훌륭한 강의를 접할 수 있는 레벨1 온라인교육은 복습도 가능하여 매우 유익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디지털 교육’ 수강생]

온라인 시민대학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 활동이 제한된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보를 위해 온라인 시민대학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 운영 소프트웨어와 촬영장비 구입 및 전 직원 대상 영상 촬영·편집 교육 실시 등 비대면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민 및 학습매니저
- 사업기간 2020년 5월~12월
- 사업목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된 시민들에게 공간적 제약없는 평생학습 기회 제공

사업내용

①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강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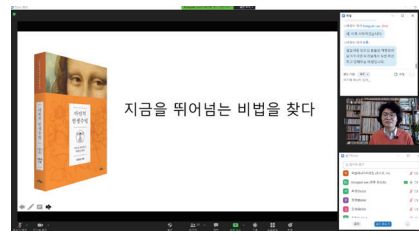
-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유형의 강의 운영

유형	진행방법	강의방식
유튜브 실시간 강의	실시간 유튜브 송출	강의형, 참여형
ZOOM 실시간 강의	실시간 ZOOM 송출	강의형, 참여형
사전제작 온라인 강의	사전제작 후 유튜브 또는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게시	강의형, 좌담회형
On·Off-Line 복합 강의	실시간 유튜브 송출과 오프라인 강의 동시 진행	강의형, 참여형

② 유튜브 실시간 강의



③ ZOOM 실시간 강의



④ 사전제작 온라인 강의



⑤ On·Off-Line 복합 강의



② 본부·권역별 학습장·대학연계·기업연계·대사관연계 비대면 정규강좌 운영

- 유튜브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학습 운영으로 비대면 학습 환경 기반 마련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플랫폼을 활용해 비대면 학습 진행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학습자의 자율·반복 학습 기회 제공

사업성과

✓ 코로나19 이후 평생교육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 시·공간적 제약 없는 평생교육 학습 기회 제공
- 온라인 강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대면 강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비대면 학습을 위한 환경 조성

- 강의 운영 소프트웨어(V-mix) 및 촬영장비 구입 등 비대면 학습 환경 구축
- 직원을 대상으로 영상 촬영 및 편집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자 업무역량 향상
- 각 학습장별 담당자 주도의 비대면 강의 제작(영상 촬영, 편집 및 송출)으로 효율적인 강의 운영

차별성

다양한 유형의 강의를 통해 상황에 맞는 비대면 강좌 운영

유튜브 실시간 강의, ZOOM 화상 강의, 서울시평생학습포털을 활용한 사전제작 온라인 강의, On·Off-Line 복합 강의 등 상황에 맞는 비대면 강좌 운영으로 효율적인 학습 환경 조성

실무자 소회

[시민대학사업팀 김지희]

온라인강좌, 시민대학의 일부로 자리 잡다!

오프라인 강의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학습자분들이 자택에서 안전하게 시민대학 강좌를 수강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척 뿌듯했습니다. 또한, 처음 진행되는 강의 방식에 초반에는 많은 학습자분들께서 낯설어하셨지만, 곧잘 적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보람 있고 즐거웠습니다.

'온라인학습'이라는 새로운 시민대학 플랫폼이 생겼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습자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라인학습'이라는 시민대학의 새로운 학습플랫폼이 생긴 것 같아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온라인



참여자의 한마디

처음에는 수강방법에 낯설었으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온라인강의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교육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민대학 강좌를 수강할 수 있어 매우 만족했습니다.

['코로나가 일으킨 클래식 음악계의 지각변동' 수강생]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시민대학 온라인강좌를 듣는 시간은 제 유일한 힐링 타임이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든 수준 높은 인문학 강의를 반복하여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현명한 돈 관리 기술' 수강생]

유튜브 시민대학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널리 알려진 유튜브 채널에 시민대학의 인문학 콘텐츠를 게시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체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령대를 타겟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시민대학의 학습자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깊이와 흥미별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학습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민 및 학습매니저
- **사업기간** 2020년 3월~6월
- **사업목적**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제한된 시민들을 위해 인문학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여 유튜브 시민대학의 토대를 구축함

사업내용

- ① **명예시민석사 과정: 5편, 7,530회**
 - 시민의식 함양과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시민석사 맛보기 과정 제작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명예시민학위제 사업 홍보 및 참여 고취
- ② **일반인문교양과정: 22편, 17,880회**
 - 역사, 천문학, 음악, 화학 등 다양한 주제의 인문교양 강좌로 구성
 - 깊이와 흥미를 고려해 전체영상(20분)과 요약본(3분)으로 다양하게 제작
- ③ **포스트코로나 특강: 3편, 1,250회**
 - <재난이 세상을 멈춰 세울 때> 3부작의 대담 형식으로 제작
 - 현상 이슈와 성찰, 미래 대비를 위한 통찰력을 기르는 특별 좌담



사업성과

- ✓ 오프라인 강좌 중심의 시민대학에서 온라인(유튜브) 시민대학으로의 가능성 확장
- ✓ 기존 오프라인 학습자 대비 20대~40대 중반 참여 인원 증가(17.6%→49.3%)
- ✓ 코로나시대에 비대면 인문학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인문학적 학습 욕구 충족 및 유지
- ✓ 명예시민학위제 관심 환기 및 시민석사과정 참여 의지 확산

차별성

지자체 최초 유튜브를 통한 인문학 강좌 콘텐츠 제작 및 무료 배포
서울자유시민대학 예비 학습자 확보 및 다양한 연령대 확장
코로나19로 인한 평생학습 제한 극복 및 사회 이슈(포스트코로나) 대응

실무자 소회

[시민대학운영팀 조수진 / 시민대학사업팀 정재은, 김지희]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대학에서 새롭게 시도한 콘텐츠로,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습니다. 그에 맞게 퀄리티 있는 영상이 완성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유튜브 시민대학을 통해 20~40대 연령층이 새롭게 유입되면서 시민대학의 학습자 영역이 확장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대의 학습자분들께 유튜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유튜브 시민대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서울자유시민대학의 강의를 유튜브로 접하게 되어 새로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도 풀어진 것 같습니다.

['(생애설계의 철학) 인생 향해의 나침반을 찾아서' 시청자]

재미있고 알기 쉬운 강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짧은 강의여서 다른 강의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수결이 언제나 정당한 방법일까?' 시청자]

동남권 캠퍼스

다가을 미래사회와 변화를 예측하고 트렌드 통찰력, 디지털 역량 향상을 통해 시민 스스로 미래를 구현하는 미래사회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 조성을 위해 일상 속 환경을 주제로 녹색생활습관을 키워나가는 이론 및 실천과정을 학습하고 지원합니다.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성숙한 시민의식·시민력 향상을 위한 학과별 인문교육과정 및 인문석학특강을 운영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전문지식 역량을 향상하는 '마니아에서 마스터로(路)'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책을 매개로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북 큐레이션 사업과 시민 북 리더를 양성해 독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시민참여 활동을 지원합니다.

시민이 주체가 되어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동남권 캠퍼스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시민기획단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민
- 사업기간 2020년 9월~12월
- 사업목적 서울자유시민대학 권역별 캠퍼스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동남권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규 캠퍼스 조성

사업내용

① 미래이슈특강 기획

- 4차 산업혁명, 포스트코로나, 디지털리터러시로 주제를 나누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한 이슈들을 최고전문가들을 통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특강 기획

② 인문석학특강 기획

- 16인의 명사가 인문·사회·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인문학 중심 특강 기획

③ 동남권 시민수요 조사

- 동남권 캠퍼스 교육사업 및 시설운영에 대한 시민 인식과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설문조사 실시

④ 시민기획단 모집

- 시민참여 캠퍼스 운영을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기획단 모집



➡ 2층 개방형학습공간



➡ 2층 메인복도



➡ 2층 시민연구회실



⬆ 전시공간

⑤ 동남권 캠퍼스 임시운영 및 개관행사 기획

- 캠퍼스 개관 인지도 향상을 위한 오픈기념 시그널 음악회, 그린미래 원데이 체험클래스 기획

⑥ 동남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 민간/공공 영역 평생학습 활성화 네트워크 연계 추진 및 캠퍼스 자문 활동 실시

⑦ 동남권 캠퍼스 홍보

- 캠퍼스 브랜드 홍보를 위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및 온라인 활용, 간판 및 기타 사인물, 브로슈어 활용, 기념품 및 제작 활용 홍보 실시

⑧ 캠퍼스 공간 조성

- 온·오프라인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창의성을 키우는 개방·참여공간, 시민들이 창작물을 만들고 전시하는 생산공간 조성

사업성과

✓ 미래이슈특강 기획

- 총 4개 강좌, 학습자 수 378명 모집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재추진 예정)

주제명	강좌명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인간의 미래에 대한 철학적 성찰
포스트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혁명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우리의 삶
	데이터를 문화심리적으로 해석해야하는 이유

✓ 인문석학특강 기획

- 총 16개 강좌, 학습자 수 1,204명 모집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재추진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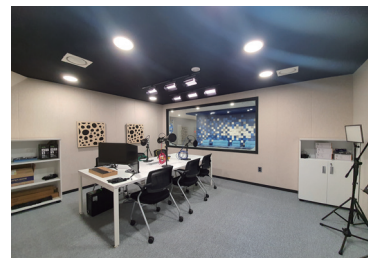
주제명	강좌명
인문학	유럽과 인문학-유럽적 가치: 아메리카 드림 vs 유러피안 드림
	포스트휴먼 시대의 길, SF에 묻다
	오션지 위의 인문학
	서양고전읽기: 서양문화의 뿌리,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서울학	무지개떡 건축 : 보편적 도시건축
	역사공부, 관점이 바뀌는 그 짜릿한 순간
문화예술학	미술사 결정적 순간에서 배우는 창조의 비밀
	인상주의 시대의 파리 미술 여행
	뽀족한 콘텐츠 만들기: 인공지능시대 창의적 생각
사회경제학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할 경제 환경의 변화
	당신의 인생을 기록하세요: 가장 평범한 삶에 대한 기록의 위대함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생활환경학	죽음을 생각하며 삶을 바라본다
	외계 생명체를 찾아서
	인류세 시대를 살아가기
	과학과 인문의 만남



➡ 3층 시민지혜옴(열린도서관)



➡ 4층 공유사무실



➡ 4층 크리에이터부스

✓ 동남권 시민수요 조사

- 동남권 캠퍼스 인근 거주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데이터 구축 및 분석

✓ 시민기획단 모집

- 캠퍼스 교육과정 및 공간설계에 참여하는 시민기획단 41명 모집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재추진 예정)

✓ 동남권 캠퍼스 임시운영 및 개관행사 기획

- 오픈기념 시그널 음악회, 그린미래 원데이 체험클래스 141명 모집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재추진 예정)

✓ 동남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활동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4개 기관·단체와의 협업 추진
 - 문화재청 전통문화대학교 / 市투자창업과 / 市박물관과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 교육과정·사업 자문회의 9회, 공간운영 자문회의 8회 개최

✓ 동남권 캠퍼스 홍보

-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온·오프라인 홍보 실시

구분	주제명	홍보기간	홍보방법	홍보장소
대중교통	지하철	10~12월	조명광고	강동역, 명일역, 고덕역, 서대문역
	버스		음성광고	상일동역
			셸터광고	고덕그라시움 정류장
			음성광고	시내버스(81번 외 6대)
오프라인	간판(사인물)	11~12월	지주간판 및 현수막 게시	고덕센터럴푸르지오 외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 9곳
	기타 홍보물	12월	브로슈어 및 포스터 게시	동남권 캠퍼스 입구 홍보 게시대
온라인			11~12월	카드뉴스 및 웹배너 게시



➔ 담당자 캠퍼스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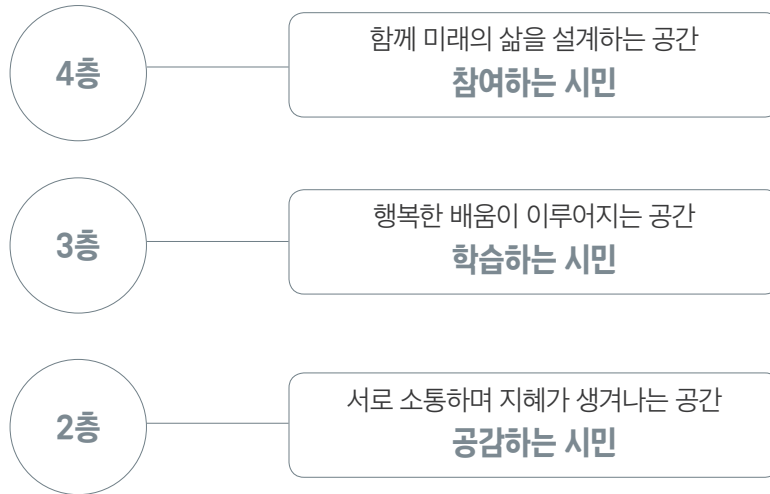
➔ 자문회의 #1



➔ 자문회의 #2

✓ 컨셉 및 공간구성

- 학습강의실(15개), 회의실(10개), 개방형 학습 공간(5개), 휴게·편의 공간(17개) 등 다양한
테마 공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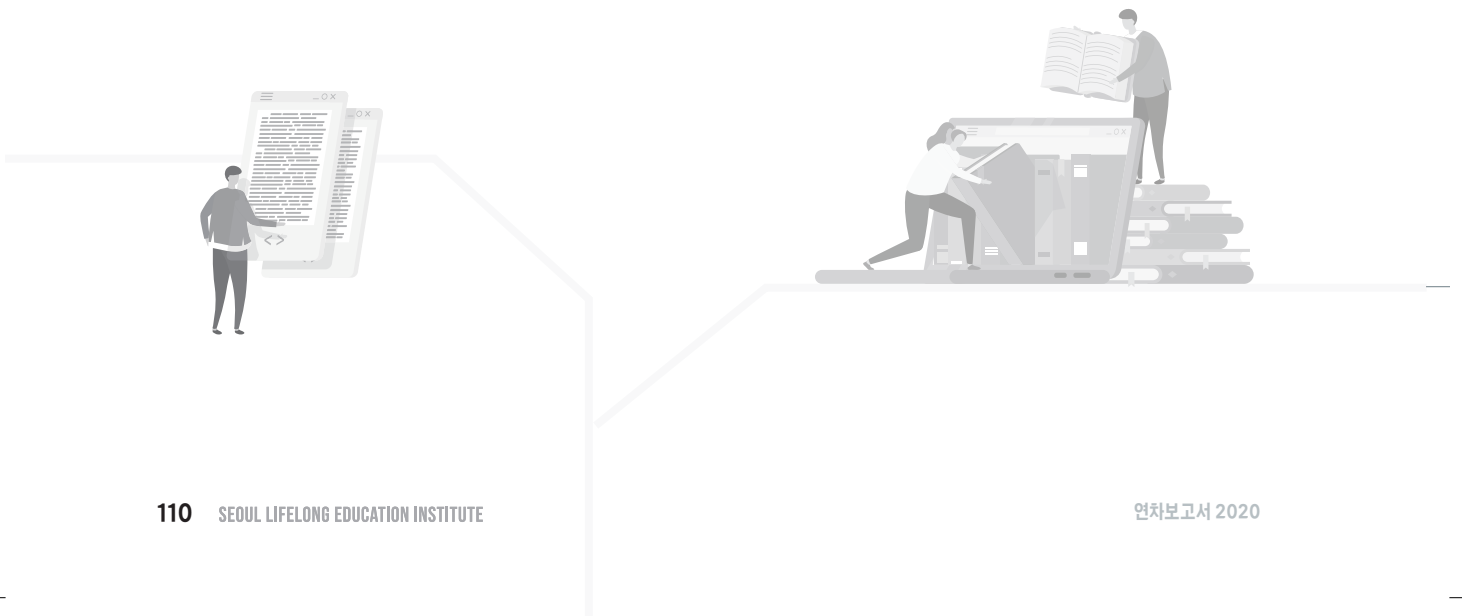
차별성

인문교양 중심에서 벗어난 미래학·그린미래 프로그램 운영

기존 인문교양 중심의 서울자유시민대학과 차별화하여 미래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일상
생활에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미래학·그린미래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온·오프라인 모든 환경에서 능동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디지털 공간 구축

스마트보드, 양방향 미러링 등 첨단장비 구축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지는 강의·커뮤니티 공간 구축





실무자 사회

[동남권운영팀 이명호, 김세희, 한성곤, 김은영]

시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미래 캠퍼스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알아나가고, 시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주도하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있어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채워나가는 시민참여 캠퍼스

시민들이 직접 꿈꾸고 고민하고 참여하는 장소로 시민기획단 등을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희망을 캠퍼스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취미를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마니아클래스

‘취미가 곧 직업’이 될 수 있는 덕후들의 모임, 성격과 적성 등을 분석하여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미 체험을 기획하겠습니다.

참여자 한마디

동남권 캠퍼스 네트워크 자문 후기

시민들이 동남권 캠퍼스 안에서 사회·기술·에너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미래를 조망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해보는 멋진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미래학 교육과정 자문위원]

동남권 캠퍼스는 규모나 역할에 있어 시민 활동이 실험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성과가 없더라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사라져도 괜찮은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참여 자문위원]

탐방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소개

시민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평생교육 배움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





→ 2층 그린미래체험실



→ 2층 시민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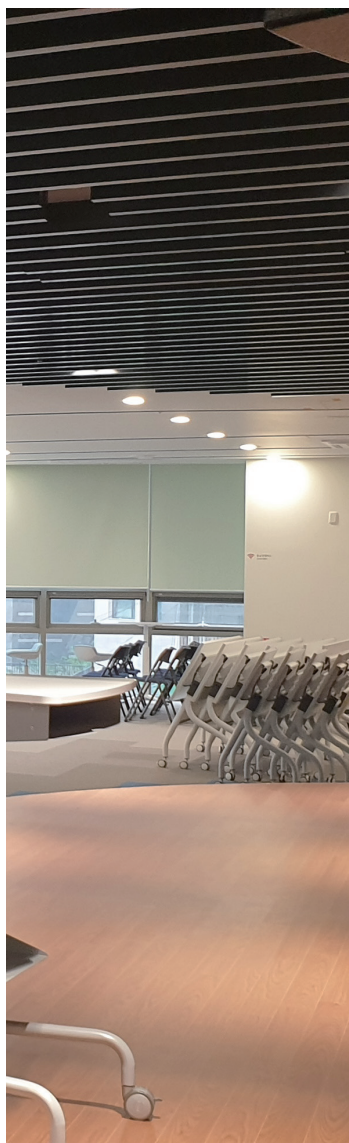
서울자유시민대학, 최대규모 학습장 '동남권 캠퍼스'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가 시민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서울 동남권 지역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동남권 캠퍼스는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 건물(104동) 2~4층에 전체 면적 7211㎡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울자유시민대학 본부의 6배이자 권역별 학습장(시민청, 서소문학습장, 은평학습장)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동남권 캠퍼스는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와 성동구, 광진구까지 6개 자치구를 아우르며 많은 시민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테마 공간

동남권 캠퍼스의 내부는 학습강의실(15개), 회의실(10개), 개방형 학습 공간(5개), 휴게·편의 공간(17개) 등으로 시민여론조사('20년)를 반영하여 조성되었습니다. 각 층의 테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모임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감이 생기는 공간' (2층) ▷서울자유시민대학의 7개 학과 강좌를 학습할 수 있는 '행복한 배움이 이루어지는 공간' (3층) ▷함께 협업하고 참여하여 '스스로 미래의 삶을 설계하는 공간' (4층)입니다.

▷2층은 음악회·토론회 등을 열 수 있는 '시민홀'과 자신의 취미를 탐색하고 전문가로 키워가는 '마니아 클래스', 자유로운 학습소모임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연구회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환경을 주제로 녹색생활습관을 키워가는 '그린미래존'이 있습니다. ▷3층은 다양한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대강의실'과 작가와의 만남, 북 큐레이션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열린도서공간 '시민지혜오름'이 자리했습니다. ▷4층은 영상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실', SW·IT 분야 교육이 이뤄질 '소프트웨어실'과 '스마트강의실', 다목적홀인 '미래홀' 등 미래 스마트시티를 대비한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 3층 대강의실



→ 4층 미래홀



→ 4층 크리에이터실



→ 3층 시민지혜오름(열린도서관)

미래사회역량 과정 '미래학·그린미래(생활환경학)' 특화

동남권 캠퍼스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서울자유시민 대학의 7개 학과(△인문학 △미래학 △생활환경학 △사회경제학 △문화예술학△시민학 △서울학)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이중 미래학과 그린미래(생활환경학)를 특화과정으로 운영합니다. 정규과정 외에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시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홍보하는 '시민기획단' 과 >취미를 탐색하고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전문 역량을 향상하는 '마니아에서 마스터로(路)'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함께하는 지성’ 은 서울을 열다

정식 운영을 시작하는 동남권 캠퍼스에서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나 동남권 캠퍼스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온·오프라인 강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민 주도과 참여로 운영되는 평생교육 배움터, 서울자유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꿈과 희망을 채우는 시민의 활발한 이용을 기대합니다.

삼 김 압

서울 평생교육의
내일을 위한 노력

3-2

모두의학교



[탐방] 모모/두두/나나와 함께하는 모두의학교 탐방기

시민참여형 학습공간 운영 및 혁신 모델 전파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

모두의학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탐방

모모, 두두, 나나와 함께하는 모두의학교 탐방기

Interviewer

김세희(모두의학교팀) - 이하 담당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오래전 서울의 모습이 아직 남아 있는 골목길을 걷다보면 만날 수 있는 주황색 건물 모두의학교. 서울 시민부터 동네 주민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공간이지만,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다. 불행을 기회로! 문이 닫혀있던 시간 동안 모두의학교는 여러 가지 변화를 꾀했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를 모두의학교 마스크트에게 들어보았다.



담당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 모두의학교 마스크트 모모, 두두, 나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모모 안녕하세요, 저희를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웃음) 저희는 2020년 하반기에 탄생한 모두의학교 마스크트 모모 두두 나나입니다.

나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시민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 뵙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인사를 드리기 힘들어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눈물)

담당자 그러게요, 더 많은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면 좋을텐데 저도 아쉽습니다. 그럼 아직 한번도 오픈한 적이 없는건가요?

나나 모두의학교는 코로나 이전처럼 상시개방을 하지는 못했지만,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사전예약제로 조금씩, 꾸준히 열고 있어요. 물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서요!

두두 모두의책방의 경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 예약을 받고 여석에 한하여 현장 접수를 받았어요. 공부하러 오시는 대학생분들부터 신문 읽으러 오시는 어르신까지 모두 방역수칙에도 잘 협조해주시고 모두의책방을 알차게 이용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웃음)

담당자 그래도 많은 시민분들이 모두의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다니 정말 다행이에요(웃음)

2020년 모두의학교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일지 소개해줄 수 있을까요?



나나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설렘) 2020년 모두의학교는 ‘우리는 모두나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모두의학교 공간은 아무나가 아닌 모두의학교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모두나를 위한 공간이라는 것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이예요. 이 캠페인에 맞춰 모두의학교 공간도 변화하고, 곳곳에 모두나 약속도 걸렸답니다! 저희 이름 모모 두두 나나도 시민분이 여기에서 따서 지어주셨어요(웃음)

담당자

시민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니 정말 의미있었겠어요! 모두나를 위한 모두의학교 공간은 그럼 어떻게 바뀐건가요?

모모

모두의학교의 공유 공간이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한 곳은 아무래도 1층이 아닐까 싶어요. 기존에 커다란 로비 또는 넓은 복도로 인식되었던 1층 공간을, 보다 목적이 명확하게 구성했어요. 모두의학교 인근 어린이를 위한 공간인 [모두놀이터],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공간인 [모두카페], 그리고 모두의학교를 찾아주시는 모든 시민분들 위한 [모두라운지]를 마련했습니다. 이 공간들은 모두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어요.

두두

[모두카페]의 경우 코로나가 많이 심해지기 전까지 금천구 학습동아리 분들과 연계해서 공유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셔서 정말 뿌듯했어요(웃음)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코로나 상황에서도 변화를 많이 시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웃음) 마지막으로, 모두의학교를 찾아주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나나

우선 저희 모두의학교 골목에 숨어져있지만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 여러분께 현장에서, 랜선에서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예쁘게 봐주세요!



시민참여형 학습공간 운영 및 혁신 모델 전파

모두의학교 운영 체제 구축 사업은 모두의학교의 기반과 틀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총 세 가지의 기반과 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보다 의미 있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관리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모두의학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 확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생학습의 본질을 구현하는 관점에서 '시민주도형 평생학습센터'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다양한 층위의 시민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유연한 평생학습센터 운영 모델 개발 및 확산

사업내용

① 참여 주체의 다각화 체계 구축·운영

- 시민자원활동가 '모두아띠' 구성·운영 : 시민이 모두의학교 운영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참여 기회 제공
- 협력 네트워크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 모두의학교 운영 분야별 유기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관 발굴 및 파트너십 구축

② 참여자 관리체계 구축·운영

- 요구 조사 및 피드백 체계 구축 : 참여자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요구조사 및 피드백 체계 구축
- 참여자 멤버십 제도 구축 : 모두의학교에 대한 소속감 부여 및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참여자 멤버십 제도 구축

③ 공유 공간 개편 및 공간 문화 조성

- '따로 또 같이' 공유 공간 개편 : 같은 시간에 동일한 공간이 아닌 대상별로 따로 공간을 공유하도록 유리벽으로 분리 조성
- '우리는 모두나입니다' 공간 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 아무나가 아닌 모두의학교를 존중하고 좋아하는 이용자들에게 열린 공간으로써 공간 문화 조성

차별성

겉모습은 학교와 비슷하고, 프로그램들은 여타의 평생교육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의학교에는 기성의 학교와, 여타의 평생학습 현장과도 다른 ‘한 곳’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강의법보다는 새로운 관점을 시도하는 ‘새로배움’의 현장이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평등한 관계에서 만나 존중을 기초로 하는 ‘서로배움’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실용을 우선시하는 ‘하드스킬’ 대신 생애주기별로 시민으로서 필요한 ‘소프트 스킬’에 기반한 평생교육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 공공의 시설로서 규칙을 세우기보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간 문화에 대해 진심을 다해 고민하는 곳. 모두의학교는 평생학습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고, 그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신개념 평생학습의 방법론을 연구하는 ‘하우 연구소’입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모두놀이터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도 하고 보조도 하며, 서로 친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친근감있게 대하는 것에 대해 아직은 덜 익숙했지만 차츰 나아질 것 같아요.

[시민자원활동가 모두아띠 11기 류미정]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

서울형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은 모두의학교의 슬로건인 '새로배움(나와 세상을 새롭게 배우는 배움)'과 '서로배움(평등한 관계에서 함께 배우는 배움)'을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시민과 만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총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다양한 영역을 융합하여 새로운 경험과 체험 중심의 배움을 제공하는 '모두의 앙상블 프로젝트'를 기획·운영하였습니다. 둘째, 누구나 쉽게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교육 디자인 툴킷'을 개발하고 전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누구나 자신만의 학교를 세워보고 운영해볼 수 있도록 '시민학교 스타트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평생학습의 본질을 고민하고, 이를 구현하는 다양한 층위 및 형태의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 있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 시민
- 사업기간 2020년 1월~12월
- 사업목적 주체적 시민 역량의 발견 기회 제공, 서로배움과 새로배움의 학습 모델 개발

사업내용

❶ 모두의 앙상블 프로젝트

- 대상 : 배움에 대한 마음과 의지가 있는 시민 누구나
- 내용 : 다양한 영역·목적·주체 간의 융합을 통해 '따로 또 같이'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새로운 경험과 체험 중심의 배움을 제공
- 3개 유형 융복합 프로젝트 개발 및 62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영역	내용
평생교육 영역 간 융합	교육 내외의 다양한 영역 간 융합을 통해 평생교육의 새로운 콘텐츠 발굴(건축, 문화예술, 미디어, IT 등)
평생교육 목적 간 융합	교육과 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목적 간의 융합을 통해 평생교육의 새로운 가치 발굴(세대 간 소통, 다양성 등)
평생교육 주체 간 융합	교육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 간의 융합을 통해 평생교육의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학교, 기업, 비영리재단 등)

❷ 모두를 위한 교육 디자인 툴킷

- 대상 : 변화와 성장을 만드는 교육을 기획하고 싶은 시민 누구나
- 개발 의도 및 목적 : 학습자의 주체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의미와 공공성을 갖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한 툴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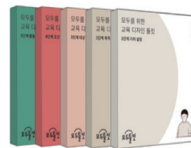
- 톨킷 특징 : 체계적인 단계별 구성, 최선의 선택을 돕는 카드형 톨킷 구성, 자율성을 높인 설계 및 카드 구성

단계	과정명	톨킷명	톨킷 역할
1	교육 방향 설정	가치 설정	교육의 의미와 방향성 설정하기
2		대상 구체화	교육 대상의 특성 파악하기
3		목적 확인	교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결정하기
4		조건 발견	교육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발견하기
5	교육 과정 도출	활동 구성	구체적인 교육 활동 설계하기
6		전략 탐색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 탐색하기
7		성과 설정	교육을 통해 일어난 변화 측정 방법 구성하기
8		홍보물 제작	교육 과정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만들기

→ 톨킷 구성물



카드



카드 패키지



사용설명서



폴패키지

③ 시민학교 스타트업 지원

- 대상 : 자신만의 학교를 직접 기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 발굴 기준 : 배움 과정 또는 결과를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진 학습 모임 중심의 선발
- 지원 기간 : 예비단계, 시범단계, 정규단계, 자립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인큐베이팅 성장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회의 및 컨설팅 지원

단계별 시민학교 성장과정



연번	단계	학교명	활동주제
1	지속운영	모디	현책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스토리를 담은 디자인 작품 만드는 학교
2	정규	꿈틀	아이와 함께 멀티미디어 스토리북을 만듦으로써 일상을 기록하는 학교
3	정규	반작반짝 생각 제작소	다양한 게임을 제작하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어르신 놀이 문화를 만드는 학교
4	정규	5지게 잼난 메이커 학교	메이커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드는 ICT DIY 학교
5	시범	모두연구소	요리와 인문학을 매개로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나누는 학교
6	시범	생활 속의 IT배움터	IT가 낯설고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대상들에게 다양한 도구들로 해결법을 함께 찾아 나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학교
7	예비/시범	해당사랑없음	기존 사회가 규정 지은 '사랑'과 '연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언어로 사랑, 연애, 관계를 다시 쓰는 학교
8	예비	문화예술동행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마음건강을 위한 치유학교
9	예비	아마나르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아학교

2020년 시민학교

사업성과

- ✓ 온·오프라인 다양한 주제 및 영역 간 융합을 통해 다채로운 체험 중심의 배움을 제공하는 모두의 앙상블 프로젝트 62개 프로그램 기획·운영
- ✓ 모두를 위한 교육 디자인 툴킷 온라인 운영 프로세스 개발, 교육기획자 400여명 참여
- ✓ 시민 누구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원하는 형태로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9개 시민학교 발굴 및 육성

차별성

새로운 학습 평가방식의 가능성을 검증하다

‘모두의학교에서 학습자 평가는 어떻게 해야할까’ 학습자 변화측정 평가도구 탐색은 이 물음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평가를 바라보면서 학습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탐색하는 중에 ‘소프트 스킬: 마음 에너지의 변화량’의 관점을 도입하여 생애주기별 발달에 기초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드스킬(Hard Skills)은 특정한 상황이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의 습득이나 경험의 축적 등과 관련된 역량이라면 소프트스킬(Soft Skills)이란 무엇인가 실행해보고자 하는 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학교 세대별 프로그램은 이러한 소프트스킬에 근거하여 촘촘하게 기획이 되며 운영됩니다.

모두의학교 비대면 평생학습 체제 전환에 대하여

글로벌 팬데믹 시대. 온라인 회의, 화상 수업, 거리두기와 공공시설 이용 제한 등 온라인과 비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전환되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모두의학교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배움의 공간인 모두의학교는 어떤 새 자리를 찾아가야할지, 모두의학교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한 해를 되돌아보면 2020년 상반기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대면 평생학습 체제 전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진, 참여자 간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비대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세팅하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또한 많이 배웠습니다.

모두의학교 기획자들은 새로배움과 서로배움의 가치를 담아 한땀한땀 공을 들여가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갑니다. 앞으로 모두의학교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시민과 함께 작지만 의미 있는 실험과 도전들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도 모두의학교는 성장 중입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함께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얻고 왔어요.

['모두를 위한 교육 디자인 툴킷 워크숍' 참여자]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예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나의 마지막 일주일' 참여자]

프로그램 키트를 열면서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텐데 모두의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해를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실수 트리스마스' 참여자]

모두의학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시민 '나'의 관심사로부터 출발한 커뮤니티가 모두의학교를 중심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개 커뮤니티를 발굴, 지원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서로 배움을 여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모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왔습니다.

커뮤니티의 역량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징검다리 프로그램'과 커뮤니티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커뮤니티 배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 시민
- 사업기간 2020년 3월~12월
- 사업목적 시민이 주체적으로 일상과 공동체의 이슈에 대한 서로 배움을 여는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경험과 조직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주도의 모두의학교 학습문화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 ① 학습자 커뮤니티 공간 지원
 -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모두의학교 공간 제공
- ② 학습자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커뮤니티 발굴 및 지원
 - 커뮤니티 활동 컨설팅 지원
 - 커뮤니티 역량 개발(징검다리 프로그램) 운영



③ 사회공헌 활동 연계 지원

- 지역사회 자원연계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이슈를 함께 고민하는 캠페인·사회공헌 활동 운영

연번	유형	커뮤니티명	활동 주제
1	공공주제형	살리다프로젝트	환경을 테마로 한 소셜다이닝을 통해 도시에서의 지속가능한 삶을 즐겁고 쉽게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2	공공주제형	함성육아	자연 속 자원을 놀잇감 삼아 아이들과 함께 환경을 생각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3	자유주제형	개밥바라기	철학을 공부하고 토론하며 관련 도서를 번역하여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지적 기쁨을 나누는 커뮤니티
4	자유주제형	다채	일상의 소재를 주제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잡지로 제작하여 공유하는 커뮤니티
5	자유주제형	비트윈	모두의학교를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다양한 놀이·체험활동으로 소통하는 커뮤니티
6	자유주제형	시각문화연구소	이산가족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여 이산가족이 가지는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7	자유주제형	시니어방콕 놀이터	시니어들의 더 나은 인도어(Indoor)라이프를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커뮤니티
8	자유주제형	일상의 미투를 준비하는 학교	일상 속 미투(Me too)를 위한 안전한 환경과 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하는 커뮤니티
9	자유주제형	필포유 (Film for you)	영화를 통해 얻은 여러 감정과 생각을 다양한 오브제로 표현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10	사업연계형	비건으로 N잡하기	모두의 양상블 프로젝트 '슬기로운 n잡 생활' 참여자로 구성된 비건으로 새로운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사업성과

- ✓ 학습자 커뮤니티 10개 활동 지원(공공주제형 2개, 자유주제형 7개, 사업연계형 1개)
- ✓ 커뮤니티 역량개발 '징검다리 프로그램' 3회 운영
- ✓ 사회공헌 활동 2건 지원

차별성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활동 지원

커뮤니티의 지속성과 자발적 성장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커뮤니티의 시작을 지원하는 워크숍, 다름을 이해하고 민주적 소통을 돕는 워크숍, 커뮤니티 방향성 설정을 위한 컨설팅, 활동 주제의 전문성을 더하는 전문가 컨설팅 등 커뮤니티의 시작과 성장을 함께하는 단단한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을 제공합니다.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

비건·제로웨이스트, 공동 육아 등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주제의 커뮤니티가 모두의학교를 통해 모이고 성장합니다. 시민공유행사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직·간접적으로 커뮤니티 팀의 주제를 함께하며 일상 속 서로 배움을 넓혀갑니다. 개인의 관심사에서 시작된 고민이 커뮤니티 활동 경험 공유 및 조직 기회 제공을 통해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에 기여하는 학습문화로 연결됩니다.

실무자 소회

[모두의학교팀 안수진]

연결의 끈이 더 다양해지고, 단단해 질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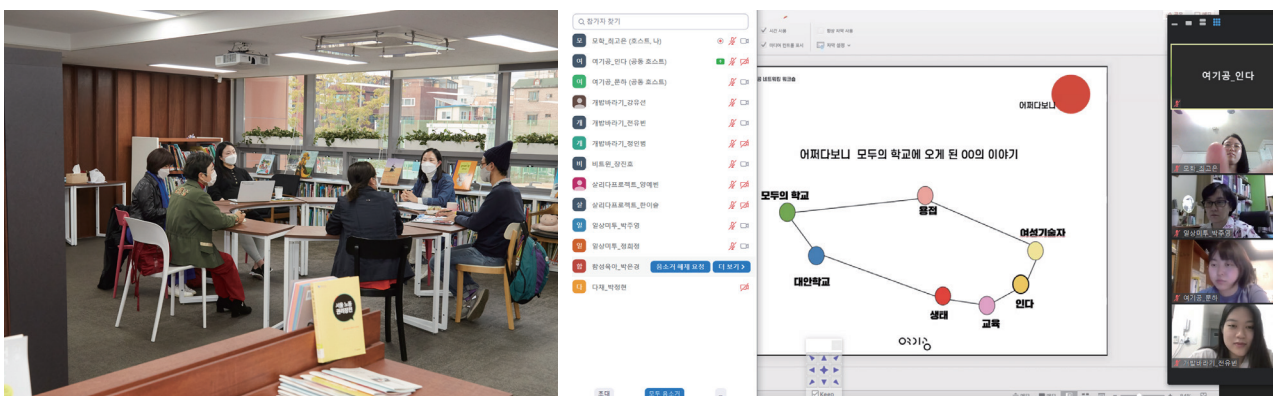
코로나로 인해 커뮤니티 만남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만남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방법은 다양해 졌습니다. SNS를 통해 소통의 범위를 넓혔고, 시간·공간의 제한에서 벗어나서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비건을 주제로 한 커뮤니티는 '따로 또 같이' 비대면 비건요리를 진행하며 비건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였고, 공동육아 커뮤니티는 '사연 있는 온라인 육아 나눔장터'를 열어 효율적으로 물품들을 나누었습니다. 만남이 어려웠던 작년 한 해는 '만남의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 주었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의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 커뮤니티를 잇는 연결의 끈이 더 다양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모두의학교도 더 배우고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모두의학교처럼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주제형 커뮤니티 ‘함성육아’ 참여자]



시민 문화서재 '모두의책방'

인구대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모두의학교의 위치적 특성과, 모두의 학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학습 기반 자료 제공 필요성에 따라 도서 중심의 복합 문화 향유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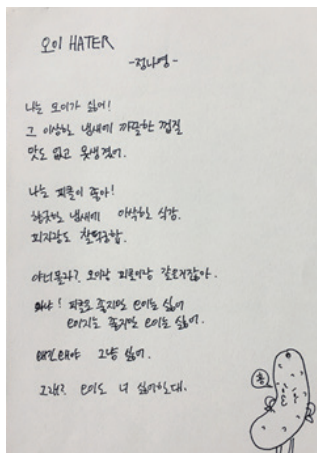
- 사업대상 서울시민
- 사업기간 2020년 3월~12월
- 사업목적 도서 중심의 복합 문화 향유공간 구축

사업내용

- ① 시민 참여형 도서 수집 및 서비스 제공
- ② 시민 중심의 문화공유행사 운영
- ③ 취향을 공유하는 북 큐레이션 운영

사업성과

- ✓ 7,807권 장서 및 20여 개 분야 53종 정기간행물 제공
- ✓ 문화공유행사 6개 개최
 - 가사낭독회, 그림책콘서트, 김동식 작가 북토크, 랜선 서재들이, 책을 읽어주는 음악, 힐링 음악회 등
- ✓ 북 큐레이션 프로그램 6회 운영
 - 주제 : 식물, 여행, 음식, 음악, 컬러, 편지



차별성

단순 도서관의 개념에서 벗어나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배치 및 설계

아동서적, 만화책, 전문서적, 각종 전문 잡지 등 다양한 연령층과 이용객들의 취향을 아우를 수 있는 장서 보유

도서 주제로 편성된 프로그램이 아닌 책을 매개로 문화 · 일상 · 힐링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시민들에게 문화공유 및 체험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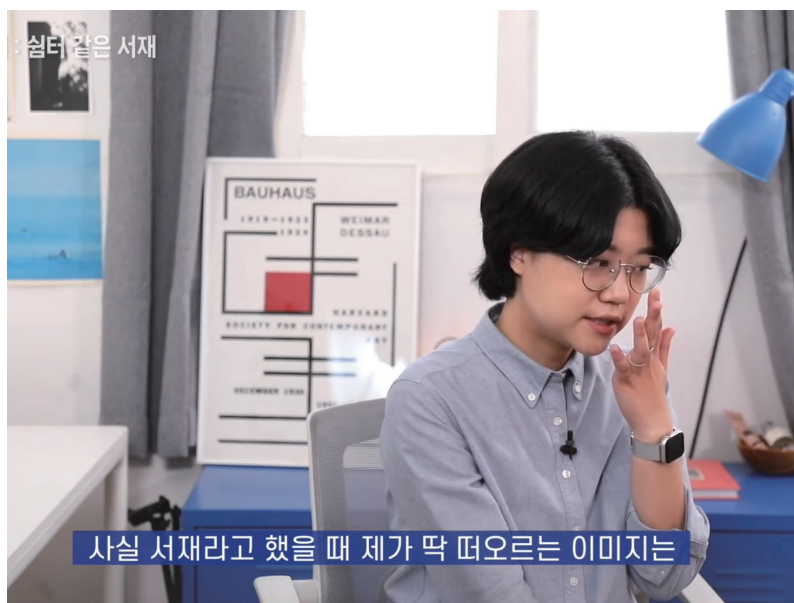
실무자 소회

[모두의학교팀 허태녕]

와
라

2020년 모두의책방은 코로나로 인해 상시 개방이 아닌 사전예약제로 운영되었습니다. 예약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담당자와 이용자 모두 낯설었지만 조금씩 모두의책방 활용법을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게 되어 더 의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의책방은 항상 시민분들을 위해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처럼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도서관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는 게 모두의책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에게 동화책이나 그림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같이 온 친구와 소곤소곤 대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책방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담당자와 함께 토론해볼 수 있으니 애착을 갖고 많이 이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 김 압

서울 평생교육의
내일을 위한 노력

3-3

동네배움터



[탐방] 위드 코로나, 동네배움터의 새로운 도약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위드(with) 코로나, 동네배움터의 새로운 도약

노원구, 도봉구, 성동구, 동작구
동네배움터 이야기



2020년 한 해는 전화위복의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에 코로나19가 번지기 시작할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올해 동네배움터 프로그램, 진행 가능할까?” 하지만 이런 고민이 무색해질 만큼 동네배움터에서는 씩씩하게 프로그램과 학습-실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라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던 산을 이제 with 코로나라고 외치며, 함께 잘 이겨내고 성장한 한 해였죠. 올해 동네배움터에서는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했는지 에피소드로 살펴볼까요?

노원구 나눔 동네배움터 - 비대면이 새로 나온 라면인가?

나눔 동네배움터의 어르신들은 공기 좋은 불암산 꼭대기에 오순도순 모여 사세요. 동네배움터 수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심조심 한의원 카페 공간으로 모이시곤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모이실 수가 없었어요. 수업은 계속 미뤄지고, 어르신들은 답답해하셨지만 노약자분들에게 특히 더 위험한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배움터로 초청할 수 없었지요. 그러던 중 다른 동네배움터들은 하나 둘씩 비대면을 시작했어요. 나눔 동네배움터는 스마트폰을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에게 비대면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실무자가 ‘전화영어’를 따라 하자며 ‘전화 인문학’을 제안했죠.

‘전화 인문학’은 강사가 미리 어르신들 댁으로 책을 택배로 보내드리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게 전화로 책을 읽어드리고 그 안의 인문학을 설명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르신께 비대면을 정성껏 대접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 과정을 통해 어르신들은 안전하고 다정하게 인문학을 배우실 수 있게 되었고, 강사와 봉사자들은 건강 안부도 여쭙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평소 거동이 불편하여 배움터로 나오지 못하신 어르신들도 인문학 수업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게 되었어요. 노원 동네배움터는 비대면 수업이 오히려 평생학습 취약계층에게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보고자 해요.

도봉구 쌍쌍랜드 동네배움터 - SNS에서 만나는 “근로기준법 덕분에 챌린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어려운 현실점에서 경계선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을 실시했어요. 다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다보니 프로그램을 듣는 청소년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잘 참여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어요. 다행히도 예상과 달리 순조롭게 온라인 수업 방식에 빠르게 적응하고, 높은 집중력과 질문을 통해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매 차시 학습자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온·오프라인 틀을 넘어서 다양한 접근법으로 학습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게 해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직업기초훈련을 학습한 후 직업에 대한 이해도 및 실전에 필요한 구직 훈련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모아 쌍쌍랜드 학습-실천프로젝트 “근로기준법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하였어요. 챌린지의 주제는 경계선 후기 청소년들이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하였고, 직장 생활에 필요한 내용들을 간단한 문구로 만들어 SNS를 통해 또래 집단 청소년들에게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참여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또래 청소년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 학습-실천 프로젝트 “근로기준법 덕분에 챌린지”

성동구 금호1가동·응봉동·성수2가제1동·성수2가제3동 - 일상을 나누는 이웃이 되다

성동구에서는 4개 동네배움터가 연합하여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고, 성동구 자원봉사센터는 인적자원을 공유하는 것으로 함께 학습·실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 79명의 봉사자가 9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1회 '비대면(전화) 인지돌봄(치매예방) 봉사'를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르신과 통화를 하며 인지 놀이와 더불어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만든거죠. 이 때문에 건강이나 생활의 문제 발생 시 방문간호사나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전달이 가능해 지역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했어요. 밴드에 올라오는 활동일지에는 봉사자와 어르신간의 애뜻함이 묻어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봉사에 뜻이 있어 모였던 학습자들에게 동네배움터 프로그램이 내가 사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노하우를 봉사단 밴드를 통해 서로 공유하며,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획의 시작부터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열심히 활동하시는 봉사자분들과 봉사자의 전화에 반가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동네배움터에서 시작한 이 프로젝트가 사람을 연결하고 마을을 연결해 주었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 봉사 활동일지

성동구 어르신들의 건강한 안녕	
통화일	2020. 11. 23 (월)
통화내용	어깨 주사. 물리치료. 눈에 염증이 생겨 안과 수술. 비강염의 비강염 수술
인지놀이질문	강정단어 (인어농력. 판단력)
특이사항	오래전에 어깨 힘줄 파열로 수술 한자리가 계속 아파서 병원을 내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술한 2단계 적상 발표에 어르신께서 무척
유쾌하게 있었어요. 노인정도 못가고 집에만
있으니 오늘따라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나신다
면서 잠시 눈물도 보이셨어요. 저는 어르신과
통화를 오래동안 하면서 자부들 이야기를 하시
면서 내일 댁. 아드님이 온다고 하시면서
유쾌하게 웃고 계셨어요.

➡ 인지돌봄 활동가 과정



동작구 꿈꾸는 동네배움터 -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코로나19로 검열하러 나오시는 직원분들한테 짜증도 내고, 화도 내는 등 소상공인분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나봐요. 주무관님이 고민을 토로하셨죠.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과정에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드릴 수는 없을까? 하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캘리그래피를 이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달력을 만들려고 써놓은 좋은 글귀와 그림을 이용해서 카드를 만들어보기로 했어요. 함께 극복하자는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캘리그래피 카드를 만들었고, 소상공인분들에게 카드와 따뜻한 마음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가진 재주를 활용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함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었어요.

→ 손글씨로 만든 코로나 극복 카드 제작



→ 소상공인에게 캘리그래피 카드 전달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한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이 원하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학습공동체 활동을 운영하는 등 서울 시민의 촘촘한 근거리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7개 자치구에 182개 동네배움터를 설치·지정하여,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전담 인력 동 평생학습 전문가 배치,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및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 학습·실천 프로젝트 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동네배움터 운영 자치구 및 서울시민
 - **사업기간** 2020년 4월~12월
 - **사업목적** 시민 누구나 생활권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동네배움터 운영·지원 및 동네배움터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① **동네배움터 선정·운영**(17개 자치구, 동네배움터 182개소)
 -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동네배움터 설치·지정
 - 포스트 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 사업 전담 인력인 동 평생학습 전문가(평생교육사) 배치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실천 프로젝트 활동 지원



② 지속가능한 성과관리 및 확산

- 동네배움터 현판 및 통합 홍보 리플렛·포스터 각 1종 제작·배포
-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업 사전설명회 총 2회 개최(계속지원 자치구/신규 자치구 대상)
- 자치구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자치구별 3회, 총 51회 지원
- 동 평생학습 전문가 역량강화 연수 총 6회 개최
- 사업 추진사항 협의를 위한 간담회 총 17회 개최
- 사업 성과공유회 1회 개최
- 사업 성과자료집 1종 제작·배포 등

사업성과

- ✓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동네배움터 182개 설치 및 지정
- ✓ 주민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1,144개 운영, 13,182명 이수
- ✓ 사업 전담 인력인 동 평생학습 전문가(평생교육사) 35명 배치
- ✓ 주민 주도의 학습-실천 프로젝트 354개 운영, 4,530명 참여
- ✓ 참여 학습자 만족도 : 4.62(5점 만점)

차별성

코로나 시대, 평생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동네배움터 운영

- 노원구의 나눔동네배움터 '전화인문학 프로그램' : 강사님이 전화영어에서 착안한 전화 인문학을 제안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화로 인문학 수업의 혜택과 건강 안부를 여쭙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용산구에서 장애인(뇌병변, 지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캘리그래피 수업을 진행하였고, 캘리그래피 재료 배부시 1:1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개별안내를 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주도형 동네배움터 운영협의체 운영

- 동네배움터에서는 동네배움터 실무자를 포함하여 학습자, 강사, 주민자치회 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협의체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 논의와 고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문제해결 과정에 반영되어 운영협의체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실무자 소회

[사업팀 최수희]

코로나19가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혼란스런 상황 속에서 17개 자치구 182개소 동네배움터에서 함께 고군분투하고 각자 역할을 다해준 한 해였습니다. 모두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도 자치구에서 잘 대처해주어, 학습자들이 동네배움터에서 끊김 없이 학습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사업은 1개의 사업이지만, 각 자치구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자치구의 지역적 배경 및 지역자원의 특성들을 살려서 유의미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17개의 사업으로 느껴집니다.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을 겪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기존의 것들을 바꿔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나은 발전된 모습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분명 어려운 수업일 거라 생각돼서 덜컥 두려움이 있었지만, 막상 시작하고 나니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었고 모든 게 끝나고 나니 한 층 발전한 제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송파구 학습자]

동네배움터와 함께한 지난 시간 동안 많은 시련과 도전의 순간이 있었지만 올해가 가장 고민되고 힘들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기에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였고 그렇기에 오늘 이 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도봉구 자치구 담당자]

올해 동네배움터는 제게 새로운 도전과 경험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갑작스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미술 실기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모두에게 생소한 환경임에도 즐겁게 참여해주시고 그림을 그리며 위안을 받는다는 분들의 말씀에 저 또한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성동구 강사]



삼 김 압

서울 평생교육의
내일을 위한 노력

3-4

청년인생설계학교



[인터뷰] 나는 우리만큼 깊어진다

청년인생설계학교 <베이직 코스>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젝트 코스>

청년인생설계학교 <워크앤라이프 코스>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정책 활성화 홍보 캠페인

청년 친화적 평생학습 기반 마련

인터뷰

나는 우리만큼 깊어진다

모두가 '나 혼자 산다'고 말하는 각자도생 시대, 청년인생설계학교는 '함께'에 밑줄을 긋는다. [연결과 사유의 방]에 모인 청년들은 함께 '나'에서 '세상'으로 몸을 기울인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는 나를 채우지만, 연결과 사유의 방에서 얻는 배움은 나를 깬다. 학교도, 직업도, 관심사도 다른 청년들의 삶이 닿는다. 만날 일 없었던 사람들이 만나면서 인생 설계의 지평이 한 뼘씩 확장된다. 연결 속에서 우리는 깨질 때마다 깊어진다.

김준한

청년인생설계학교 베이직 코스
[연결과 사유의 방] 길잡이



Interviewer

전아림(청년팀) - 이하 아림

아림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인 [연결과 사유의 방]은 인생 설계 주제에 대해서 매주 또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소그룹 활동인데요. 이곳에서 '길잡이'라는 이름으로 그룹에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길잡이의 역할에 대해서 직접 소개해주세요.

준한

길잡이는 [연결과 사유의 방]에서 전체적인 진행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하고요. 때로는 같이 참여도 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도 한 명의 청년으로서 저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아린

프로그램 이름이 곧 내용이기도 한데요. [연결과 사유의 방]에서 하는 ‘연결’과 ‘사유’는 어떤 의미인가요?

준한

청년들이 인생 설계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꼽은 2가지 핵심 키워드거든요. 연결과 사유. 흔히 공부라고 하면 도서관이나 독서실 같은 데 책상에 앉아서 혼자 하는 개념을 떠올리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은 여전히 그 틀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내가 혼자 헤쳐 나가야 되는 과업처럼 여기는데,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 속에서 새롭게 자신을 발견하고, 몰랐던 자신을 알게도 하고, 생각을 깨기도 하고, 그런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만의 과업으로만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결 되며 사는 것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사유라는 건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사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사유는 ‘깊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당연히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사유’하고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이 둘의 차이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인데, 연결과 동떨어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혼자서 인생 설계를 한다면, ‘생각’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유라는 것은 한 단계 들어간 생각이죠. 생각은 다양한 연결, 교류 속에서 더 깊어지거든요. 인생 설계를 할 때도 혼자 생각할 때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고민할 때 훨씬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유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연결과 사유의 방]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연결돼서 인생 설계에 대해 함께 사유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립

요새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나 혼자 산다’, 이런 걸 당연하게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도 그렇게 다루고. 그런데 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는 같이 해야 된다는, ‘연결’을 중심 가치로 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하

역설적으로 그런 것에 한계를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필요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듣고 나의 생각을 넓히고 싶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싶다, 교류하고 싶다.’ 이런 기대가 가장 크거든요. 미디어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건 전 세계가 경제 위기, 저성장 시대를 살아가면서 각박한 세상에 대한 걱정이 반영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경제적인 각박함이 사회문화적인 각박함까지 이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세상일수록 연결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립

‘연결’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사유’ 얘기를 해볼까요? [연결과 사유의 방]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주제를 7가지 제시하는데요. 자존감, 직업의 의미, 미디어, 미래 사회 등등.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했던 ‘사유’란 과연 뭘까요?

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성장할 때, 세간에서는 ‘채우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학습은 이만큼 해야 돼, 정보는 이만큼 얻어야 돼.’ 이렇게 채우는 쪽으로요. 하지만 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자기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연결과 사유의 방]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사유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깨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창시절에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대학에 간 다음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그게 성공이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실천해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기성세대는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고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왔어요. 어른들한테 다른 방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걸 존중해야 할 부분도 있고. 결국에는 지금 사회에 진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데요. 저라고 해서 해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다만 ‘나 또한 사회문화에 젖어서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인생 설계할 때 내 안에 또 ‘꼰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깨는 것이 중요해요. [연결과 사유의 방]에서 집중하는 것 중 하나가 흔히 말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 ‘왜 그래야 하지?’, ‘이렇게는 안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경험을 나누면서 자신을 깨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사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유를 통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삶을 살아가는게 아니라, 거기서 자유로워져 나만의 인생설계를 하는 것, 그것이 [연결과 사유의 방]에서 강조하는 사유인 것 같아요. **END**

청년인생설계학교 <베이직 코스>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내면의 힘을 키우는 곳, 청년인생설계학교 베이직 코스입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탐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래 청년들과 공감·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필요한 격려와 공감, 기회와 심을 담고 있으며, 또 서로 연결되어 인생 설계에 필요한 자기 자원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힘을 실어줍니다.

베이직 코스와 함께 한 청년들은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흔들림에도 버틸 수 있으며, 멈춰 있어도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 없이 다시 나아갈 힘을 길러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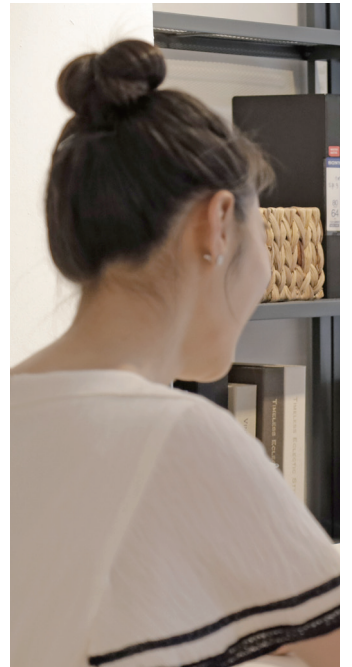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4세 청년 400명
- 사업기간 2020년 7월~11월
- 사업목적 자신과 세상에 대해 사유하고 탐구하는 다양한 기회 제공

사업내용

① 오리엔테이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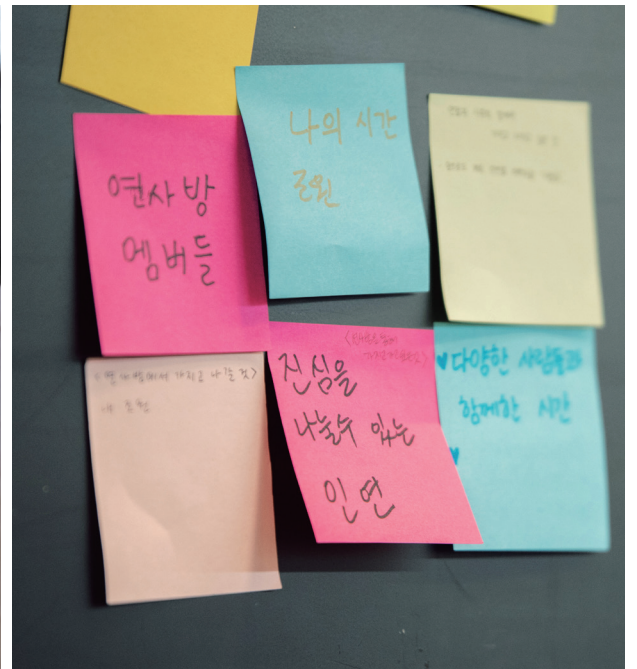
-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영상송출, 생중계 시행
- 베이직 코스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자 질의응답 실시간 소통
- 청년 감수성을 반영한 게임 콘텐츠 활용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② 통합 교육과정 개발 운영

- 공통 기본 가치 습득을 위한 사유, 탐구, 경험의 기회 통합 제공
- 프로그램 간 주제별 연계 운영을 통한 시너지 제고
- 베이직 코스 참여자 전체 대상 필수 8주 과정 온/오프라인 운영

회차	인문학 콘텐츠	진로탐색 워크숍	또래 그룹 커뮤니티
1	마음 치유	내 강점과 가치관 발견하기	인생 설계 동료와 첫 인사
2	당신은 누구인가요? (허지원 고려대 교수)	라이프스타일과 업무환경 발견하기	과거, 현재, 미래의 나 소개
3	관계에 대하여 (임경선 작가)	나만의 기준점 세우기	결혼, 연애, 가족에 대해 나누기
4	다양한 삶은 가능할까? (청년 활동가 3인)	진로 탐색 계획 구체화하기	다른 삶의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기
5	어떻게 일을 시작하고 지속할까? (이다혜 씨네21기자)	장기적인 진로 계획 세워보기	일과 나의 상관관계 들여다보기
6	내 마음의 위기와 소통 (윤대현 서울대 정신과교수)	-	청년의 우울감에 대해 나누기
7	미디어 똑똑하게 읽기 (정준희 한양대 교수)	-	내 생활과 미디어 연관 지어보기
8	포스트 코로나 함께 상상하기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	앞으로의 삶 함께 나누기



③ 다양한 경험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7개 선택 프로그램 운영

- 청년들의 기호와 선호를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 다회차/단회차, 입문/심화 과정 등 다양한 구성으로 참여 선택의 폭 확대

연번	키워드	내용
1	마음 치유	인문·문화예술학적 치유 프로그램(6회 연속)
2		나만을 위한 공감자와의 1:1 속마음토크
3	주거 정보	내 공간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워크숍(5회 연속)
4		자취, 플랜테리어 등 실용적인 주거 정보 특강
3	신체 활동	온라인 신체 진단, 맞춤 운동 설계와 PT
4	청년활동 사람책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청년활동가, 내 삶을 일로 만든 프리랜서와 소통
5	현직자 멘토링	인사, 경영, 캠페인, 브랜드 마케팅 등 현직 실무자와의 1:5 멘토링
6	취향·여가	랜선 미술관 투어, 펜드로잉, 명상 등 삶의 활력을 위한 소소한 취향의 발견
7	휴식과 전환	지친 나를 위해 위로를 선사하는 내 공간, 내 일상 속 요양(미션 수행 방식)

사업성과

- ✓ 다양한 청년 당사자, 교육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통합 교육과정 개발
- ✓ 연간 1,352명 지원, 500명 선발, 누적 12,132명 참여
- ✓ 총 11개 프로그램, 125회차 운영

차별성

서울시 청년 정책 중 대표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사업
(청년 누구나, 무작위 전산 추첨)

청년인생설계학교만의 특화된 교육과정 개발·운영

공공과 민간을 아울러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발굴해, 청년의 진로 모색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네트워크형 모델

적극적인 청년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발 빠른 반응을 통한 수정 보완

2018년 처음 문을 연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매해 조금씩 더, 청년들의 needs와 wants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변화와 고도화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새로운 도전이었고, 설레고 긴장하며 청년들의 반응에 귀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배우고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었음을 늘 뜨겁게 깨닫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던 청년들의 눈빛에 자신감이 차오르고, 함께한 청년 파트너들은 그들로부터 도약할 또 다른 힘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한 이들의 든든한 믿음을 바탕으로 더 멋진 내일의 청년인생설계학교의 문을 열 준비를 합니다. 어쩌면 청년인생설계학교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팍팍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격려와 위안이고, 기대와 설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청년인생설계학교 <베이직 코스> 참여자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우선시하고, 중요시하는지 나를 다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간. 나는 결국 새로움을 통해 내일을 향해 도전하고,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꿈 꿔 묵혀두었던, 말할 용기도 없었던 내가 자신을 알게 되고 나의 목표를 세상 밖으로 외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기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젝트 코스>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젝트 코스는 여건이나 환경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했던 일명 '숙원 사업'을 스스로 이룰 수 있게 도우는 사업입니다.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원하는 삶의 방향을 새로이 모색해 보는 탐색의 기회까지 제공합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자기 삶의 인터뷰어가 되어 원하는 삶을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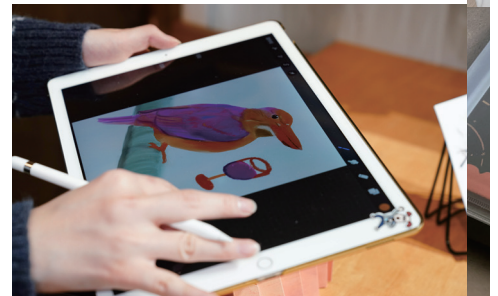
- 사업대상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4세 청년 45명
- 사업기간 2020년 7월~11월
- 사업목적 독립적 사고와 주도적 성취 경험의 기회 제공

사업내용

- ① 환경과 여건 상 도전하지 못했던 인생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② 원하는 삶의 방향을 새로이 모색해 보는 탐색 과정을 지원

사업성과

- ✓ 총 189명 지원, 45명 선발
- ✓ 1인당 수행비용 최대 3,000천원 지원 : 총 135,000천원 규모 지원금 지원
- ✓ 연간 소모임 총 150회 운영(모임별 월 2회, 총 15개 소모임)
- ✓ 연간 전체 참여자 네트워킹 모임 총 3회 운영



차별성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없어도, 주체적 도전정신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한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춤

또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청년들이 인생의 롤모델을 인터뷰하며 새로운 삶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신규 테마 도입

④ 노브라 패션 브랜드 런칭



④ 청년 불안 다이어리 제작



연번	제안팀	제안명
1	안녕 비건, 비건을 말하다	직접 실천해 본 비건 지향의 삶을 공유
2	영화미술 유튜브 만들기	내 자신의 새로운 역량 확인
3	환경생태학 그림에세이 만들기	새로운 분야에 도전
4	노브라 패션 브랜드 런칭	5년차 시각디자이너의 패션디자이너 도전
5	첫 에세이 독립출판	스스로 쓰고 그린 책 만들어보기
6	환경을 생각하는 핸드위빙 공방 창업	새로운 진로의 가능성 확인해보기
7	안달복달에게서 온 편지	청년불안 탐색 다이어리(문구류) 제작
8	나만의 제과제품 개발	제빵사로서의 가능성 확인해보기
9	음성해설이 포함된 움직임 영상 만들기	익숙한 감각 외 몸의 다른 감각에 몰입해보기
10	'Seasoning Your Life'	youtube 채널 기획 및 제작
11	뮤직비디오 제작	학교를 그만두고 나만의 자작곡 제작 시도
12	목가구 미니 전시회 개최	여건 상 하지 못했던 시도(가구 만들기)
13	공간 탐구 잡지 <하어> 창간	잡지 1호 창간을 통해 관심분야 탐색
14	사적 다큐멘터리 제작	영화 연출로 우울과 트라우마 극복하기
15	뮤직비디오 제작	스스로 하는 연출 및 감독 진행으로 역량 강화
16	반려식물X크리에이티브 굿즈 제작	반려식물을 통해 내 브랜드 만들기
17	'역사(驛事)' 콘텐츠 제작	서울 곳곳 지하철역 콘텐츠 제작하기
18	개인전 개최	내 20대를 돌아보는 전시를 만들고 내면 분석하기
19	'서른살의 내가 스무살의 나에게'	개인 음반발매 및 매거진형 책자 출판
20	드라마 작가 도전	드라마 제작과정 배우기
21	내 이야기를 담은 도서 출판	코로나19로 인한 휴직으로 새로운 분야 탐색
22	영상음악 작곡 도전	진로분야에 대한 역량 개발 및 진로 탐색
23	내 일러스트로 굿즈 제작	일러스트레이터 첫 도전
24	PD 도전	아빠와 함께하는 콘텐츠 제작 youtube 업로드
25	TEA 스타터 제품 제작	가업을 잇는 새로운 도전
26	나를 비우는 책 제작·전시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콘텐츠로 제작
27	'활활, 인생의 불씨 피우기'	eBook·동화책 형태의 작품집 제작
28	독립출판 인터뷰집 제작	각 분야 멘토를 인터뷰하며 다양한 진로 탐색
29	요리소개 콘텐츠 제작	청년들의 고민을 들여다보는 주제의 영상 촬영
30	내 인생 에세이 써보기	내 자신의 내면에 대해 들여다보기
31	동화책 출판하기	꿈꾸던 분야에 대한 도전
32	그림책 만들기	한 번 꼭 해 보고 싶었던 분야 도전
33	배우 되기	연기·아크로바틱 등 새로운 진로 설정
34	단편 애니메이션 스토리보드 완성하기	창작의 다음 단계를 달기 위한 발판
35	피아노 음반 제작	피아니스트의 자작곡 녹음 및 제작 도전
36	자작곡 음원 발매하기	학교 밖 청소년의 새로운 진로 탐색
37	나를 위한 나를 찾기	가장 해보고 싶었던 분야 도전하기

38	서울시 관광영상 제작	음악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 시도
39	독립출판 도전	가족 내에서 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단행본 제작
40	아름다운 세상 에세이 만들기	나 자신의 삶을 재점검하며 진로 탐색
41	전통주 소개 어플 개발	취미분야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탐색
42	연극 제작	가족과 연극 제작, 원활한 의사소통 방식 학습
43	드로잉 수필집 출간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방법 전달
44	그림책 독립출판 도전	평소에 도전해보고 싶었던 새로운 시도
45	댄스필름 만들기	간호사의 '무용 행위자' 도전

실무자 소회 [청년팀 홍슬비]



<프로젝트 코스>의 대면 심사는 ‘열린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사위원과 참여자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소통하는 형태입니다. 동그랗게 모여앉아 자신이 지금껏 살아온 삶에 대해서 편히 소개하게 되는데, 이미 이 도입부에서부터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터뜨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일반 기업의 면접 자리였다면, 면접자가 눈물을 보이는 모습은 큰 감점 요소가 되어 대면에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년인생설계학교의 프로젝트 코스는, 오히려 지원서 너머에 담긴 청년 개인의 절실한 희망에 주목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선발된 청년들은 또래 청년들의 피드백과 함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약 5개월 간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야기하는 청년들 중에서도 더욱 열정적인 청년, ‘청년인생설계학교에서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더욱 귀 기울여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

불철주야 땀 흘리는 참여자들의 모습에서, 한 개인의 삶을 벅차게 하는 순간은 결국 스스로 이뤄내는 성취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프로젝트 코스는 마음 한켠에 고이 접어두었던 소중한 희망을 다시금 꺼내어볼 수 있게 도우는 ‘따뜻한’ 사업이라고 돌이켜 보게 됩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청년 개개인을 보고, 그 청년 자체를 지원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공이나 분야를 다 떠나서 사람 개개인의 가능성, 잠재력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개개인의 역량은 자국을 주면 줄수록 키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곳은 금전적인 부담은 덜어주면서 사람 자체의 잠재력을 끌어내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젝트 코스> 참여자]

청년인생설계학교 <워크앤라이프 코스>

청년인생설계학교 워크앤라이프 코스는 청년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즐겁게,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일과 삶의 조화를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멘토와 함께 권역별로 활동 공간을 설정하여 주별 소모임을 가지며 워라벨 전략을 세워보고, 비슷한 또래들과 일 경험 이야기를 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일상의 활력을 돋우기 위해 다채로운 내용의 교양 활동(원데이클래스)을 진행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여, 일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일하고 있는 만19~34세 청년 100명
- **사업기간** 2020년 7월~11월
- **사업목적** 오래 더불어 일할 수 있도록 일과 삶의 조화와 균형 독려

사업내용

- ① **‘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테마로 권역별 정기 소모임 활동 운영**
 - 전문 퍼실리테이터의 강의와 더불어 직장 내 인간관계·갈등관리 방법과 관련한 고민 등을 나누는 시간으로 구성
- ② **일상에 활력을 주는 원데이클래스 제공**
 - 그림그리기, 명상, 랜선 투어 등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대면/비대면 취미활동 병행





사업성과

- ✓ 총 624명 지원, 총 100명 선발(학기당 50명)
- ✓ 총 3개 커뮤니티 운영 및 지원
- ✓ 소모임 활동 총 58명 수료, 연간 누적 참여 559회
- ✓ 원데이클래스 활동 연간 누적 참여 1,159회

차별성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며 일 경험에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직장인들의 비율이 높은 곳 위주로 선정한 3개 권역별 소모임 운영으로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

소모임 당 10명 이하 소규모 운영으로 그룹별 맞춤형 지원

생활속 활력을 돕기 위한 취미/교양 활동 제공으로 참여자 간 네트워크의 장 마련

<워크앤라이프 코스>는 건강하게 오래 일하는 삶을 위한 청년들을 위해 2020년 처음으로 시도한 직장인 갭이어 프로그램입니다. 공고문 홍보 문구로 “회사 욕을 하고 후련한 마음도 잠시 뿐, 당장 내일도 마주해야 하는 모니터, 사실 나는 더 잘 살아 보고 싶습니다.”라고 공들여 썼었는데, 첫 소모임 시간에 이 문구를 보고 지원하고자 마음먹었다는 참여자들이 꽤 많아 신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한 주 동안 족히 52시간 이상을 회사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보내는 회사에서 마이너스 감정보다는 플러스 감정을 가져보자는 바람, 내면 성찰이라는 말이 너무 무겁다면 ‘나답게’ 일하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도를 담아 학기당 총 8주씩 총 100명의 청년들을 상대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니기 싫은 회사를 찾김에 때려치운다면 시원한 해방감은 잠깐 가질 수 있겠지만, 인생에 대단한 해답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 삶은 나에게서 완성되므로, 계속해서 내 삶에 나 자신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야 합니다. 주마다 모인 청년들은 일 환경에서 부드럽게 커뮤니케이션하는 법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지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며 공감을 받고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활동은 난이도 있는 삶의 터전, ‘직장(또는 일 환경)’에서의 경험에 조그맣지만 중요한 열쇠가 되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저 역시 혼자 스스로 해결하는 성향이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일이든 뭐든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끙끙 마음 앓지 말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걸 같이 털어놓고 나 역시도 누군가를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해봤으면 좋겠다. [워크앤라이프 코스]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청년인생설계학교 <워크앤라이프 코스> 참여자]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를 통해 제안된 『청년실행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청년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시민 참여 투표에 의해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2020년 우리 진흥원을 통해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로 더욱 구체화 되어 추진되었습니다.

청년 친화적 평생학습 구현을 위해 구성된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는 다양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20명의 청년이 모여, 청년의 시선에서 평생교육을 다각적으로 탐구하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청년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에서 생활하는 만 19-34세 청년 20명
 - 사업기간 2020년 6월~11월
 - 사업목적 청년 참여를 통한 청년 친화적 서울 평생학습 기반 마련



사업내용

① 청년위원 모집·선발

-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실시
- 관심 영역에 따라 3개의 활동 팀 구성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위촉장 수여
- 청년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사전 교육 2회 실시

회차	일정	교육내용	강사 및 진행자
1	06.20.(토)	- 서울 평생학습 실태 및 청년 친화적 평생교육 구현의 필요성 - 시민교육 및 청년정책 제안 활동의 이해	이경아 기획조정국장 한재윤 '시민되다' 대표
2	06.27.(토)	- 청년 친화적 평생교육 구현을 위한 주제 발굴 및 의견 공유 - 액션비기닝을 통한 관심 영역별 활동 팀 구성	윤석권 청년정책 발의자



② 월별 팀 활동 및 정기 워크숍 운영(7~10월)

- 팀별 정책 제안을 위한 탐구, 숙의 및 토론 활동
- 정기 워크숍을 통한 팀별 활동 내용 공유 및 상호 피드백
- 청년위원들 간 친목 도모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③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주관 정책 포럼 개최

- 슬로건 : '평생교육, 청년의 []을 만나다'
- 일 자 : 2020년 11월 28일(토)
- 장 소 : 서울 하우징랩 /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 참석자 : 청년위원 및 운영진 등 30여명 / 유관기관 관계자 및 시민 65명 온라인 참여
- 주요 내용 : 활동 경과보고, 정책 제안 발표, 종합 토론, 시민참여 Q&A, 우수위원 표창
- 제안정책

연번	제안팀	제안명
1	BBAUM	청년형 서울 평생배움 플랫폼 Re-Invent
2	시.청.자.	지속가능발전 세계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안
3	청년공:감	공.평(공간+평생학습)한 청년친화 공간 제안

사업성과

- ✓ 1기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발족
- ✓ 청년위원 20명 위촉, 3팀으로 구성 운영
- ✓ 청년위원 역량 강화 교육 2회 실시, 출석률 100%
- ✓ 월별 팀별 워크숍 33회, 정기 워크숍 8회 추진, 출석률 99.4%
- ✓ 개인별 활동 보고서 85건, 팀 종합 보고서 15건 수합
- ✓ 청년 친화적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정책 아젠다 3건 도출
- ✓ 정책 포럼 온라인 생중계 영상 누적 조회수 415회(2020. 12. 15. 기준)

차별성

필요성을 느낀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제안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정책 사업

평생교육 정책 제안 과정에 청년 참여 기회 제공

청년주도적 평생교육 조사·연구·제안 활동 지원

실무자 소회

[청년팀 김혜연]



2020년 처음 추진된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운영 사업은 평생교육 청년 파트너를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이 함께할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지 또 우리들의 결과물은 어떠할지 기대가 컸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충만한 열정을 가진 20명의 청년위원은 어제 만난 사이지만, 오래 만난 사이처럼 친근하게 소통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며 평생교육을 탐구해 나갔습니다. 처음이었기에 서툴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 또한 배움과 성장의 시간으로 생각하였기에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의 첫배를 잘 띄울 수 있었습니다.

청년 친화적 평생학습 정책 탐구 모임은 지속해서 연계 운영되며 더욱 심화하고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과 노력이 청년들에게 또 서울 시민들에게 비빌 언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청년위원이 말하는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는 ‘○○○’이다.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는 ‘청년 맞춤형 종합평생학습 패키지’이다.
청년의 바람을 정책제언으로 도출해내기까지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 경험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는 ‘또 하나의 평생교육’이다.

자신이 속한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활동을 수행하면서 또 다른 배움을 얻고
경험을 쌓는 평생교육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정책 활성화 홍보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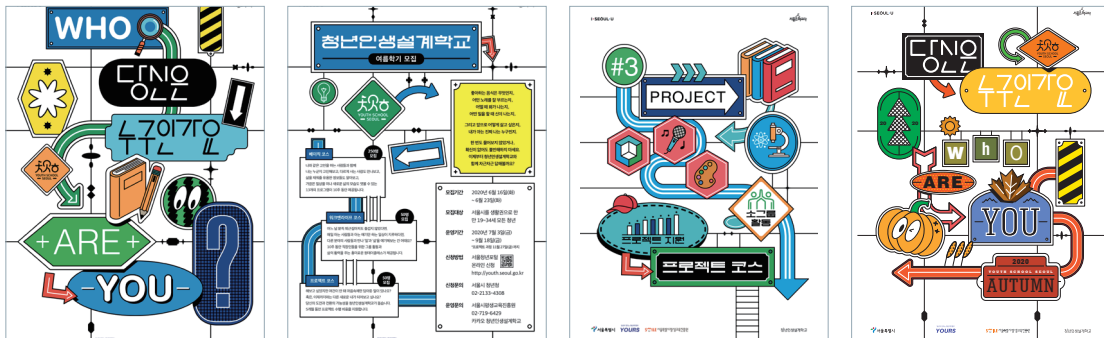
청년들이 나답게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함께 배우는 '청년인생설계학교'를 알립니다.

여름학과 가을학기 참여자를 모집하고, 활동 아카이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청년인생설계학교를 홍보합니다. 다양한 세대가 청년의 삶에 공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서울 청년 및 일반 시민
 - **사업기간** 2020년 3월~12월
 - **사업목적**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참여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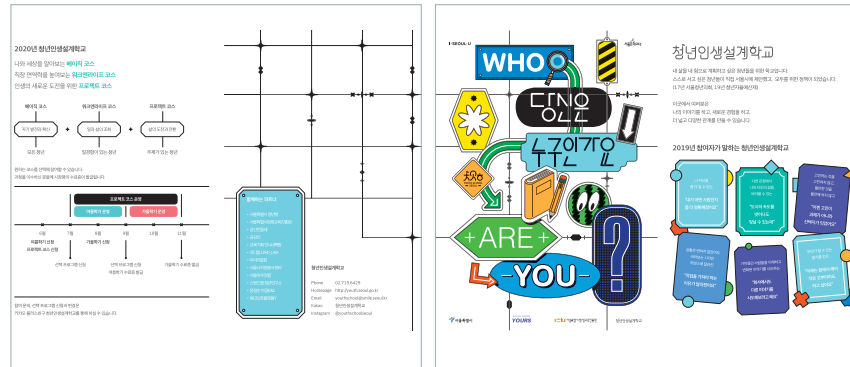
- 사업내용 및 사업성**
- ① **참여자 모집 홍보** : 연간 2,165명 지원
 - 2020년 청년인생설계학교 키메시지 및 통합 디자인 개발

당신은 누구인가요?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어떤 노래를 잘 부르는지,
 어떤 때 화가 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신이 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아는 진짜 나는 누구인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거나, 확신이 없어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청년인생설계학교와 함께 차근차근 답해볼까요?



➔ 연간 통합디자인, 여름학기 포스터, 코스별 디자인, 가을학기 포스터(왼쪽부터)

→ 2020년 프로그램
안내 리플릿



- 언론보도 37건

구분	배포일	게재 건수	주요 언론사
여름학기	06.12.(금)	16건	서울경제, 연합뉴스, 뉴시스 등
가을학기	08.18.(화)	21건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오마이뉴스 등

- 버스 모니터 광고 : 300대, 총 15개 노선, 일 100회 표출



- 온라인 모집 홍보 : 서울시 보유 매체, 자체 보유 SNS 등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청년포털 메인 배너



→ <내 손안에 서울>
'나만 몰랐어,
서울청년지원사업'
기획기사 7건



구분	배포일	제목
1	08.10.(월)	갈림길에 서 있나요? '청년인생설계학교'로 오세요
2	08.11.(화)	'내가 잘하는 게 뭘까' 고민될 때...청년인생설계학교 똑똑!
3	08.12.(수)	당신은 누구인가요? 청년인생설계학교
4	08.28.(금)	"고민은 멋진 것, 즐거운 것, 모험 같은 것"
5	08.28.(금)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자에서 운영자가 될 만큼 빠졌어요"
6	08.28.(금)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청년인생설계학교
7	08.31.(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경험, 함께 하실래요?



→ 청년 친화적 매체 SNS 광고

구분	배포일	매체명	실적
1	06.10.(수)	대학내일 페이스북	총 도달 132,175회, 클릭수 5,444건
2	06.10.(수)	아웃캠퍼스 배너, 공지글	조회수 26,685회, 페이지뷰 56,171회
3	06.10.(수)	아웃캠퍼스 콘텐츠	총 도달 19,462회, 클릭수 1,295건
4	06.10.(수)	20대워라지 페이스북	좋아요 229개, 댓글 110개, 공유 133회
5	06.16.(화)	직장내일 페이스북	총 도달 128,421회, 공감 324건
6	08.18.(화)	대학내일 페이스북	총 도달 178,134회, 클릭수 5,763건
7	08.18.(화)	아웃캠퍼스 배너	조회수 29,074회, 페이지뷰 68,117회
8	08.18.(화)	에브리타임 배너	노출수 2,115,112회, 클릭수 8,977건
9	08.18.(화)	직장내일 페이스북	총 도달 156,751회, 클릭수 4,309건
10	08.20.(목)	직장내일 인스타그램	총 도달 310,343회, 공감 1,979건

② 프로그램 운영 아카이빙

- 카드뉴스 63종 제작, 동영상 5종 제작 및 배포

→ 프로그램 아카이빙 카드뉴스





→ 프로그램 아카이빙 동영상 콘텐츠

- SNS 채널 운영 (2020. 12. 14. 기준)

연번	분류	팔로워	운영 성과
1	페이스북	994명	총 도달수 778,925건, 공유수 1,259건
2	인스타그램	2,085명	총 노출수 95,479건, 총 도달수 77,027건
3	카카오채널	2,450명	총 조회수 8,053건, 총 방문자수 4,470건
4	유튜브	192명	총 조회수 26,732건, 총 노출수 57,614건

③ 정책 확산 캠페인 전개

- 해피빈 캠페인 : 사회공헌 연계로 사업에 대한 전 세대 공감대 형성을 도모
- 조회수 203,399회, 클릭수 207,723건, 댓글 수 9,405건
- 참여형 이벤트 : 일반 시민 대상 정책 인지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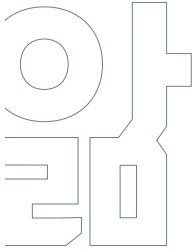
→ 캠페인 페이지 화면,
네이버 메인 홍보



④ 활동기록집 제작

- 참여자, 운영 파트너, 전년도 참여자 등 다양한 주체의 관점에서 활동을 기록





2020년 1월, 서울시는 ‘공정한 출발선’을 위해 4개 중점 사업을 선정했고 이 중 청년인생 설계학교도 포함되어 전년보다 2배 이상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에게 청년인생설계학교가 닿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곳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러 매체를 발굴했고 청년이 아닌 세대도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많은 참여자를 만나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자 노력한 해였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사회공헌 캠페인 피드백

서울 시민들 부럽네요. 내 적성에 대해 아직도 모르겠고 답도 없이 앞이 캄캄하게만 느껴지는데, 저런데 참여해서 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성세대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청년이 되었지요. 지나간 시간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 세대는 조금 다르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에는 너무 경쟁적이고 수많은 sns를 확인하는 세대...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른 사람의 시각이 아닌 스스로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내 손안에 서울> 대학생 시민기자

청년인생설계학교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참여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수정과 기획을 반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한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이 사업을 맡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청년팀 직원들의 자세도 인상적이었다. 청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인생의 고민과 진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면, 혼자 끙끙 거리지 말고 ‘청년인생설계학교’의 문을 두드려 보자.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랄 것이다.

청년 친화적 평생학습 기반 마련

청년인생설계학교가 더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집니다. 사업의 토대가 되는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청년의 특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합니다. 서울 내외 여러 청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에서 얻는 아이디어와 참여자의 피드백을 통해 사업 개선에 활용합니다. 원활한 참여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년 3월 ~ 12월
 - **사업목적** 운영 기반 마련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사업내용 및 사업성과**
- ①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지표 개발**
 - 정책 효과 평가 및 정책 특수성을 반영한 표준 성과지표 설정
 - 가을학기 참여자 대상 시범 분석 : 자기이해도 상승률 최대(21%)
 - 7개 지표 중 '정서적 안정', '자기이해도', '자기수용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응답 차이 검증



지표명	문번	문항 (7점 리커트 척도)
A. 정서적안정	A1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행위도 충분히 가치 있다
	A2	나는 온전히 휴식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A3	나는 무엇이란 걸리지 않아도 괜찮다
	A4	나는 잠시 쉬어 갈 마음의 여유가 있다
B. 자기이해도	B1	나는 내 성격의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있다
	B2	나는 나의 신념(가치관, 삶의 목표)을 명확히 알고 있다
	B3	나는 나의 적성(특기, 잘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B4	나는 나의 흥미(좋아하고 관심있는 것)를 명확히 알고 있다
C. 자기수용도	C1	나는 남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C2	나는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C3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다
	D1	나는 병이 없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
D. 자기효능감	D2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D3	나는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다
	D4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D5	나는 쉽게 고립되지 않는 강한 체력을 가졌다
E. 외부 자극 대처	D6	나는 내기 목표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
	E1	나는 다른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E2	나는 어떤 상황에 대해 현명하게 잘 판단할 수 있다
	E3	나는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
F. 진로성숙	E4	나는 어려움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는다
	E5	나는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F1	나는 새로운 분야에도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한다
	F2	나는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배우고 있다
G. 표현과 소통	F3	나는 하고 싶은 것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고 있다
	F4	나는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F5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본다
	G1	나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G2	나는 고민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G3	나에게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G4	나에게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
	G5	나에게는 좋은 자극이 되는 동료가 있다
	G6	나에게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G7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 ② **참여자 이력 관리 및 특성 분석**
 - 프로그램 자율 설계 지원, 참여자 이수율 관리, 수료증 발급 등
 - 참여자 사전/사후 조사 및 분석 : 학기별 조사
 - 참여동기 : 자신에 대한 성찰과 탐구(여름27.5%, 가을33.9%), 진로에 대한 고민 공유, 일상의 새로운 경험 순

- 기대요소 : 개인 목표 설계 가능성(여름35.5%, 가을40.6%)
- 전반적 만족도 : 여름 79.8%, 가을 84.3%가 긍정평가
- 프로그램 참여 결과 타인과 소통 및 교류(여름23.6%), 개인 목표 설계(가을 32.9%) 향상
- 사업 참여 결과 '불안감' 감소(여름 31.3%→22.5%),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상승(가을 37.5%→50%)
- 사업 추천의사 : 여름 82%, 가을 88.6%
- 참여 후 서울시의 청년 기여도 긍정 평가(67.6%→83.1%)
- 참여를 통한 서울시 청년 정책 호감도 상승(여름85.4%, 가을84.3%), 향후 기타 정책 참여 의향(여름78.7%, 가을 74.3%)

③ 참여자 소통 창구 마련

- 1:1 상담 실시 : 수강 관련 문의, 불편 사항 청취 등, 카카오톡 채널 활용
- 참여자 의견 수렴회 실시 : 참여자 총 52명, 그룹별 10회 개최

구분	배포일	참석자
1	09.22.(화)	베이직 코스 참여자 4명
2	09.23.(수)	워크앤라이프 코스 참여자 5명
3	09.24.(목)	베이직 코스 참여자 2명
4	11.28.(토)	워크앤라이프 코스 참여자 4명
5	11.28.(토)	청년위원회 참여자 4명
6	11.28.(토)	프로젝트 코스 참여자 3명
7	12.02.(수)	베이직 코스 참여자 11명
8	12.03.(목)	베이직 코스 참여자 12명
9	12.09.(수)	프로젝트 코스 참여자 3명
10	12.10.(목)	프로젝트 코스 참여자 5명

의견 수렴 예시

여름학기 베이직 코스
참여자 대상

* 베이직 코스의 통합과정 스케줄 적합 여부

- 운영 시간이 고정되어 있어서 더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음
- 다른 일정을 조정하고, 청년인생설계학교 참여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 A반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이 하루에 있어서 흐름을 잡기 좋았다

* 통합과정 필수 이수에 대한 의견

- 모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고 느꼈고, 강의 간 밸런스와 각각의 내용에도 만족
- 흐름이 좋았고 나에게 좋은 습관을 가져다 준 것 같음
- 나 혼자 생각하다보면 답을 내 안에서만 찾으며 고립되는데, 여러 사람의 피드백을 듣는 구조여서 좋았고 이런 측면에서 모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느낌

④ 참여 독려 행사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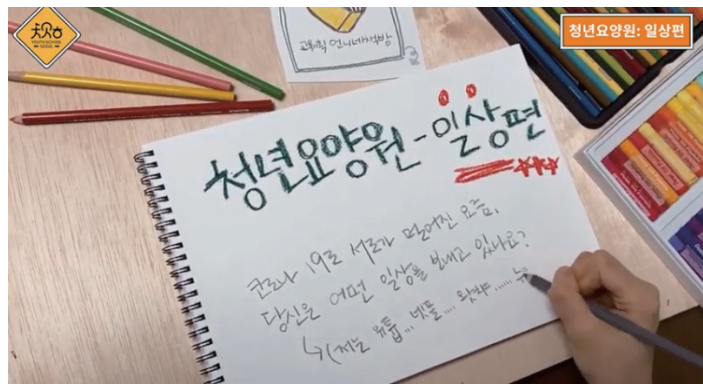
- 베이직 코스 오리엔테이션 개최 : 동기 부여, 세부 내용 안내, 실시간 질의응답
- 프로그램 안내 및 동기부여를 위한 사전 온라인 이벤트 실시
- 프로젝트 코스 사전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⑤ 운영 품질 관리를 위한 협의체 운영

-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목적 :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활성화 제안
 - 구성 : 유관 기관 관계자, 청년 정책·교육 분야 전문가 등
 - 운영 : 총 12회 개최(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별회의 개최)
 - 내용 : 운영 경과 공유 및 제안, 차년도 운영 관련 제안 등
- 청년인생설계학교 실무협의회 운영
 - 목적 : 프로그램 품질 관리, 코로나19 대응 방안 논의 등
 - 구성 : 프로그램 추진 협력 단체 실무자
 - 운영 : 총 2회 개최
 - 내용 : 온라인 운영 전환 방안, 방역 관리 방안, 운영 개선사항 등
- 유관 기관 관계자 자문
 - 목적 : 사업 운영 방향 및 세부 추진 관련 자문
 - 구성 : 청년 정책·교육 분야 전문가
 - 운영 : 총 3회 개최
 - 내용 :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운영 방안 논의 등



➔ 여름학기 안내 영상, 가을학기 OT 생중계 및 참여자 실시간 피드백



➔ 프로그램 vlog, 프로그램 찾기 테스트 및 이벤트 참여 결과

⑥ 서울 청년 평생학습 실태 및 요구조사

- 서울 시내 청년 평생학습 운영 사례 조사

- 대상 : 자치구 평생학습관, 진흥원 운영기관, 서울시 청년기관 등
- 내용 : 3년 간 프로그램명, 교육대상, 교육기간·시간, 참가비용, 인원 등

- 서울 청년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요구 조사

- 대상 : 서울 시민 중 만 19~34세 청년 800명
- 내용 : 평생학습 인식, 평생학습 기관 이용 실태, 프로그램 선호도 등

- 자치구 평생학습관 실무자 사례 조사

- 대상 : 5개 자치구 평생학습관 종사 실무자
- 내용 : 청년 관련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련 의견



운영 3년차를 맞아 청년인생설계학교에는 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 서울청년시민 회의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갭이어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과, 청년이 직접 평생교육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0년 시 중점 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 규모가 대폭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청년의 주체성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인생설계학교에 대한 높은 관심은 역설적이게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청년의 삶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무게를 느끼며 운영에 임해왔습니다. 더 넓고 촘촘하게 사업을 꾸려야 한다는 부담감과 예기치 못한 팬데믹에도 최고의 팀워크를 동력 삼아 추진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없을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공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 선입견이 있었고, 큰 기대 없이 참여하게 되었다. 실제로 참여해보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참여자 한명 한명을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경험이어서 공공의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큰 호감을 갖게 되었다.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참여자]

특히 청년인생설계학교가 운영자들에게도 참여자들에게도 안전한 터가 됐던 것 같아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같이 적응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때보다 더 연결의 가치를 실감하고 있죠. 어딜 가도 다 고생하고 있고, 이 챌린지에 적응하고 있고, 각자 어떤 솔루션을 내면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지를 들으면서 서로 더 응원하는 마음이 되고, 이 시기가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청년인생설계학교일 뿐만 아니라 운영자 학교인 것도 같네요.

[청년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파트너]

삼 김 압

서울 평생교육의
내일을 위한 노력

3-5

문해교육센터



[특별기획] 늦게 배웠다고
천천히 배워야 할 이유는 없다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특별기획

늦게 배웠다고 천천히 배워야 할 이유는 없다

문종석

푸른어머니학교 교장



벌써 재작년이 되어버린 2019년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한국의 문해학습자들과 일본의 문해학습자들이 모여 문해-식자학습자교류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학습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에게 늦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들을 비슷한 배경과 현황으로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나라는 오래전부터 문해-식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기관담당자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학습자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여 교류해왔다. 읽고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국적이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관없이 그 처지가 비슷했다. 이번 학습자교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의 학습자들이 직접 만나 교류를 하고 자신들이 겪어냈던 상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토론하고 그것을 선언문으로 만들어가는 자리를 가졌다. 한국은 학습자의 수가 자국민이 대부분이었다면 일본은 전쟁과정에 생겨난 오래된 이주민(재일한국인, 재일중국인 등)과 최근 증가한 새로운 이주민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서로가 겪어왔던 과정을 이야기하는 현장에서는 마치 서로가 한 공간에서 살아왔던 것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며 깊은 공감을 이루었다. 말하고 듣기를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읽고 쓰지를 못하는 처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아픔을 공감하였고, 늦은 기회를 통해 학습을 시작한 후 단지 글자의 배움의 문제가 아닌 삶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상황까지 같았다. 안타깝지만 그 늦은 배움의 기회를 확보해나가는 것마저도 편안하게 제공받지 못하고 스스로 당당하게 문제제기하고 요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얻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언어가 다른 학습자들이 스스로 토론을 하여 공동의 선언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상황을 의심했던 관계자들의 기우를 무색하게 만들만큼 학습자들은 늦은 학습의 상황에서 이미 세상의 주인공으로 성장해 있었다.

2019년 9월 한국에서는 그 결과를 가지고 한-일 문해교육 국제심포지엄이 열렸고 한.일문해학습자 공동선언문이 채택되어 낭독되었다. 이 선언문의 본래의 제목은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지 못했던 글,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였다. 교류회에 참가한 한 학습자의 토론에서 나온 말을 직접 옮겨온 것으로 역설적으로 읽히기도 하는 저 말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늦게 제공받은 기초교육은 국가가 제공해야 할 기본권인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기초교육을 제공받아야 할 공통의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 기회는 영구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 리임을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더구나 지금의 학습자들은 그 기초교육을 제공받지 못한 것이 국가적인 책임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식자교육(문해교육), 이주민(다문화가정), 장애인교육, 탈학교아이들을 포함하는 교육소외계층들에게 교육기본권 확보를 위한 교육 기회확보법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교육등의 환경정비 추진에 의한 학습기회 충실에 관한 법률」 약칭의 입법운동을 전개해 2016년에 법률이 제정되었다. ‘기초교육보장학회’의 설립 등 의무교육의 구체적 확대를 위한 행동들을 전개하는 움직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 안에 포함되어있는 통합법이 아니라 단독의 ‘문해기초교육법’이 필요하며 나아가 “문해·기초교육학회”를 설립하여 문해교육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전 움직임들이 뒷받침 될 때 교육현

장은 학습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제적인 꿈들이 실현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문해기초교육법의 단독 제정 요구이다. 성인문해교육, 장애인문해교육, 이주민한국어교육, 탈학교청소년 시기를 지난 성인 등에게 제공되어야 할 기초교육의 과제를 의무교육 제도의 관점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기초교육의 의무를 전 연령, 전 대상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원제도가 아닌 기초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에 대한 문해·기초교육을 지원하는 국가적 제도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¹⁾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정보의 양극화를 초래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낮은 배움을 시작하고 있는 학습자들에게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문해교육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교육이다. 이 기초교육이 바탕이 되어야만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필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무교육으로서의 기초교육과제가 보다 광범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시급히 법과 제도가 정비되고 인프라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늦은 배움을 시작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학습자들의 기본권리와 희망에 이제 먼저 배운 이들이 응답해야 할 것이다.

늦게 배운 것도 서러운데 천천히 배울 수는 없는 것이다. **END**

1) 한국문해교육의 현황(편집·발행 : 한·일기초교육공동프로젝트/전국문해·기초교육협의회[한국]. 2019) 77P 한국문해교육의 과제-문종석 인용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 사업은 서울지역에 체계적이고 폭넓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첫째, 서울지역 문해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체계 구축 연구, 연수 운영 등을 통해, 서울시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해교육 교강사의 역량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관내 문해교육기관·단체에 교육 및 행정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영세한 문해교육기관의 운영을 돕고 학습자에게 질 높은 문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전문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자동화 및 무인화 환경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생활문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대상** 관내 문해교육기관 및 문해교육 관계자
- **사업기간** 2020년 1월 ~ 12월
- **사업목적** 서울형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진행을 통한 생활 밀착형 문해교육 확산 및 관내 문해교육기관 전문인력 지원과 문해교육 교강사 역량강화를 통한 안정적 문해교육 환경 조성

사업내용

❶ 서울시 문해교육 교강사 역량 강화

-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 총 67시간 연수 운영(집합교육 52시간, 현장실습 15시간)
- 서울형 생활문해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수
- 서울의 대중교통, 서울의 문화예술, 지구를 지키는 환경보호
- 서울시 문해교육 교강사 보수교육 운영
- 문해교육 강사 역량개발 모형 및 교육체계 구축 방안 연구

❷ 서울시 관내 문해교육기관 전문인력 지원

- 문해교육 매니저 선발 및 운영
-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 강사 운영
- 기관 지원형 / 학습자 지원형
- 문해교육 강사풀 관리 활용

❸ 서울형 디지털 생활문해교육 운영

- 체험형 디지털 문해학습장 운영
-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양성(서울시50플러스재단 연계)
- 서울형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사업성과

- ✓ 초등과정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30명 이수
- ✓ 서울형 생활문해교육 콘텐츠 3종 개발
- ✓ 온라인 보수교육 2회 운영
- ✓ 역량개발 모형 및 교육체계 개발(1식)
- ✓ 문해교육 매니저 9명 선발 및 7개소 배치, 운영
- ✓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 강사 운영
 - 기관 지원형 : 4개 기관에서 총 57시간 규모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학습자 지원형 : 문해학습자 152명 대상 비대면 문해교육 학습꾸러미 제작 배부
- ✓ 체험형 디지털 문해학습장 7개소 지정, 운영
- ✓ 디지털 문해교육 강사 33명 양성
- ✓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30회 운영



차별성

서울시 문해교육 교강사 보수교육 운영

코로나19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집합교육이 어려워진 현재, 문해교육 관계자가 온라인 자율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USB 및 유튜브를 통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 강사 운영

(기관 지원형) 기존 개설된 프로그램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문해교육 수요를 수렴, 문해학습자가 희망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습자 지원형) 문해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학습꾸러미 방식의 비대면 문해교육 콘텐츠를 제공, 지속적인 문해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서울형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디지털 환경 속에서 문해학습자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문해학습자가 거주하고 있는 생활 근거리 디지털 문해학습장 지정을 통한 디지털 문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실무자 소회

[정책홍보팀(문해교육센터) 민병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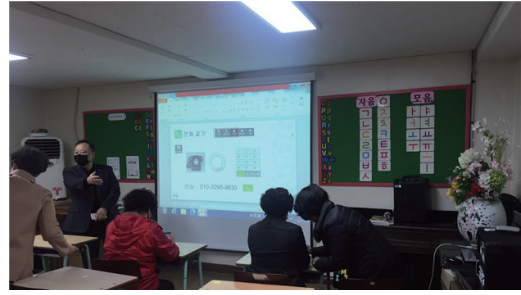
걸음을 시작한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2019년 11월, 문해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이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로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문해교육 교원 양성연수 및 역량강화, 문해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는 오늘도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대도시 서울에 맞춘, 서울형 문해교육 운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고속화, 디지털화, 스마트 및 무인화 등 항시 급변하는 대도시 서울 환경에 적응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진 현재,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는 문해학습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문해교육을 제작·기획·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의 한마디

이제는 자식들이 보낸 휴대전화 문자도 읽을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할 때마다 걸어서 30분 거리를 운동 삼아 오는데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찾아가는 서울 문해학교 참여자(기관 지원형) 전경자 어머님]

한평생 글자를 몰라 설움과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지만 이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

[찾아가는 서울 문해학교 강사 참여자(학습자 지원형) 윤순분 어머님]

함께하는 사람들

2020년 조직 구성



부서명	업무내용	
경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흥원 원규 제·개정 관리 이사회 운영 및 시의회/시청/국회 업무대응 기관 경영평가 및 감사 업무 인사·노무 관리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구매계약 및 예산관리 회계(지출 포함) 업무 및 급여관리 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관리·운영 기타 기관운영 및 서무 업무 	
정책·홍보팀 (문해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연구 개발 정책사업기획단 구성 및 운영 정책동향 리포트 제작·발간 평생교육 정책포럼 개최 서울시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실시 서울 평생교육 전문성 강화연수 운영 온·오프라인 아카이브 기록물 발굴·수집 문해교육센터 사업 기획·운영 서울형 디지털 문해교육 운영 찾아가는 서울 문해교육 강사 운영 서울형 생활문해 콘텐츠 개발·보급 문해교육 교원 연수 및 관계자 보수교육 문해교육 시화전, 문해의 달 행사 운영 언론 등 대외홍보·커뮤니케이션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운영 평생학습 전문 매거진 발간 기관 홈페이지, SNS 채널 운영 기관 홍보물 제작(연차보고서, 브로슈어 등) 기관 커뮤니케이션 전략 자문회의 운영 인문학 포럼 개최 	
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생교육 네트워크 및 평생교육 사업 진흥 업무 동네배움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 동네배움터 사업 공모·선정 동네배움터 사업 홍보 및 캠페인 추진 (대시민 홍보, 발간물 제작, 성과공유회 개최 등) 동네배움터 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평생교육 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동네배움터 사업 관계자 및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기획·운영 서울시 평생교육 관계자 협의회 운영 영역별(지역 평생학습, 중간지원조직, 장애인 등) 평생교육 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서울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 공모·선정 통합컨설팅 및 추후컨설팅 운영 	
청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팀 기본계획 수립 운영위원회 운영 서울시 청년 대상 조사 연구 수행 프로그램 파트너 발굴 선정 관리 베이직 코스 프로그램 개발·운영관리 서울 평생학습 청년위원회 운영 프로젝트 코스 프로그램 운영 워크앤라이프 코스 프로그램 운영 수강신청 및 참여자 이력 관리 모집 홍보 및 대중화 캠페인 추진 참여자 의견 수렴회 개최, 종합만족도 조사 실시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서울 청년 평생학습 실태 조사 실시 	
모두의학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의학교 종합 계획 수립 및 공간 문화 조성 배움방법론 모두 톨킷 시리즈 개발·운영 시민학교 스타트업 기획·운영 모두의학교 프로그램 운영·평가 체계 개발 모두의학교 참여자 요구조사 체계 개발 모두의학교 협력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운영 주제중심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 참여자(강사) 풀 기획·운영 시민 파트너 운영 지원(시민학교, 커뮤니티) 자원활동가 '모두아띠' 운영 참여자 멤버십 제도 운영 모두의학교 온·오프라인 캠페인 기획 시민자식공유 프로그램, 문화행사 운영 홍보물 제작 및 SNS 채널 운영 모두의책방 도서 수집 및 관리 시설 관리 및 대관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부서명	업무내용
시민대학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대학 종합계획 및 교육체계 수립, 성과관리 • 서울시민대학 대외협력 및 행정대응 • 서울시민대학 자문단 운영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교육과정 기획·운영 •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학습자 지원 및 상담관리 • 시민연구회 운영 • 대학연계 시민대학 교육과정(30개 연계대학) 운영·관리 • 대학연계 시민대학 홍보 및 운영성과집 제작 • 대학연계 시민대학 간담회 개최 및 대학별 운영협의회 구성 • 인문단체연계 시민대학 공모·선정 • 인문단체연계 시민대학 운영 및 모니터링 • 대사관연계 시민대학 기획·운영 • 서울자유시민대학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북, 기관브로셔 등) • 기관홈페이지, SNS 채널 운영 • 언론 등 대외홍보 • 학습매니저 선발 및 운영 (품질관리시스템 관리) • 학습매니저 역량강화교육 기획 및 운영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관리 및 운영 (온·오프라인 과정개설, 출석·수료 관리 등) • 네트워크데이 운영 • 본부캠퍼스 시설관리 및 대관업무, 안전관리 • 본부캠퍼스 도서 관리
시민대학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별 학습장(은평, 시민청, 중랑, 서소문, 독섬) 교육과정 기획·운영 • 시민대학 통합 학습이력 및 시간 관리 • 시민학사 졸업 신청자 관리 및 졸업 사정 • 시민석사 입학 및 졸업사정 진행 • 명예시민학위수여식 개최 • 공통과정(5개 교과목) 운영 • 전공세미나 발표회 개최 (주제발표, 중간발표, 졸업심사) • 전공세미나 운영 관련 특강 개최 • 디지털 시민교육 강의 기획 및 홍보 •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 및 만족도 조사 • 기업연계 시민대학 기획·운영 • 온라인시민대학 콘텐츠 기획·운영 • 유튜브시민대학 콘텐츠 기획·운영 • 강사역량강화 사업 • 시민대학 학습비 수입내역 관리 • 학습자 안내자료 제작 및 환불요청 처리 • 은평학습장 시설관리 및 대관업무 • 은평학습장 도서 관리
동남권운영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권 캠퍼스 3주년 운영계획 수립 • 동남권캠퍼스 신규 개관 준비 • 동남권 캠퍼스 특성화 과정 (미래학, 생활환경학) 운영 • 정규과정(인문학, 서울학) 임시 특강 기획·운영 • 개관기념 홍보물 제작 및 홍보 기획·운영 • 시민홀 및 시민지혜오름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민전시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민기획단 조직 및 운영 • 동남권 캠퍼스 공간 조성 및 안전관리

이사회 현황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

구 성		기 능
임원 : 13인 이내 - 이사장 1명 - 상임이사 1명 - 이사 9명	감사 : 2명 - 비상임감사 2명	• 재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의결 - 사업계획,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 현황

양병찬	이사장(비상임)	•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평생교육원 원장 / • 국가교육회의 평생·직업교육 위원회 위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본부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주명	원장(상임)	• 서울특별시 비서실 비서실장 / • CBS 논설위원장 / • CBS 정치부장
박영숙	이사(비상임)	• 느티나무도서관재단 이사장
이희수	이사(비상임)	•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
최규복	이사(비상임)	• 유한킴벌리 대표이사 / • (사)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조일현	이사(비상임)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인재개발원 원장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겸임교수
이규선	이사(비상임)	• 평생교육실천협의회 회장 / •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리상섭	이사(비상임)	• 동덕여대 교육컨설팅학 교수 / • 동덕여대 창업교육센터 센터장
이대현	이사(당연직)	• 서울시 평생교육국장
백정흠	이사(당연직)	•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이상훈	이사(당연직)	•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복재	감사(당연직)	• 서울시 평생교육과장
조대진	감사(비상임)	• 법무법인 해냄 파트너 변호사 / • 법률사무소 승민 대표변호사 / • 법무법인 동안 파트너변호사